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6월 1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177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오페라…국악…그림전…영산재…연꽃제

산사 문화향기 '가득'

불국사 · 범어사 · 백양사 · 봉원사 등
IMF 경제시름 위안처 '톡톡'

오페라하우스가 아닌 녹음 짙은 산사에서 듣는 오페라 아리아는 어떤 맛일까. 풍경소리 그윽한 처마밑 문살고운 대웅전을 배경으로 추는 살풀이춤은….

산사가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IMF의 영향으로 문화전반의 침체가 장기화, 가속화되어 변변한 불교문화 행사가 드문 요즈음, 산사에서 오페라 국악 영산재 그림전시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산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는 행사 자체도 이채롭지만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그윽한 불 보살님의 미소가 배가돼 실업 등 경제난으로 잔뜩 움추러든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히 다독여주고 있다.

국악인 김영동씨(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가 이끄는 산중음악회가 20일 부산 범어사, 7월 4일 대구 동화사, 7월 25일 대전 동학사 등 산사에서 연이어 열린다.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산중음악회는 시립국악관현악단들이 '영산회상' '귀소' '산행' 등 우리 가락을 연주하고 살풀이와 사물놀이 등도 흥겹게 베풀어진다.

백양사 고불미술관은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의 '동승전'을 이달말까지 갖는다. 산사의 일상생활을 동자승의 맑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표현한 50여점의 동승그림은 산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게 한다. 월정사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월정사 용금루에서 부처님진신사리 및 팔각구층석탑 유물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보 제221호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나온 부처님진신사리와 국보 제48호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에서 나온 은제도금여래입상과 다라니, 사리함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유물을 친견할 수 있다.

신촌 봉원사에서는 오는 28일(윤 5월 단오) 불교전통의식인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전 과정이 시연된다. 서울의 몇 안되는 고찰 봉원사 대웅전 앞 너른 뜰에서 봉행되는 이번 영산재는 전통 범패소리와 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신 인취사와 성남 정토사도 8월 연꽃과 함께 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국악과 찬불가, 시낭송, 서예, 다도 그리고 연등이 어우러지는 연꽃문화제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연례행사로 정착되고 있다.

장일남씨의 대표작 오페라 '원효'는 9월 18일 -21일 경주 불국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대구시립오페라단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공연하는 오페라 '원효'에는 중견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600년전의 길을 따라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4일 강화 선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원사(주지 성원)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마련한 대법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운의식을 봉행 6백년 전의 길을 따라 더러미 나루터까지 대장경판을 이운하고 있다. 〈강화=고영배 기자〉

교계 첫 농민운동단체
'선농회' 9월 결성

유기농 직거래 · 도-농 공동체 전개

조계종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이달중에 불교계 최초의 농민운동단체인 (가칭)'선농회'와 '불교 생활협동조합' 설립 계획안을 마련한다. 불교귀농학교는 5~8일 2차 실상사 현장교육과 15일경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교적 도농공동체 건설 기획안'을 확정한다.

이 기획안은 도시내에 있는 사찰과 신도를 가입시켜 유기농 직거래와 도·농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불자 농업생산자들의 조직화를 꾀해 불교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농회'는 생산·소비자 조합을 연결하는 불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재정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불교농민운동의 틀을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우선 선우도량, 우리는선우, 수도권 사찰 주지스님(당연직 이사로 추대)과 신도회·청년회의 참여(발기인은 최소 2백여명)를 적극 유도해 전국적인 차원의 불교생협운동을 전개, 유기순환적인 불교적 도·농공동체의 한 전형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불교생협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선농회'를 주축으로 기독교 농민단체인 '한살림회'(회원 1만명 이상) 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고, 농촌지역에서의 불교적 영향력 제고도 추진하게 된다.

불교귀농학교는 출자금과 이익배당 문제 등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참여도 등을 감안하면 9월중에 불교생협 발기인대회와 선농회 창립법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찰 생협이 지역생협운동에 머문 한계를 극복하는 차별화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그간 불교농민운동은 수십년의 전통을 지닌 자톨릭농민회나 기독교농민회, 정농회 등 타 종교 농민단체와는 달리 농민운동의 조직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불교귀농학교의 시작은 불교내에서 농촌·농민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운동"으로 규정되면서 불교농민단체의 출범을 예고해 왔다.

"사전선거운동 자제"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5월30일 사전선거운동 및 과열 흑탁선거의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을 통해 "종단 안팎에서는 4~5개월 후에 나 있을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몇몇 후보들이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총무원장선거법 제11조에는 총무원장의 선거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투표전날까지 10일간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단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종법을 위반하고 대부분 종도들의 기대에 반하는 사전선거 운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찰 대상 사기 '극성' 23면
결식아동돕기운동 확산 19면

불교문화 체험기행



◇노동당사 전경.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 · 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 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협찬:일양약품 주관:혜초여행사

나의 테마 기도



"아우님, 왜 오늘은 복지관 놀러 안 나오셨수.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

"아이구 형님 죄송합니다.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뻑뻑해서 영 일어날 수가 없어 못 나갔어요."

보라매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아우를 걱정하는 형님 정정순 보살의 애정어린 안부 인사가 전화 선을 타고 흠로 지내는 노인에게 전해진다.

결코 점음을 과시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몇해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전 담한 교통사고로 온전한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는 68세의 정정순 보살. 정 보살은 오전 9시면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나와 이 구석 저 구석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기능회복실을 찾아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의 손발을 주무르고 물리치료를 돕는다. 요새는 치매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식사 시중을 들고, 어릴적 추억들을 늘어놓으며 그들의 동무되기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얼핏봐서는 누구에게 부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외모지만 정 보살은 '노인이 노인을 돕는' 풍경을 지어내는 아름다운 할머니다. "소문낼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늙은이 이 세상에 진 빚 어떻게 다 갚고 가누"라며 한사코 선행을 감추려고만 하는 정 보살의 진실됨은 감동마저 자아낸다.

정 보살은 몇해 전 교통사고로 한달여 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자식이 있어도 마땅히 의지할 곳 없고 그 휴유증으로 몇해를 고생하며 쓸쓸한 황혼을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정 보살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찾아왔다.

9년 전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은빛봉사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맺은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것이다. 하루 7~8시간을 꼬박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해 문밖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살아가는 정 보살의 정성어린 마음가짐과 실천.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이 빛을 값는 마음으로 행하는 정보살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돕는 눈물겨운 인연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즐겁다.

〈명예기자=이경숙〉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수도권의 신(新)청학동 에 도솔마을 전원주택 이 있습니다.

전통의 산경표(山經表)에 따라 한남금북(한수이남, 금강이북) 정맥이 정통으로 흐르는 곳,
그 가운데 위치한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자연속의 삶을 주장하는 환경공동체, 개성이 독특한 재사 · 기인들이 자리를 틀고 모여 산다.

● 죽산면 용설리 전원마을 사람들 - SBS 이영희 PD/ 황창원 · 김혜창 부부/ 김진해 · 김아리 부부 및 아양극장/ 무등가 출신자들 및 아양무대/
엄홍타기 명인 김대균씨 집고 연습장/ 밴드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소설가 김정빈씨의 집과 명상원(주간조선 98년 5월 14일자 사회면 기사참)

간편 분양

도솔전원마을만의 Know-how

도시인들이 항상 그리워하던 동심의 고향 마을 - 도솔전원마을
이상적인 전원 주거지의 신 개념을
안성 도솔마을 전원주택이 실현했습니다.

"(주)도솔"이 만드는 전원주택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산과 물이 모두 편안한 곳으로서
서로 어우러져 삽니다."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로 손 꼽히는 곳 -
탁탁 드러맞는 안성마춤의 출발지 -

"도 솔 전 원 마 을"

이곳에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주택이 출발합니다!



● 분 양 가 격
필지에 따라 평당 65만원~75만원
분양 계약시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

● 약도



분 양 사무실 TEL : (02)2811-515~6
FAX : (02)2811-517

주문주택 (株) 兜率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430 · 432번지

■ 도솔의 건설철학 ■

누가 집을 함부로 짓는가?
집구조에 관한 풍수지리학을 보면 양택(陽宅)의 법칙에 있어서 세가지의 요체삼(三要)이 있으니, 이것이 곧 대문과 방 그리고 부엌이다.
대문은 식소링 출입하는 길이요, 방은 사람이 기거하는 바탕이며, 부엌, 이 세가지가 각각 제자리를 얻어 문(門)은 방을 탄생(生)시키고, 방(房)은 부엌을 탄생시키며, 부엌은 문을 탄생시켜서, 삼자가 서로 상극되지 않게 화비(和諧相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집주인의 본생(本生) 즉 운명과 합치게 될때, 자손이 흥왕하고 복록이 번성되며 수명이 장건장(壯健)하게 된다고 했다.
백두대간 도솔산 밑의 풍수적인 최고의 길지(吉地)에서 이 모든 것을 저희 도솔마을 전원주택에서 이루어 보십시오.
천년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양택의 비전!
집의 구조를 알면 건강과 성공이 보입니다!

ARCHITECTURE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대학4개(두원 공업 전문대, 동아방송 전문대, 안성 산업대, 중앙대)를 비롯 고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34개로 최고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 설

실직자 재활에 나서자

실업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웃은, 그 사람의 무능과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업보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나의 고통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대중의 고통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할 불교계의 시의적절한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이 한층 더 요구되는 때이다.

교계에서는 '보현의 집'(4월 22일),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5월 20일), '아침을 여는 사람들(5월 25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6월 1일)' 등을 이미 개원해 실업자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서울 수송동과 부산에서도 제 2, 제 3의 '보현의 집' 개원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또 어떤 점에서는 큰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는 듯한 양상도 없지 않다.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가 실업자 문제에 대하여 지녀야 할 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는 우리의 공업에 의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에 대한 처우도 단순한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을 자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을 비하시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또하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는 것이 된다.

불교계는 공업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천명하고, 정책 차원에서 실업자의 구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엄하게 지켜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교계도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자세로, 실업자 구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청정한 공동체인 교단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짐을 사부대중이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 대중들이 십시일반의 자세로 힘을 모아, 청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사찰 공동체에서 갖가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미와 북미에서는 자선단체 등에 봉사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 3부문에 의한 실업자 구제가 전체 실업자 구제의 10%선에 육박하고 있다 하며, 그 가운데 종교단체가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실업자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불국토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원의 차원에서 실업자들에 대한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실업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남과 사회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수렁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구제를 바탕으로 하되, 그들이 실업의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찰의 신도 교육을 통해 실업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도록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업자들이 당당하게 재충전을 위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교의 사회화, 나아가 불국토 건설의 서원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에 교계와 천만 불자의 인식이 함께 해야 한다.

"고통분담 대화합"

6대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국민주도 개혁' 등 제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6개 종교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고통분담과 대화합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타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종교지도자들은 "갑작스런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개혁의 명분만 치장할뿐 실제로는 정치권을 비롯한 각주체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여 국난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로인해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불신을 가중시켜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의 마스터플랜 제시 △공정한 고통분담 △사회지도층과 가진자들의 모범 △타협과 양보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합의 도출 등의 4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국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리당략과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큰 정치 개혁된 정치를 실현하라"고 당부했다.

또 재벌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안정을 촉구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합의 장에 나와 국난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것"도 당부했다.

대국민 호소문은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추기경, 강원룡목사, 조정근 원불교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광욱 천도교교령, 김몽은 KCRP회장 등 7명의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총무원 전산화 정통부장관상 수상

조계종총무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산화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 1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중앙과 지역 본말사를 연결하는 제2차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은 8일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불교 · 천주교등 6개 종교지도자들이 3일 국난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실업극복 국민운동' 발족

15일경 … 종교-노동-여성-언론계 등 동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 노동계, 경영계, 학계, 여성계, 언론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가칭)'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15일경 발족된다.

'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은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MBC, 한국담배인삼공사, 은행 · 증권사 등 여러 단체에서 모은 실업기금의 사용방식과 금액등을 결정하는 민간위원회. 이 위원회는 실업기금이 현행법상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진흥기금'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으며, 당초 노동부의 "모아진 실업기금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 모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추진위원회에, 사회부장 능관스님이 집행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선출 및 운영규정 확정, 사무국 공간 확보와 일정 등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다.

수행환경 보호노력 '긍정적'

불교계 '국민정부 100일' 평가

4일로 출범 1백일을 맞은 국민의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평가는 "좀 더 지켜본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확인된 기간이었다"고 지난 1백일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개편으로 불교계와의 협조적 관계모색과 공원내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 의지를 표현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하며 입장료폐지등 현안들을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제원스님은 "1백일을 지난 시점에서 현정부에 대한 종단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그러나 종단은 6개월, 1년 등 좀더 긴 시간을 지켜보며 대불교계 공약이행의 여부와 종교편향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정부 출범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월 11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금모으기 운동'등과 관련 국난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4월2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등 행사장에서도 서너차례 회동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우리는 지금 모든면에서 개혁이 필요한때"라고 전제하고 "아직까지 개혁의 뚜렷한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정개개편 움직임과 관련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순리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뚜렷한 의사표현을 자제하면서 "좀 더 지켜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불국사 성타스님 마곡사 진허스님

산중총회서 후임주지 추천자 선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후임주지 추천자로 성타스님(조계종포교원장)이 추대되고 제6교구본사 마곡사 후임주지 추천자로 진허스님(조계종 기초선원장)이 선출됐다.



◇성타스님



◇진허스님

불국사는 5일 오후2시 심검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설조스님의 후임에 성타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52년 불국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5선), 총무원 교무부장등을 역임한 성타스님은 "문도들의 뜻에 따라 본말사의 종무행정의 효율화와 문도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1일 마곡사는 후임주지 추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기초선원장 진허스님과 前 마곡사주지 능엄스님이 입후보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진허스님이 총투표자1백10명중 58표를 얻어(능엄스님 51표 무효1표) 후임주지 추천자로 당선됐다. 66년과 67년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하고 제방선원에서 정진해 온 진허스님은 "문도들의 화합을 통해 본사와 말사간의 원활한 종무운영을 꾀하며 제6교구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쌍계사 28일 산중총회 후임주지 추대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산중총회가 28일 오후2시 쌍계사에서 열린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지난달 22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된 철형스님의 후임주지 추천자를 추대한다. 쌍계사의 한 스님은 "이번 산중총회에서는 후임주지 추천자를 경선이 아닌 추대로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출될 주지스님은 지방종정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지 철형스님의 잔여임기(2000년 1월8일까지)와 관계없이 4년임기로 주지직을 수행하게 된다.

"관광가이드 연수 또 열어주세요"

조계종 연수참가자 설문

지난 5월 28~29일 불국사 일대에서 열렸던 관광가이드 연수 참가자들이 이같은 연수회를 또 열어줄 것을 요청해 조계종포교원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포교원은 하반기중 2차 연수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외국인 안내시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연수회에도 꼭 참석하겠으며(75%), 참가자 전원이 동료들에게 연수 참가를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사찰에서의 숙식과 조석예불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불교문화와 불교적 삶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연수 참가자는 국제포교사 8명을 포함해 모두 55명. 대부분 경력 5년 이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운데 하나씩은 능통한 중견 가이드들이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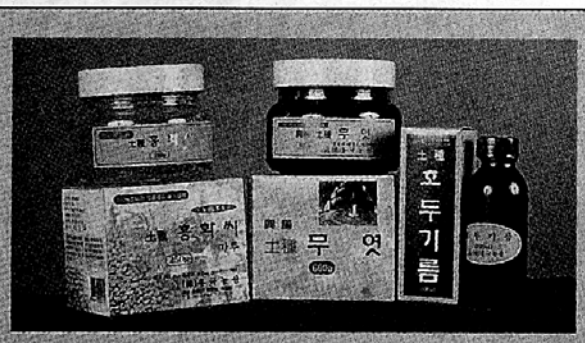
박구원



기자사칭에 속지 맙시다

身土不二의 企業 (株)興國農産

○ 신 · 토 · 불 · 이 · 정 · 신 ○
土種무엿 · 호두기름 · 土種홍화씨



뼈에 좋은 함양산 土種 홍화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청정지역인 지리산 자락 함양은 홍화씨 재배의 적지이며, 농촌지도소, 악초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한 품질의 홍화씨가 생산되어 소비자들께서 그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수입산도 넘쳐나고 수입산으로 한해 농사를 지어 토종이라 값싸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땅 아무지역에서나 심었다고 모두 토종은 아닙니다.
몇해에 걸쳐 같은 토양과 토질의 땅에서 수확한 같은 씨앗으로 우량을 뽑아 심고 가꾼 함양산 홍화씨는 함양의 씨앗에도 농민의 땀과 정성이 듬뿍 베어있는 토종 眞品 홍화씨입니다.

소비자가격 200g 씨앗 33,000원/250g 가루 43,000원

함양특산물 - 토종 홍화씨
군에서 적극 장려하여 수백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함양산 토종 홍화씨-보사부의 식품 원료사용 허가와 매출 맞추어 상품화시킨 토종 홍화씨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요.

함양군수 鄭 秀 圭

무엿 600g = 소비자가 45,000원

'무 하나 잘 먹으면 인삼 한뿌리 먹는 것 보다 낫다'고 알려질 만큼 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에는 포도당, 스크로브등과 같은 당분과 함께 신맛을 가래내는 산, 비타민 C, 그밖에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가래, 기침, 해소천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무는 해독작용이 현저하여 체내의 독성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각혈, 코피등과 두통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엿은 재래식 가마솥에 생강, 마늘을 깔고 무를 썰어 얹은 다음 약재를 놓고 찹쌀과 엿질금으로 삭혀 3일을 고아 정성껏 만든 옛날 식품입니다.



호두기름 100ml = 소비자가 27,000원

호두는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는 폐, 기관지질환의 약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천식해소를 하는 환자에게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보혈작용, 눈이 맑아지며 피부는 윤택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은행과 살구씨는 기침, 발열, 해소, 천식등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호두기름은 토종호두살을 큰솥에 밥을 지어 뜸이 들즈음에 집어넣어 2회를 찌고 말려서 살짝 볶은 은행과 살구씨를 혼합하여 기름을 낸 것입니다.
호두기름은 교사나 가수등의 성대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사찰내 불교용품 판매점, 매점등에 전시판매하실분은 연락하세요.

소비자 주문처 (무료전화)
전국 (080)064-1300
서울 (080)070-1300
광주 · 전남북 (080)085-1300
대구 · 경북 (080)040-1300
제주 (080)090-1300

건강한 農民의 鄕土企業
(株) 흥 국 농 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19
전화 : (0597)64-1300
FAX : (0597)64-1304

"교육 특성화 대학원 설립 선행돼야"

중앙승가대 발전모색 공청회

내년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학교가 제2의 도약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일 중앙승가대(총장 지하) 정진관에서 열린 '중앙승가대학교의 위상 재정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종단내 기본의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교육환경과 내용의 특성화, 대학원 설립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은 "일원화되지 못한 교육체계의 무질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초의무교육(행자교육원)-기본의무교육(중앙승가대학교)-전문의무교육(각 지방승가대학)-전문교육(대학원·승가대학원·학림·기초선원·율원)등의 순으로 승려교육체계에 대한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기본 교육기관에 소속돼 있는 중앙승가대·동국대·각 지방승가대·기초선원 등을 종단적 차원에서 중앙승가대로 일원화 함으로써 승려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체계 확립과 더불어 종범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은 "중앙승가대학이 학문중심의 대학이 되느냐, 교육중심의 대학이 되느냐 하는 방향설정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중앙승가대학교 교육내용의 재검토와 보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종단내 여러 승가교육기관간의 역할과 기능의 체계적 분화를 위해 지방승가대학의 경우는 전통적인 '강원'의 명칭을 되찾아 수행과 습의 중심의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중앙승가대학교는 수행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승가교육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중앙승가대의 학부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관련 기준들을 철저히 이수하면서 독창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중앙승가대 내에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학인들의 교육욕구의 변화를 반영, 전통과 미래를 조화시킨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혜스님(중앙승가대 법인처장)은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이후 현 안암동 캠퍼스를 불교교양대학, 불교사회교육원 등 수익용 교육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가자를 학부 및 대학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21세기를 앞둔 중앙승가대의 다각적인 변모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효종스님(중앙승가대 동문회장), 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청화스님(중앙승가대 기획실장), 문수스님(중앙승가대 학생회장)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중앙승가대학교는 승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고유의 수행풍토를 지켜나가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현대적 승가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건립중인 김포학사 완공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앞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 79년 중앙승가학원으로 설립한 이래, 80년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 89년 학교법인 승가학원 설립인가, 91년 교육부로 부터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인정, 96년 4년제 정규대학인가 등을 거쳐 오는 99년 6월 말 김포학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은자 기자

기본교육 승가大로 일원화 본각스님
'학문중심' '교육중심' 선택 종범스님
안암캠퍼스 재가자에 개방 성혜스님
수행바탕 현대적 승가교육 김응철교수



◇3일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으로 개교 20년을 맞는 중앙승가대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진은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 전경.

목어

"용의 눈물"

화제속에 막을 내린 TV 드라마 '용의 눈물'의 마지막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비를 내려 주소서. 모든 악업은 내가 지었습니다. 잘못은 이 몸에게 물으소서."

백성을 위해 비를 기구하는 태종의 절규에 하늘은 감응했다.

왕실과 나라를 위해서라지만 태종은 많은 목숨을 죽였다. 태종은 그런 살생을 참회했다. 민비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사과했다. 가뭄도 자기 탓으로 돌렸다.

공직자는 죽도록 헌신하고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을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 IMF시대, 나라가 거덜나게 됐는데도 누구 한사람 "내탓이요" "내가 잘못했소"하고 나서는 이가 없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오늘 우리국민은 태종처럼 울줄 아는 공직자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이 값진 주권이 일자리를 만들고 가족과 이웃에 웃음찾게 하소서."

"이번에 뽑힌 분들이 제발 잘해주길 손 모아 빕니다."

6·4지자체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는 없었지만 차선의 후보를 선택했다는 한 실직 유권자의 발원이다.

고건씨는 당선소감을 통해 '희망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임창열씨는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4,354명의 새 공직자와 이미 나라일에 크고 작은 직함을 가진분들은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군수는 군민과 함께 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시장은 시민과 함께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

〈니건자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왕은 늘 백성을 걱정하되 갓난애 기르듯 해야하며, 백성들의 고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해와 가뭄과 풍우의 피해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곡식의 흉풍과 병과 건강도 알아야 합니다. 왕자와 관리들의 유공·무공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백성을 걱정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실정을 알아 도울사람과 거둬들일 사람을 헤아려서 백성이 안락하게 살도록 하면 이것을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계 민간교류 협력 기대"

강인덕 통일장관, '남북화쟁 대중공사'서 강연

사회 각계 중견지도자들이 모여 불교적 통일기반 조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가 5월30일 송현클럽에서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강연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강인덕 장관은 강연에서 평화·화해·협력을 기조로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는 "70년대 초 남북한 냉전분위기 하에서 남한의 종교계는 북한의 종교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달았다는 인식과 반공의 기치아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남한 종교인들을 민간차원의 외교교섭에 활용해 국제적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남한측 종교인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북활동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불교계 통일운동에 통일부가 힘 닿는데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종단차원에서 종도들을 독려해 지속적인 북한돕기 성금 모금행사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부 수장으로부터 불교계 통일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약받은 이날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종재 월주)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설정 중앙종회의장,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성타(포교원장) 도후(신흥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도법(실상사 주지) 태고종 우담(중앙종무원장)스님, 진각종 회정 정사(총무부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이문옥 감사관, 조희영(교불련 회장) 교수 등 2백여명의 교계 중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대구 경북지역 5개 본말사 주지 합동연수회가 1~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농어촌 포교 토론 '진지'

조계종 대구 경북 본말사 주지 연수

지역별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어촌 지역의 포교방안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일과 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등 대구 경북 5개본말사 주지스님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본말사주지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작년까지 본사별로 실시하던 연수회를 관역권역으로 나눠 실시해 지역사찰의 교류와 불교계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지난달 21일과 22일 통도사에서 열린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합동연수회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연수회는 IMF시대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불교계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찰 경영일선에 선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IMF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맞은 불교계의 과제들을 풀기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 받은 분야는 △농어촌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관심과 배려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승용차안타기와 실직자자녀에 대한 유치원교육비 보조를 등. 참석자들은 "농어촌 포교를 위해 종단차원의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촌 포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며 불교계가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부대중 모두가 먼저 검약과 베푸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교육과 사찰장부정리등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지사부주지 법등스님은 "교구종회에서 60세이상의 5인이상 7인 이하의 '교구중진회의'를 구성해 3분의2의 다수결로 본사주지를 선출하자"며 경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잡음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임토의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은 '21세기의 수행자상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혼돈과 복잡성을 기조로 하는 21세기에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불교 의식의 현대화, 정보화 시대에의 적응, 소규모 유치원의 설립확대 등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IMF시대 불교계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병기 동국대 부총장은 〈육방예경〉 등을 인용, "소소유(小所有)의 경제학을 사찰 운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인터넷 도메인(주소)을 각 교구본사에 무료로 제공키로 하는등 정보화 사회의 교구본사 위상 강화에 종립대학이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지역별 조계종 본말사 합동연수회는 10일과 11일 호남권(지리산프라자), 16일과 17일 경기 강원지역(중소기업개발원), 7월 1일과 2일 충청권(주택은행연수원)으로 이어진다.

"본사주지 선출 교구중진 회의서" 법등스님 제기

경주=이윤호 기자

금강국수공장에 후원금 보냅시다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 협: 053-01-237065
●우 체 국: 010041-0302852
문의: (02)735-5559
예 금 주 금강국수

I.M.F. 시대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상품 기획전

「효소(酵素)」을 먹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몸속에 집어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화될 필요없이 바로 인체에 흡수되는 효소(酵素)!
약이라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음식의 「다이아몬드」! 변비에 특별한 효과!
현·대·인·의·해·독·제!
먹는것으로 낫지 않는 병은 의사도 못고친다.
(히포크라테스)

驚異(경이)의 현미효소(酵素)



●공해 독절림시대의 구세주?
●체내 독소배출 효과 탁월
●풍부한 섬유질에 의한 장기능 강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산(酸) 독증 방지 및 체질개선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

·1병 200mg(675정)
(어성초, 화분, 벌꿀등 11가지 성분배합)

※ 현미식하시기 힘드시죠? 식후 15정씩 씹어드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격 : 1병(15일분) ₩15,000
2병(30일분) ₩30,000

미용식품 율무효소(酵素)



·1병 200mg(675정)
(잣산칼슘, 화분, 벌꿀등 12가지 성분배합)

"율무"가 위장, 비장, 폐기능향상 및 설사, 배농, 이물질 배설, 피부미용작용에 좋은 것을 아시지만 먹기가 불편하시지요? 율무와 11가지 성분을 배합하여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흡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식후 15정씩 씹어드세요)

■ 소비자가격 : 1병(15일분) ₩20,000
2병(30일분) ₩40,000

성장기어린이, 수험생, 노약자, 병약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다이어트 맛사지 헬스 미용벨트

이 「헬스미용벨트」는 살이 찌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위에 장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체적한 운동과가 맛사지를 해드림과 아울러 유산소 운동을 동해 군살까지 풀어 드립니다.
체내 지방질 분해 다이어트 효과 최고!

※ 소비자가격 ₩150,000 ※기획특가 ₩ 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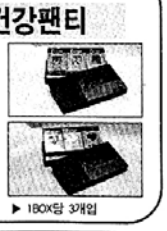
■미용 맛사지 운동
아랫배, 복부, 둔부, 허벅지, 다리등 용도별로 사용하면 군살은 물론 몸매라인와 미용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아하!! 요 게 바로 그 유명한 건강팬티~
바이오 세라믹 적외선 건강팬티

30여종의 광석에 함유된 원소를 추출 1600°C 고온으로 소성 정제한 「원적외선 바이오 세라믹」을 코팅처리하여 신비하고 소중한 부위의 경혈에 원적외선을 방사 흡수시켜 혈행을 촉진시킴.

● 여성 : 생리통, 요통, 냉증완화, 악취제거
● 남성 : 닝습예방, 정력증진
※ 면100% + 원적외선 바이오세라믹 코팅
※ 소비자가격=W39,000(BOX)
기획특가 : 건강팬티 1BOX=W25,000
※ 자주 세탁할수록 방사효능이 뛰어납니다



▶ 1BOX당 3개입

뉴스속보!

보너스상품 소개!!
2만원 이상 상품구입을 하시는 모든 「불교신문고객」에게는 아래 「가정용전자동 무공해 콩나물재배기」를 돈한푼 받지 않고 공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상품

묻 단 한방울 주지 않고도
무공해 콩나물이 쑥쑥 큰대요 글쎄…

전자동 무공해 콩나물 수경 재배기



특허보증 QM크 · 특허원(27677 27678)획득제품
· 콩나물콩이나 녹두, 무우, 기타 모든 씨앗을
· 하루밤(8시간)정도 물에 담갔다가
· 재배기 속에 넣어 두기만 하면 사나흘 후에 콩나물을 먹을 수 있는
· 참 희안하고 신통한 상품!!
서민들께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 실내에서는 '가습기역할',
'호흡기질환 예방효과'는 물론
· 자녀들 「자연학습교재」로도
자연탐구자료로도 최적입니다.

※ 특전 : 10명이상 단체구입시에는 특별한 혜택을 드림.

문의처
두오상사 소비자상담실
0345) 84-4840
구좌번호 : 211062-52-148326 (농협:전영희)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34-16



금강경독송회 北돕기 성금 1천만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사진 왼쪽)는 3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에 북한동포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금강경독송회 전국 회원들이 모금한 것으로, 북한동포 4천명이 한달 동안 연명할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성운 기자

"만일염불회·정토학회 인상적"

日 광명수양회 이사장 구마노 츄도 스님



"한국의 만일염불회와 한국정토학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귀국 후에도 이들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3일 방한한 광명수양회 이사장 구마노 츄도스님(야마구지 선상사 주지).

동경에 본부를 둔 광명수양회는 마스에 세이샤선사가 1908년 창립한 이래 일본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들이 구주시(市) 등 7개 대도시에 설치된 연맹에서 신행을 펴고 있다.

츄도스님은 "1년중 한 주를 정해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염불 정진하는 별시염불과 매주 스님을 모시고 봉행되는 가정법회는 광명수양회의 깊은 심신을 잘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한은 세이샤선사의 열반 80주년을 맞아 내년에 마련하는 국제세미나와 성지순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 세이샤선사는 1910년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광명수양회의 정신과 수행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구마노 츄도스님은 "내년 5월경 개최될 세미나에 정토학을 전공한 한국의 소장학자들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간모금 총액 8,165,680원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1,753,000원(41명) △부산대불련 281,940원 △21세기진보학생연합 556,790원 △연세대학교 열음 170,000원 △참여연대 640,000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학과 330,000원 △정토회 성남법당 500,000원 △전대협동우회 110,000원 ▲주간 신규 결연단체 △순심여자중고등학교-선봉 영예군인유치원(75명) △푸른하늘을 여는 사람들-선봉 조산탁아소(98명) ▲개인모금 총액 1,287,2000원(66명) ▲단체모금 총액 1,567,750원(2단체)

〈6월3일 현재 총 1,049,532,43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불교운동)

교차로

제15차 월례 발표회



현호 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 스님은 27일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제15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여름캠프·사경대회 논의



현근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조계사 주지)스님은 11일 오후3시 중앙사무국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파라미타 여름캠프, 사경대회 평가 등을 논의한다.

'한국현대불교사' 출판 법회



혜총 석림동문회장 스님은 10일 오후 3시 부산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한국현대불교사'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실직자 가족과 결식노인, 결식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032)663-7774

공창종합복지관장 취임

원철 통도사 포교국장 스님은 5월29일 2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취임했다.



관음정시 창건 10돌법회



홍제 인천 관음정사 주지는 1일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장학금 및 이웃돕기성금 2백만원을 청천1동사무소에 전달했다.

노인초청 나들이 행사



설웅 서울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24일 동작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관기념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02)817-8052

여름불교 지도자 강습

법현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장 스님은 27~28일 서울 서초구 구룡사에서 제2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연극 '침묵 II'서 춤 공연



자은 하와이 불은사 주지는 12일 오후 7시30분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침묵 II'에 출연해 '고뇌'를 주제로 한 춤을 선보인다.

돈황세미나 참석차 출국



해주 동국대불교학부 교수는 22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돈황에서 돈황예술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18일 출국한다.

석불·아미타불 점안법회



선응 인천구치소불교교화위원장 스님(청룡사 주지)은 인천구치소에서 21일 오후2시 석불 및 아미타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의 위기극복'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국제정보대학원장)은 8일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주한 일본공사 경제부장 다까마스 아끼라씨를 초청, '현 한국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특강했다.

네팔 불교센터 기공식 참석



김동흔 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은 네팔의 불교센터 '아침을 여는 마을' 기공식에 참석키 위해 4일 출국했다.

제6회 공초문학상 수상



신경림(시인)씨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생명복제 초청강연 개최



이종춘 동국대 자연과학연구원장은 1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생명복제 시대는 오는가'를 주제로 97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자인 한문희 박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월드컵 응원위해 출국

김흥국(가수)씨는 14일 새벽 0시30분(한국시각) 프랑스에서 열리는 '98프랑스월드컵 '한국대 멕시코' 축구경기 응원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장애인 목욕차량 운행

연정혜 인천 피안사회복지관장은 29일부터 인천 거주 장애인과 중증환자들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한다.

조계사 청년회 체육대회



이종찬 조계사청년회장은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회 창립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훈 할머니 첫 투표권 행사

지난 5월1일 50년만에 영주귀국한 '훈' 할머니 이남이(73)씨는 경북 경산시 동부동 계양유치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국적회복 후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훈 할머니는 4일 오전 올케 조선애(62)씨와 외손녀 닉 잔니(18)양 등 가족들과 함께 투표소에 나와 선거인명부 확인과 투표용지를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올케의 안내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했다. 〈재〉



"쑥쑥 자라는 식물 신기해요"

Focus

파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식물에 물을 주며 신기한 듯 토마토를 만지는 아이들.

조계사 어린이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무실 앞에 색색깔로 단장한 스티로폴 박스를 마련하고 상추, 고추, 호박, 토마토 등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은 단연 토마토. 크는 것이 눈에 보여서인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제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이회 박성희간사는 "비록 작은 공간에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연학습장이 따로 없어요.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법회에 나오면 하루가 다르게 크는 식물들을 몇가지라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강지연 기자

"포교사 전문화 종단서 지원을"

포교사 워크숍 연 임동현 사무국장



"세상이 아무리 첨단화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5월30~31일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 조계종 포교사단의 사무국장 임동현씨는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포교사들은 누구보다 포교에 대한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끌어주는 일은 이제 종단의 몫"이라고 강조한 임국장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포교사 워크숍은 어린이·청소년, 군·경·교도소 포교분야는 20~21일, 사회복지·자원봉사, 직장·사찰분야는 27~28일 화성 신흥사에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안상영씨



◇홍선기씨



◇허경만씨



◇우근민씨

광역자치단체장 불자 4명 당선

민선 2기 지방선거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6명 가운데 안상영(부산·한나라당) 홍선기(대전·한나라당) 허경만(전남·국민회의) 우근민(제주·국민회의) 등 모두 4명의 불자들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시·도지사 불자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홍선기 대전시장 당선자는 "반목과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합과 포용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욱〉

제11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안내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신을 수련하므로서 마음과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로 나밖에 모르고 편하게 살려다 보니 윤리도덕은 사라지고 IMF라는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보시행(普施行)으로 공동체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구분	대 상	일 자	인 원	회 비
1차	가 족	7월 24일~26일(2박3일)	50가족	1인당 20,000원
2차	청소년	7월 27일~30일(3박4일)	200명	1인당 30,000원

※서울 참가자는 단체로 출발 (교통비별도)

● 아 래 ●

■ 장 소 : 김천 복암연수원(직지사옆)
■ 대 상 : 1차: 일반가정 가족
2차:초중고생
■ 준 비 물 : 개인별로 쌀대(大)1되, 필기구, 세면도구, 양말5켤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 마 감 일 :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은 접수가 안됨)
■ 행사내용 : 1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가족끼리의 대화의 시간 외 기초교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2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발우공양, 미니올림픽, 찬불가, 참선의 실제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 접 수 처 : 까치마을 (02)83-6646~7 FAX: (02)873-6648
(우편:151-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391-9번지 지장사내)
■ 회비송금처 : 국민은행(812-21-0329-747:업욱상)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기 타 : 연수후 기간중 공양을 해 주실 자원 봉사 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연수기간중 보조교사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강 사 : 법전스님(까치마을 촌장, 지장사 주지), 법명스님
황학현(불교 교육 연구원 원장), 장덕수(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불교계사찰 및 어린이회 특가한시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원가에 가깝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품들의 이익금은 저희 까치마을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용 T ₩3,500원
초등학생용 노트 ₩ 400원

· 주문시기 : 6월 1일~7월 30일까지
· 주문방법 : 전화로 주문후 온라인 송금하시거나 서울, 경기지역은 방문을 원하시면 방문후 주문받습니다.
- 까치마을(지장사) 전화:873-6646
- 혜일기획 전화:278-1681
- 장덕수 핸드폰:016-304-1681
· 담 당 자 : 법전스님, 장덕수
· 온 라 인 :
- 국민은행 806-24-0129-284(예금주:장덕수)
- 한일은행 020-175515-02-501(예금주:장덕수)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은 300개 이상 주문시 기존 나와 있는 디자인외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인쇄해 드립니다.

戊寅年 本5月 영가천도 靈山大法會 勸善文

歸依 三寶하옵고

高堂의 尊體 錦安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慈恩으로 圓滿하게 이룩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교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뜻을 지니고 어진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 섭심으로 자비의 등불을 밝혀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하는 종교입니다.

이번 금강산 약수암에서는 3년에 한번씩 오는 윤달을 맞이하여 여러 불자님들의 선망부모와 호국영령 및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기 위한 영산 대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영산재란 부처님께서 영추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영가들이 진리의 이치에 따라 극락왕생케 하는 의식을 인간무형문화재(50호) 박송암 큰스님의 증명하에 중건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되어 해탈에 이르게 되며, 모든 동참 중생들은 업장이 소멸되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는 본 법회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불은과 가호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1998(불기 2542)년 6월 18일 (음본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금강산 약 수 암(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3. 연락처 : 전화 0392)682-1933/1707

금강산 대한불교 약 수 암
주지 이 보 해 합장

금융단불자련 자구책 '고심'

IMF 구조조정·'금융빅뱅' 영향
12개 은행불자회 사실상 법회 중단

IMF이후 금융업계가 대량감원 한파와 이달말부터 본격화되는 은행 합병등 '금융빅뱅'으로 불자회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26개 은행중 불자회가 구성된 곳은 16곳. 이중 한국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등 4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은행불자회 법회가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중단된 상태다. 또 창립을 준비했던 광주은행도 당분간 손을 놓고 분위기를 살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단 불자회가 타단체에 비해 어려움이 큰 것은 간부와 여성회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은행에 비해 비교적 바람이 적었던 한국은행은 23%의 직원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거쳤다. 불자회는 간부회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여성불자회원들이 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40%의 회원감소를 보였다.

특히 은행불자회가 운영에 애로가 큰 것은 갑자기 회장과 임원단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2일 정부가 대형 시중은행에 대해 6월말까지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 합병·정리하겠다고 밝혀 금융단불자연합회는 17일 상임간사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가 밝힌 시중은행 합병·정리계획에 따르면 26개 은행을 3~4개의 은행으로 합병하여 세계 1백대 초대형규모로 육성하고 10개 부실은행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국내은행중 가장 규모가 큰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을 합병할 방침이며 신한 외환 국민 주택은행이 선도은행 및 합병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불자회의 대대적인 통합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어대한 준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하용이회장(한국은행)은 "전반적으로 금융단 불자회의 어려움이 올 하반기까지 갈 것 같다"며 "매월 열리는 각 은행 회장단의 모임인 간사회의에서 각 불자회를 수시로 체크하고 합병의 경우는 연합회가 조정하는등 변화되는 금융계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직능단체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온 금융단불자회가 금융빅뱅의 한파를 극복하고 여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교계의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성지순례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 영진회계법인 대표)는 13일부터 14일까지 보은 법주사와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로 전반기 성지순례를 떠난다.

세무사불자회는 법주사, 금산사에서 법회와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고 송덕상법사(조계종 포교사) 지도로 선운사 도솔암에서 철야정진 할 계획이다.

송호승회장은 "회원배가운동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불자세무사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겠다"며 "세무사불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98-7300

대구산악회 통고산 산행

대구불교산악회(회장 장병국)는 21일 경북 울진 통고산(1067m)으로 6월 정기산행을 떠난다. 회비는 2만원이며 점심은 지참해야 한다. (053) 556-3553

충북예비역회장 이만호씨

충북예비역불자회(회장 이만호)는 5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 및 신임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 2월 완공예정인 선불교회관 건립불사에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키로하고 신임회장에 이만호씨(49, 하나엔지니어링 전무)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이만호씨는 "앞으로 회원배가운동과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운불 차량염주 달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후원으로 5월31일 범일동 일대에서 차량염주걸어주기 운동을 펼쳤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8염주 5천개를 차량에 걸어주며 안전운전을 기원했다.



제석사 원효성사 탄생 1381돌 다례

조계종 제10교구 경산 제석사(주지 태경)는 5월29일 원효성사 탄생 1381주기 다례재를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을 비롯 원효선원장 도영스님 불교대구방송 총괄국장 장적스님 조춘호 경산대교수 등 사부대중1천여명이 참석했다.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제석사는 스님이 탄생하신 매년 음력5월4일 다례재를 봉행해왔으며 올해는 특별강연과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취임법회

한국불교법화종 제4대 종정 취임식 및 경제회생 국운융창 기원법회가 4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세계불교법왕청 공동대표 청화스님, 조동종 종무원장 윤송정스님, 삼론종 종정 이대산스님, 여래종 종정 석인왕스님, 법상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총무부장 회정정사, 태고종 前 전국신도회장 김철회씨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사 전문화' 워크숍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이 5월30~3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이 주최, 2백8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포교사의 새로운 활동 유형과 역할' 등의 기조강의와 청소년, 군포교, 사찰·직장 등 분야별 주제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타스님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효율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족통일불교협 판문점서 법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스님)는 5월28일 대원스님(각원사 총무)과 협의회 부산지부 천안지부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방문하여 평화통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의장 법혜스님은 "우리불자들의 원력으로 분단조국이 통일되도록 발원하자"고 말했다.

가정구급 침술대학 생긴다

불가침구학회 '자원봉사회' 설립계획

사찰의 침술자원봉사회 발족을 위한 가정구급 침술대학이 생긴다.

불가침구학회(회장 이홍재)가 수천년간 전수해온 불가의 침술비전을 통해 사찰과 단체에서 자원봉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설립한 가정구급 침술대학(학장 조항원)이 18일 문을 연다.

개설강좌반은 가정에서 사용할 일반인들을 위한 구급기본 강좌반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강좌반이 마련된다. 개설과목은 '침술의 이해' '침사용법' '구급침술 실기' 등이다. 강의는 매주 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조항원학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침술봉사"라며 "사찰이나 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25-2999



◇불기협 연수회에서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강의하고 있다.

"비구니·어린이 지면 확대"

불기협 전반기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불교언론의 환경변화와 새길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제 불교언론이 성장위주에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전제하고 "불교집안에 의존해온 취재대상 및 독자층을 일반으로 확대하고 비구니스님과 어린이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면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불동 칠연회 전국모임

13~14일 충남 신탄진

하이텔불교동호회 봉사모임 칠연회(회장 이승덕)는 13, 14일 충남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제7회 전국모임을 갖는다. 통신활동하는 장애법우는 전국 어디서든 참가의사만 밝히면 칠연회에서 교통편등 일체 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칠연회 모임은 거동이 불편한 7명의 중증장애법우를 통신법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계기가 돼 매년 2회 이틀동안 생활하며 수련하는 모임으로 발전됐다.

한편 칠연회는 자원봉사활동기금을 마련키 위해 자작그림, 도자기, 약, 차, 목공예품, 장난감, 생활용품등 기증품을 접수받고 있다. (032)547-0268 이승덕.

탐방 화화회

"불경연구로 서구사상 극복"

대구지역 교수 20여명 회원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
금강경 영역·서반어역 진행



◇화화회는 매주 화요일 화엄경 금강경 등 불교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다.

불경연구를 통해 서구사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임이 있다. 96년 봄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화화회'라는 의미에서 회명을 '화화회'라 정했다.

화엄경으로 그룹스터디를 시작했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금강경으로 교재를 바꾼건 5개월전.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에다 불교경전의 백미라는 점이 작용했다. 우선 금강경으로 불경에 익숙해진 뒤 화엄경학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원들은 경북대와 포항공대등 대구와 인근의 상아탑에서 강의를 맡고있는 석·박사급의 교수들을 주축으로하고 있다. 작은 모임이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열기는 화끈하다.

화화회는 경전을 단순학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여러 원전간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으며 전공학문이나 서구사상과의 연계 혹은 대조를 통해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

학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강경역해가 출간을 앞두고 있고 금강경의 영역과 서반아역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화화회를 모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가 탄생했다. 무비스님이 감수한 금강경역해는 금강경의 내용을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재해석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정기모임을 가지며 가끔 성지순례도 떠난다. 작년1월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부석사 해인사등 화엄종찰에 대한 순례는 아직 진행중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해인사에서 2박3일간 금강경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법회안내



관응스님(직지사 조실) 서울 호압사 13일 오전10시 천일기도회 향법회. (02)803-4779

한탑스님(문사수법회 회주)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문사수법회 대전법당 법회, 매주 금·일요일 오전10시30분 일산문사수법회,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7시 무량회법회. (0684)81-0508



법장스님(무진법장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일요가족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학생법회,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3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거사회 법회. (02)932-2333



광민스님(광주무각사 주지) 매주 수요일 오후7시 불교의식과 예절 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금강경〉 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옥과 관음사 관음기도법회. (062)383-0108

본각스님(승가대교수) 6월 한달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성북동 길상사 〈천수경〉법회. (02)3672-594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불교와 기독교 바른이해
다보문화센터 6월 특강

현대사회에서 종교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각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올바른 신행생활을 이끌어 주는 초석이 된다. 다보문화센터가 이를 위한 6월 특별강좌를 준비했다.

10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릴 '불교와 기독교' 주제 강좌가 바로 그것.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명쾌하고 신심나는 강의를 통해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 (02)703-0108

"포교사 파견합니다"
조계종 포교원 무료봉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사찰과 현장의 포교를 돕기위해 나선 조계종포교원 포교사단이 각 단체나 시설의 활용을 기다린다.

시설 또는 단체명과 성격, 대표자명, 포교사가 해야 할 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주면 적재적소에 든든한 포교사를 파견해 준다. 포교에 대한 큰 원력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훈련까지 받은 포교사들의 헌신적인 무보수 활동은 포교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관련 불교단체들의 많은 활용을 기다린다. (02)737-7588

실직자자녀 도웁시다
구로복지관 하루장터

경제난으로 실직자 가정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실직자 자녀돕기 하루장터가 펼쳐진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하루장터는 26일 하룻동안 3층 강당과 야외장터에서 열린다.

킬라믹스액자 의류 문구류 등이 판매되며, 맛있는 먹거리와 도전가요 바디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복지관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웃의 아픔도 돌아보자.

이날 얻어지는 수익금은 실직자 가정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02)852-0525



◇실직자 자녀를 돕는 일일장터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나누자. 사진은 구룡사 일일장터.

"장애인 직업훈련 도와드려요"
강북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도 운영

만남과 배움의 장을 활짝 열고, 장애인불자들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17일 개원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18~2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기능·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게 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4시30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5명이 교육을 시작했으며, 추가로 5명을 모집중이다. 또한 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을 개설, 재활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예정.

동복지관은 이와함께 3~18세 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 또는 맞벌이등으로 인해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월~금요일 운영)도 다음달부터 문을 연다. 통원차량을 제공하며 음악감상, 시청각교육, 미술지도, 일상생활훈련 등 프로그램을 마련, 가족들의 보호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복지관은 학습·사무·수업보조, 직업·목욕지도봉사, 환경미화, 장애인유아 돌보기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현재 10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도 예산과 자원봉사자가 확보되는 대로 대상인원을 늘일 예정이다. (02)989-4215

나의 수행일기



김순석 〈순천향대학교 교수·교양학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된 나의 조숙한 고민에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이십 삼사년 전 고등학교 일학년 시기에 나는 심한 인생의 격동기를 맞고 있었다. 깊은 생각없이 집안 형편으로 인해 택했던 실업계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주 실시되는 많은 실습시간에 요란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지금도 나는 소음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 학교는 지방의 명문 실업고등학교였고, 졸업 한 나의 친구들은 지금 모두 유력한 기업에 취직을 하여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적성의 문제였다.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심각한 고심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 끝에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 부처님은 우리가 늘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성전〉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친구를 따라서 불교학생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내가 찾은 절은 포항시에 있는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합동으로 법회를 보았던 죽림사라는 절이었다. 그때 주지스님은 표도철 스님이셨는데 무척이나 설법을 잘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렇지만 나의 첫 절집 나들이는 무척 당황스러웠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읽었던 불교성전 그 어디에도 절에서의 예절이나 용어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절집 문턱을 넘어서자 인사하는 법 부터가 달랐고, 친구들을 부르는 법우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목탁소리에 맞추어서 어떨때는 반배를 하고, 또 어떨때는 절을 세 번씩이나 했다. 모두들 무엇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종교를 가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해 가을 나는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으로 뜻깊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종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성경〉과 〈불교성전〉을 읽어 봐야겠다는 당찬 생각을 했다.



지금의 기억으로 그때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에 나는 줄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당장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제 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성경〉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다.

〈성경〉 읽기가 끝이 났을 때 나는 교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불교성전〉을 마저 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불교성전〉을 읽고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느님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과 하느님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불교성전〉을 읽어가던 나는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참 외우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생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적성과 구미에 맞으면 쉽게 적응하는 습성이 있었으므로 불법에 접한 이후 찬불가, 청법가, 산회가, 사홍서원을 어깨 너머로 배웠고, 다른 학생들이 한참 동안이나 줄줄 외우던 반야심경도 주지스님의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외울 수 있었다.

불법에 귀의한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탓인지 무리없이 학교를 떠나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 서울로 상경하여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시절 자운(慈雲)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설파(雪波)라는 법명도 수지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좀 더 깊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인연 깊은 스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해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은(佛恩) 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알뜰히 나갈 것을 서원한다.

'불교성전' 읽고 불법귀의
불교학생회 활동 보람…"대학진학은 佛恩"

게 시 판

♣ 인사

교육원 교육국장 정혜스님·연수국장 견진스님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사무국장 이희태·간사 임미진

♣ 알림

△장애인 무료교육=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단지도·컴퓨터교육·여가활동 모임 등 장애인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집단지도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컴퓨터교육은 주 3회, 여가활동모임은 월 1회로 자유롭게 실시한다. (02)852-0525

△참고서·도서 모으기=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학생용 참고서와 사전류, 도서 등을 수집한다. 수집된 책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과 사회복지시설, 마을문고 등에 전달할 계획. (051)898-2672

♣ 모집

△동화사 종무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신심깊은 새 일꾼을 모집한다. 대상은 40대 사무장 1명, 2~30대 주임 1명, 여종무원 1명 등이다. 사무장과 주임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여야 하며 여종무원은 고졸 이상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가 가능할 것. 문의는 동화사 포교국장 지거스님. (053)981-0101

△해동범음대=태고종 해동범음대는 제27기 학인을 모집한다. 각종불교의식을 기본과정, 중급과정, 작법반으로 나눠 교육한다. 원서접수는 19일까지. (02)741-0495

△불화수강생=동화사포교원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15일 오전 11시 제3기 불화교실 초급반을 개강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불교미술가 최성훈씨의 지도로 진행된다. (053)784-3669

△물품후원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송파구내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음료수, 빵, 과자 등 간식류와 내의, 옷 등 생필품. (02)203-3677

△결연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후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기념관 발기인=나눔의집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의 흔적을 남겨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위안부 기념관을 건립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을 모집한다. (02)733-0969

△지원봉사자=매화복지관은 방문봉사, 노력봉사, 교육봉사, 상담봉사, 의료봉사, 지역사회봉사 등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343)93-3677

△생활영어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영어 기초반과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화·금요일 오전10시. (02)817-8052

♣ 답사

△선운사=터사랑(대표 전숙희)은 13일~14일 무박2일동안 '선운사와 백제불교의 첫 전래지를 찾아서'를 주제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이번 기행은 선운사, 영광 불갑사, 내산서원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 5만원. (02)725-1284

△외국인과 함께 문화기행=통도사부산포교원은 14일 파계사 성전암으로 외국인과 함께 문화기행을 떠난다. (051)816-2241

♣ 이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인사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옆 건물로 이전, 개원식을 갖는다.

♣ 화촉

△국민회의 연등회 불교특위 사무국장 오도선씨가 1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생관에서 정화태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3차 송광사 「송광암」 여름 수련회 안내

● 수련 일정표 3박 4일 (목~일) ●

구분	비 고	대 상	정 원	회 비	날 짜(기간)
1차	초심반	17~60세	30명	5만원	7월16일~19일
2차	〃	〃	〃	〃	7월23일~26일
3차	용맹정진반 (4박 5일)	20~60세	〃	10만원	7월29일(수)~ 8월2일(일)
4차	초심반	〃	〃	5만원	8월 6일~ 9일
5차	〃	〃	〃	〃	8월13일~16일
6차	〃	〃	〃	〃	8월20일~23일

1. 수련내용 : 묵언, 참선방법, 108배, 좁功(선체조), 관음기도(念佛是誰), 수심결강의, 행선(금장해수욕장, 용두봉, 적대봉)
2. 접수요령 : 이름, 성별(남·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팩스, 직업, 종교, 수련경험, 희망차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7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기 바람
3. 준 비 물 : 등산복 차림, 모포 1장, 세면도구
4. 회비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 협 617073-52-068116 (일선)
5. 교 통 편 : 서울 - 광주(고속)
   서울 - 순천(기차)
   서울 - 녹동(직통:오전 8시~9시)
   서울 - 여수(비행기)
   부산 - 순천(벌교, 녹동)
   녹동 ~ 금진행 (배로 15분거리) → 송광암
6. 접 수 처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송광암
   TEL : 0666)843-8488, FAX : 842-7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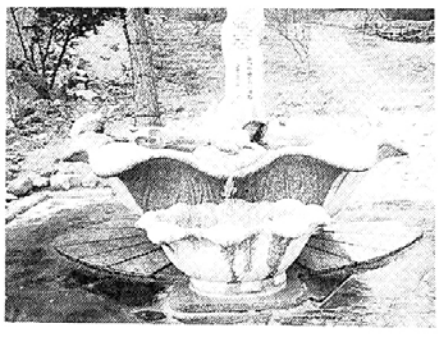
송 광 암
암주 일 선 합장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꼽는

우리고장 최고 문화유산

228개 지자체 합동 '우리고장…' 발간

우리 고장의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은 무엇일까?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국 2백28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기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하나씩 꼽아 화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처럼 국보와 보물에서 이름없는 산골의 소박한 3층석탑까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펴낸 〈우리고장 문화유산 1·2〉(개마서원 펴냄)은 각 지역 문화공보담당자들이 실무를 담당, 문화재전문가가 아닌 그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각 지역에서 최고로 꼽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유산의 많고적음을 떠나 모두 4쪽안에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풀어놓았다.

경북 경주시와 충남 부여군은 누구나 아는 불국사와 정림사지 5층석탑을 자랑거리로 내놓았고 경기 안양시는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동자승이 종을 치고 있는 석수동마애종'을 자랑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없는 문화유산들을 찾아낸 곳도 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는 각각 '동화사 원음각 목어의 부릅뜬 눈'과 '직지사의 벌거벗은 동자상 및 제각각인 나한상들'을 소개해 이채를 띠었고, 경남 함안군은 머리가 사라진 채 내버려져 있는 불상들을 서슴없이 꼽았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증흥사 석등은 광주 북구와 전남 광양시가 서로 내로라하는 문화유산. 광양시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석등이 제자리를 찾아 흠로 절터를 지키고 있는 3층석탑과 짝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북구는 반출된지 72년만에 겨우 호남땅에 돌아왔다는 기쁨에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삼았다. 불교초전지도 지역의 큰 자랑거리. 경북 구미시와 전남 영광군은 각각 신라와 백제불교의 초전지로 알려져 있는 도리사와 불갑사를 내세웠다.

단체장들이 이러한 문화유산을 최고로 꼽는 이유도 재미있다. 칠갑산 장곡사 석불은 방석깔고 명상하는 모습이 충청도 사람의 느긋함을 말해주는 것같아, 군산시 발산리석등은 구름속에 요동치는 힘찬 용조각이 수출항 군산의 웅진하는 모습을 대변하는 듯해 선택됐다고 한다. 전남 영암군은 보물을 가슴에 품고있는 '월출산의 장대한 계곡과 능선사이로 어슴푸레 떠오르는 처연한 달의 아름다움'을 첫손에 꼽았다.



◇김천시가 자랑하는 직지사 나한상들. 생생한 표정과 개성있는 몸짓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주인을 지키려다 죽은 오수의 개'나 '너와집에서 고콜불 쬐며 하룻밤을 보내는 즐거움'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단체장도 있어 우리 산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책 말미에는 지역축제, 민속장날, 천연기념물, 특산물 등에 대한 '문화정보'란을 별도로 정리, 수록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31〉

녹음이 해를 가리었더냐

枕上聽蛙語 (침상청왜어)	베개 위에서 꾀꼬리 소리 듣고
問童子曰 (문저동자왈)	동자에게 묻기를
家前五柳樹 (가전오류수)	집 앞 다섯 버드나무에
綠陰能蔽日 (녹음능폐일)	녹음이 해를 가리었느냐.

월하(月荷 1773~1849)대사의 시이다. 월하대사는 이름이 계오(戒悟)요 자는 붕거(鵬擧)이고 월하는 호이다. 속성은 안동 권씨이다. 아버지는 모현(慕賢)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인데 어머니의 태몽에 달이 품으로 들었고, 태어날 때는 산이 세 번이나 울고 부엉이가 옥상에 내려와 울었다 하니, 호와 자는 이러한 길상의 징조를 연상하여 지은 듯하다.

7살에 서숙에 나아가 하루에 1천여자를 배워도 어려워함이 없고 시구를 외우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1살에 부모의 뜻에 따라, 팔공산의 월암(月庵)수좌에게서 체발하고 지봉(智峰)화상에게 법을 전해 받았다.

여가가 있을 때에는 불경 이외에도 백가서를 수집하여 탐독하니, 그의 문장력은 민첩하면서 호방하여 조금도 속된 기상이 없었다. 시는 더욱이 고고하여 조금도 꾸민 흔적이 없어 스스로 작가의 기풍을 형성하였다.

대사의 문집은 〈가산고·伽山藁〉라 하여 4권이 전하고 있는데, 서문에 이러한 평이 있다. "문은 옛스러워 작자의 법도가 있고, 시 또한 전아하여 속스러운 기상이 없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대사의 시문이 고고 탈속함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시는 '병중(病中)'이라 제한 시이다. 병으로 누워 있어 바깥의 물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적적함을 은연중에 표현하였다. 문집의 서문에서 평한 대로 그저 고고한 시풍을 짐작케 하는 시이다.

병으로 여러 날을 누워 있어 바깥이 궁금한 처지에 홀연히 꾀꼬리의 울음을 들었다. 벌써 봄도 깊어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 시간인가 보다. 동자를 불러 물었다. 집 앞의 버들이 이제 얼마나 푸르렀느냐. 이제는 녹음도 짙어 햇빛을 가릴 만하겠구나. 동자의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밖의 정황을 추단하고 있는 것이다. 꾀꼬리가 저렇듯 운다면 이미 초여름은 된 것이다. 꾀꼬리는 버들의 숲을 찾아와 우는 것이니, 그렇다면 버들은 이미 녹음이 짙어 햇빛을 차단할 만할 것이다. 자연물에는 서로 어울림이 있다. 꾀꼬리는 버들이요, 봉황은 오동이요, 학은 소나무이다. 꾀꼬리의 울음에 버들이 푸른 것은 자연물의 함수이다. 그러하되 굳이 오류의 다섯 버들을 말함은, 옛날 도연명 집 앞의 다섯 버들이 은자로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구성은 한마디로 그저 깔끔하다. 병중이라 하나 병을 이해할 구절이 없으면서도 동자에게 묻는다는 한 마디로 설명은 끝났다. 역시 스님들의 선어 같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범패 들을수록 감동"

서울국악대경연 대상 안현정씨



"심산유곡에서 들려오는 듯한 범종소리와 같이 그윽하면서도 유장한 범패의 선율과 끊길 듯하면서도 길게 이어지는 염불소리에 매료됐습니다."

5월26일 열린 제9회 서울국악대경연에서 범패선율을 소재로 한 작품 '화연(和蓮)'으로 창작부문 대상을 차지한 안현정씨(25·서울대대학원 재학)는 범패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멋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화연(和蓮)'은 테너독창과 혼성합창, 그리고 관현악이 적절히 조화된 총 4악장, 연주시간 12분의 국악. 심사위원들은 범패를 소재로 한 착상이나 국악관현악을 서양적인 합창에 접목시킨 편성 등이 단순한 편곡수준에 그쳤던 국악관현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범패는 판소리·가곡과 함께 3대 전통성악의 하나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음악이지만 최근 국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술의전당 영상자료원에서 비디오와 테이프를 구해 범패의 구조와 음을 익혔다는 안씨는 경기고교 국악동아리에서 선생님의 가야금 소리에 매료돼 국악을 택했으며, 어릴 때 익힌 피아노와 합창단에서 갈고닦은 실력이 작곡을 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다.

일시적인 감흥보다는 감동의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안현정씨는 "앞으로 전통음악을 소재로 서양악기를 위한 작품을 써 세계속의 한국작곡가로 평가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석〉

곽훈 설치·드로잉전 '詩 茶 禪'

14일까지 금호미술관

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첫해 초대작가로 참가했던 곽훈씨(57)가 14일까지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詩 茶 禪'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드로잉전을 갖고 있다.

곽훈씨가 경기도 이천에서 직접 구운 다완(차를 담는 대접) 1백여개를 약 150cm 높이의 철제 좌대위에 올려놓은 설치작품을 중앙에 세우고 다완을 추상적으로 그린 드로잉 60여점을 세 벽면에 빼곡히 둘렀다. 쇠와 흙, 종이가 어우러진 전시장은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선적인 이미지가 가득하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뉴욕 찰스 카울스 갤러리에 내놓을 '詩 茶 禪' 연작의 일부를 미리 선보이는 자리이다. '시 다 선' 전시회에서는 입체와 평면, 오브제가 어우러져 동양적 명상의 세계와 선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다 선'을 주제로 한 곽훈씨의 설치미술전에는 '다선일여'의 선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곽훈씨는 "언젠가 우연히 추사의 서첩에서 '詩 茶 禪' 글씨를 보고 '바로 이거다' 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압축한 말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후 이 세가지는 내 미술작업의 일관된 주제가 돼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02)720-5114

천태종 찬불가제전

25일 관문사서

경제난국 극복을 기원하는 대규모 찬불가제전이 열린다.

천태종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옥불전에서 금강불교합창단을 비롯한 천태종 산하 전국 31개 불교합창단이 동참하는 찬불가제전을 개최한다. 연 1천 4백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게 될 이번 찬불가제전은 1부 국난극복 기원법회, 2부 합창발표회로 진행되며 '종소리' '고행의 길' '염주' '사바의 꽃' 등의 찬불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종단 부전스님들이 특별 출연해 범패와 바라춤을 선보이며 마하연 실내국악관현악단과 성룡사 어린이회도 우정 출연한다.

문화재 단신

에밀레종에 고임목

경주博, 종각개축 검토

에밀레종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 종바닥에 나무받침대가 괴어진다.

국립경주박물관은 2일 종을 약간 들어올려 용뉴(종을 종각에 거는 고리)에 걸리는 부하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의 이같은 조치는 종에 이상이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며 18.9t이란 엄청난 무게를 1천2백년간 지탱해온 용뉴를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나무고임대의 규격이나 모양, 괌의 위치와 높이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나 만일의 경우 타종에 대비, 나무판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또 콘크리트로 지은 에밀레종 보호각을 전통목조건축으로 바꿀 계획이며, 타종여부는 종합학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옥룡사지 사적 예고

광양시 복원추진

도선국사가 입적한 곳으로 알려진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 일원 5만5천여평이 사적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관광부는 5월30일 "옥룡사는 8세기초 통일신라 때 창건된 유서깊은 사찰로 최근 순천대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90여점의 유물과 함께 도선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석관이 발견되는 등 중요한 유적지로 인정된다"며 "전남도 기념물 166호와 12호로 각각 지정돼 있는 옥룡사지와 백계산통백림을 하나로 묶어 사적으로 승격 지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옥룡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복원사업이 국가지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80여억원을 들여 옥룡사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 도선국사 수련관과 쌍비쌍탑전 건립 등 사찰 복원과 관광자원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재 지정은 관보 예고 30일 이후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선시대 문화유산 전통디자인 체계정립

영문 CD롬

건축물, 생활용구, 한복, 한글 등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 한국 전통디자인 체계를 정립한 CD롬이 제작됐다.

삼성디자인연구원(원장 박재관)이 제작한 CD롬 타이틀은 '디자인으로 본 한국사상(Korea Spirit in Design)', 조선시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모자와 머리핀, 은장도, 건축물 등 총 17개 분야 1백점의 유물을 선정, 각각의 유물이 지니고 있는 형상·선·색상·형성의의 등을 전통음악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CD롬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해외 유명박물관과 예일대 등에 제공, 한국 전통디자인 자료로 활용된다.

삼성디자인연구원은 지난해 '석굴암' CD롬을 제작, iF디자인전 IDEA디자인전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강·보·조·식·품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청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에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청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이은윤씨
'너는 어디서 와서…'

'선사들의 화두' 밥알 씹듯…



화두 접근 저자 시각
선의 역사 이해 도움

하나의 화두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선의 맛을 아무나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사들이 남겨 놓은 화두를 밥알로 여기고 꼭꼭 씹다 보면 망상과 욕심이 녹아버림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이은윤씨(중앙일보 종교전문대기자)가 펴낸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자작나무 刊)와 윤재근교수(한양대 국문학)의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라〉(문학수첩 刊) 두 권의 책에는 선사들의 화두가 두 눈을 부릅뜬 채 욕심에 찌든 우리에게 자유의 몸이 되라고 일갈한다.

한 학인이 양기방회선사(992~1049)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세 발 당나귀가 발목을 놀려 절뚝절뚝 걸어간다"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까" "호남의 장로다"(〈너는 어디서 와서…〉中)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야 속인이 선미(禪味)를 안다면 이미 속인이 아닌 것을. 그래도 부단히 접하다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고 삿된 생각을 물리치는 힘도 가져다 준다. 세발 나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불성을 가르킨다. 그리고 자성 또한 이와 같이 공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다고 이 화두는 일깨운다.

한 스님이 대광스님(837~903)에게 물었다. "재를 올리며 고맙다고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대광스님이 춤을 추자, 스님이 절을 올리니 대광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보고 절을 했느냐" 이번에는 스님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대광스님은 말했다. "요 여우같은 놈아"(〈어두울 때는…〉中)

거칠 것이 없는 세계이자 불립문자의 세계. 화두가 그렇다. 언어의 길은 끊겼으나 마음의 번뇌와 욕심의 껍데기를 쪼아 깨뜨리라는 불호령이 숨어있다. 그래서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이내 화살을 맞는다. 남이 흘린 '침'이나 받아먹어서는 도에 이를 수 없다는 깨우침.

이 두 권의 책은 이렇게 어려운 화두를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석경선사 등 37인 선사들의 삶을 간략히 조명하면서 그들의 유명한 화두를 펼쳐 보인다. 화두 하나하나를 둘러싼 저자의 접근이 선의 역사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라〉는 먼저 세상사는 이야기를 에세이로 스케치하고, 뒤에 이와 관련해 설봉스님 등의 50개 화두를 떠올렸다. 화두는 온갖 근심과 욕심을 단번에 요절내는 방망이라는 저자의 생각이 책을 관통한다.

한명우 기자

윤재근 교수
'어두울 때는…'



세상사 스케치한후
50선사 문답 수록

우리문화 · 우리역사… 신영훈 지음

한 · 일 곳곳서 만나는 우리유산 답사기



목수 신영훈씨가 펴낸 〈우리문화 · 우리역사 답사기 I〉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곳곳을 누비며 만났던 우리국토와 문화유산의 숨결을 담았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월출산 도갑사, 팔공산 동화사, 팔만대장경 등 불교문화재의 모습이 전문가의 눈에 생생히 투영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신씨는 "기마민족 문화유산은 말탄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하고, 석굴암 본존불은 불단 위에 서서 바라보아야 그것을 만든 시대 감각과 정신이 제대로 보인다"며 '눈높이 역사인식'을 강조한다.

사진작가 김대벽씨의 수채화 같은 사진들이 신씨의 글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대한교과서, 1만3천원〉

화제의 책

행복의 문을 여는… 구미례 지음

불경과 고서에서 찾은 행복 변상도



당나라 조주스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모든 것을 버려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려 놓거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렇다면 쥐고 있을 일이지"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화 한 토막. 비웠다는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아직 비운 것이 아니다. 행복은 때때로 모든 것을 비우고 그 자체마저 잊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던진다.

행복 · 사랑 · 수행 · 지혜 · 죽음이라는 다섯 주제아래 불경과 고서 속 57가지 이야기들을 묶었다. 이야기 내용과 어울리는 변상도를 그려 넣어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한다. 〈한세, 4천5백원〉

해외신간

생각보다 쉬워요



공허한 교리의 나열보다는 실용적인 수행을 담고있는 〈생각보다 쉬워요:행복을 향한 불교의 방편(It's Easier Than You Think:The Buddhist Way to Happiness)〉은 고등학교 교사인 실비아 벌스타인(S.Boorstein)이 전통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지혜를 일상의 일화를 토대로 서술해 놓고 있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을 청소년들에게 제시한다. Harper San Francisco 刊. 145쪽. ISBN 0062512943

까마귀의 지혜



〈까마귀의 지혜(Wisdom of the Crows and Other Buddhist Tales)〉는 5~7세의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유머, 깨달음 그리고 사후(死後) 세계까지 선(禪) 우화와 삽화로 배울 수 있는 책. 저자는 동화작가 초드진(S.Chodzin). 80여개의 생생한 칼라 화보는 선화(禪畵) 작가로 유명한 매리 카메론(Marie Cameron)이 그렸다. Tricycle 刊. 90쪽. ISBN 1883672686

영어로 이야기하는 불교 Q&A

영문 불교입문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불교 Q&A〉가 일본에서 발간됐다.

질문과 답변식의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초 불교용어 및 교리를 영어의 특색을 살려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등 서구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 불교의식이나 미신적 요소에 대해서드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다. 강담사(講談社) 刊 2백40쪽.

'산에는 꽃이 피네' 읽노라면
깨우침의 풍경소리 들리네
법정스님 법문 류시화 시인 책으로


◇법정스님


◇류시화씨

청빈과 무소유의 법문이 시인을 만나 꽃을 피웠다. 그 꽃에는 음악이 있고 어머니 품속 같은 따스함이 있으며, '향기로운 삶'의 내음을 풍겨낸다.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刊)에는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말과 법문이 때로는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비 온 뒤의 힘찬 물줄기처럼, 때로는 대숲에 겸허하게 내리는 싸락눈처럼 그렇게 흐르고 내린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의 소리로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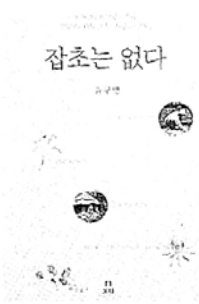
그 깨우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를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곧 산문시처럼 느껴진다. 자연 속에서 충만된 삶과 거기서 체험되는 마음의 풍경을 탁월하게 그려 보인 〈무소유〉〈서 있는 사람들〉 등 법정스님이 쓴 여러 권의 수상록과는 또다른 맛이다.

그러나 참맛은 스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리고 부자가 되는 일 못지 않게 참인생을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스님의 말과 말 사이에 하나의 문양을 넣고 한 줄씩 여백을 띄워 놓았다. 그 말들 배경에 놓인 침묵의 세계가 여백을 휘돈다. 하나의 맑은 풍경소리처럼. 〈우〉

■윤구병 수필집 '잡초는 없다'

농사통해 얻은 지혜와 행복



나이 쉰 고개를 넘어서 15년 동안 재직했던 철학교수직을 버리고 전북 변산 운산리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불자 교수 윤구병씨(55).

〈잡초는 없다〉(보리 刊)는 그가 변산에 내려온 뒤 '실험학교'와 '변산공동체'를 일구면서 겪고 느낀 일들을 잔잔하게 쓴 것이다. 아무도 버림받지 않은 삶터를 일구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필이라 가볍게 읽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위안을 준다.

1장에는 주로 교육과 관련한 글, 2장에는 실험학교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 3장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생각을 묶었다. 4장은 변산에 내려온 뒤 계속 써 온 변산일기를 소기했으며, 5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힌 '생명을 살리는 농업' 등 2편의 글이 실려있다.

책 제목 '잡초가 없다'는 그가 농사 지으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처음 농사지으며 잡초와의 전쟁을 벌이다 잡초들도 이름이 있고 쓸모가 있다는데 착안해 이 풀들을 발효시켜 '백초효소'를 만들었다. 변산공동체는 백초효소 뿐만 아니라 감식초 된장 등을 만들어 먹거리로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듯 생활 속의 지혜와 서로 도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학교보다는 일터가 더 좋은 배움터임을 일깨운다. 남들이 선망하는 세속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공동체 삶을 사는 윤구병씨는 외친다. "구구단 외는 대신 들판으로 나가자."

혜정정사가 쉽게 쓴
'밀교강좌' 출간

밀교종단인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사서실장 혜정정사가 밀교를 쉽게 설명한 〈밀교강좌〉(출판시대 刊)를 펴냈다.

불(佛)에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삼신불이 있으며, 교(敎)에는 밀교와 현교 두 가지가 있다. 밀교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며, 부처님의 진언을 따른다.

이 책은 '밀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과 밀교의 독특한 수행법인 삼밀관행(三密觀行) 등 밀교에 대한 모든 것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브르해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3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혼출판사
4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5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펨	여시아문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7	염화인천	진 제	화산문화
8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윤 청 광	서울출판미디어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 · 지현	민 족 사
10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전국 법사 연합회 총회 공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현장포교 하시는 법사님들을 모시고 전국법사 연합회 창립총회를 공고하오니 법사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8년 6월 30일 오후 7시
- 장 소 : 송현클럽 (한국일보 13층)
- 대 상 : ① 불교대학 운영법사
  ② 일선포교원 운영법사
  ③ 현장을 포교하는 일반법사

※ 문의 : ☎ 02)732-1206

◆ 법사 5대 헌장 ◆

1. 우리 법사들은 이 시대에 맞는 대승불교 운동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현한다.
2.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폭 넓은 포교를 위해 법사들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함을 자각한다.
3. 우리 법사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바르게 전달키 위해 올바른 지도자 상을 확립한다.
4.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한국불교의 개혁운동을 통하여 불교 교단의 발전을 이룩한다.
5. 우리 법사들은 국민이 필요한 불교, 사회가 요구되는 불교를 만들어 간다.

한국불교 전국 법사 연합회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 譯



명학(命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 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筆者의 辯'에서

494쪽
값 20,000원

통신판매
- 조흥은행 - 436-04-0546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축 협 - 047-11-12095-316
예금주 · 서 찬 배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 (3층) 전화 (02) 387-8429 전송 (02) 357-7493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서울: 지장정사 02)651-3880 · 부산: 보운사 051)523-5262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불교학 사이트 등장

김영재씨 '붓다랜드' 개설
논문-교과목등 열람 가능

불교학과 교수 홈페이지 접속…불교문화 · 종단정보도 수록

국내 불교논문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의 교과내용 및 교수 홈페이지 등이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 처음으로 개설돼 한국 불교학 발전 및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 김영재씨(불교학과 박사과정)의 노력으로 최근 문을 연 '붓다랜드 Buddha Land(http://www.buddhaland.co.kr)'는 불교학은 물론 불교문화 · 불교학 · 불교예술 · 종단 관련 정보를 서비스한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사이트는 불교학 사이트.

불교연구소 및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 불교학과의 학문적 성과를 링크하게 될 불교학 사이트에는 교수소단, 학과 수업내용, 석 · 박사과정의 초록발표, 학회지 등이 실린다. 김영재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교 사이트가 대부분 사찰문화 불교역사 소개에 편중, 불교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 불교학 관련 정보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문 지원과 함께 불교학 사이트에 개설돼 있는 교수 홈페이지는 묵정배 권기종 김인덕 해주스님 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4명.

교수 홈페이지에는 교수 개인의 약력을 학력과 전문경력, 학위논문과 발표 논문, 저서 및 역서 등으로 분류, 관련 학문분야의 성과물을 상세히 수록해 놓고 있다. 또 주요논문은 열람과 다운로드(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논문열람은 무엇보다 한국 불교학의 수위를 세계무대에 그대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학문적 발전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홈페이지 자료입력을 직접 하고 있는 해주스님은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특성을 생각할 때 전공 학문분야가 한국 불교학의 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수들이 앞으로 발표하게 될 논문이나 저서 등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학과 및 교과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상된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교과 가운데 △여래장사상 △화엄일승교의(華嚴一乘教義) △중관(中觀) △화엄문의요결(華嚴文義要決) △중국불교사 등이 개설돼 있는 교과사이트에는 강의내용은 물론 석 · 박사과정의 발표논문이 링크된다. 또 수업시간에 진행된 토론내용을 함께 수록하는 한편, 사이트를 통한 토론 참여도 가능하다. 이 방법을 통해 현재의 수업방식과 일방적 논문발표에 머물고 있는 세미나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붓다랜드'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일조한 이지중씨(불교학과 박사과정)는 "게시판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업내용과 논문, 과제물과 토론주제 등을 미리 공지, 다양한 사고와 토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문적 탐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승석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학문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논문이나 과제물이 인터넷상에 게재될 경우 한국 불교학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며 "사이트 운영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재씨는 'Buddha Land' 사이트를 국내 · 외 22여개의 인터넷 검색엔진에 등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불교학 사이트에 게재되는 강의와 교과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 그 수익금으로 교수 홈페이지 증설과 박사과정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붓다랜드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교과 사이트.

국제원효학회 홈페이지 개설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5월31일 개설했다.

한글과 함께 영문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국제원효학회 홈페이지는 △원효대사 △원효전서 △국제원효학회소개 △원효전서 영역 프로젝트 △원효연구자료 등이 링크돼 있다. '원효전서 영역 프로젝트'에는 2000년 2월까지 영역화 작업이 완료되는 21권의 원효전서와 각 번역자 목록을 수록했다. 또 '원효연구자료'에서는 〈금강삼매경론〉 등 원효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20여권의 저술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웹주소는 http://iaws-wonhyo.dongguk.ac.-kr. (02)260-3835

"열린종교만 살아남는다"

원광대 제1회 '열린정신' 포럼 열어

"글로벌화(globalization) 세계 속에서 종교도 '열린 종교'로 변화해야 한다."

원광대 열린정신연구회(회장 김성관)는 '글로벌 시대 문화다원주의 열린종교'를 주제로 5월28일 제1회 열린정신 포럼을 가졌다.

'글로벌化 세계와 열려진 정신'에서 신일철 교수(고려대 철학)는 "글로벌화의 세계에서 생존과 발전의 주체가 되려면 열려진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며 "열려진 정신은 윤리적 종교적 '깨우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국경없는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 무한경쟁 속에 사고방식과 행동을 혁신하는 것만이 살아남게 됐다"며 "열린정신은 글로벌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합리성의 정신으로, 곧 원통무애(圓通無涯)와 원융(圓融)의 불심(佛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천은 원광대 총장은 '문화 다원주의 속에서의 열린종교'에서 "21세기의 종교가 더욱 이상적인 사회공헌적 종교가 되기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건 지성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종교가 열린 종교의 성격을 가졌거나 그런 입장을 지향할 때 종교의 미래는 더욱 밝은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가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열린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 진리적인 길에 가까이 하는 것이지 결코 정통에의 모반이나 변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학술단신

'공과 연기' 2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2차 세미나를 13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기념관에서 갖는다.

이번 주제발표는 △불교적 추론의 모형(김옥선 · 이화여대 철학과 박사과정) △불교와 의식(소흥렬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이다.

12일 종교자유 심포지엄

국제종교자유협회(IRLA) 북아시아 태평양지회(사무총장 · 신묘다다오미)는 '종교자유 특별 심포지엄'을 12일 삼육대학에서 갖는다.

동국대 불교학부 김용표 교수의 '불교에서 본 종교의 자유'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 논문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344)910-1517

'불교와 종교' 여름강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여름불교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7월8일부터 8월28일까지며, △불교와 유교 △불교와 도교 △불교와 기독교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 6만원. (02)3411-6167

국제소식

부탄 탁트상사원 '불탔다'

2500m 절벽에 9세기 창건…복원 불가능

히말라야를 방문한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가보길 바라는 부탄의 탁트상(Taktsang) 사원이 4월21일 화재로 소실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화재는 순례자들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화재로 탁트상 사원은 복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탁트상 사원은 9세기경 국경 근처인 파로(Paro)와 씸푸(Thimphu) 사이의 높이 2천5백미터의 절벽 위에 세워졌다. 또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를 최초로 전래했다는 비호(飛虎 · 날개 달린 호랑이)의 도움으로 세워졌다는 창건신화로도 유명하다.

그동안 부탄정부는 사원 보호를 위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

화재 당시 탁트상 사원에는 18명의 스님들이 사원을 관리하며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화재후 자취를 감춰 경찰이 찾고 있다. 또 사원에 안치되어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도 행방이 묘연하다.

日 설치예술가 美 순회전 '열반' "감동물결"

설치예술가 마리꼬 모리(일본인 · 42)가 5월28일 L.A주립박물관(L.A County Museum)에서 마련한 전시회 '열반(Nirvana)'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열반' 전시회는 주로 디지탈 기술을 이용한 설치 미술품으로 이뤄졌다. 어두운 톤(tone)이 흐르는 전시관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3차원 디지탈 영상과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전시관 내벽을 세우고 익살스런 동승(조형물)이 전시된 작품들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모리는 "세간 속에서 개개인의 존재들이 소멸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반복해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이 구현된 정토의 세계를 구상화했다"며 전시회를 설명했다.

L.A주립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이달중순까지 시애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해안 도시에서 순회 전시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 불교회

美 활동 불광산신도 공동체 대만 불경자료 손쉽게 검색

서구 사회에서 불교계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불교회(Buddhist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이하 BAUS)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만 불광사 신도들의 불교공동체이다.

이 단체는 연합체(Association)로서의 성격이 짙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불교 종파에 대해 개방적이며 미국에 있는 불교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고, 각 단체간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고 있다.

△BAUS 사이트(http://www.baus.org/)는 '교리와 수행의 생활화'와 '대만 불교경전 발간'이라는 두 가지의 특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리와 수행의 생활화'는 미국불자들에게 활용될만한 좋은 불교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BAUS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 · 대만 등에서 출간된 불교교육 관련 교재들의 목록집과 불교 교수법 관련 목록집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대만 불교경전 해제본 발간'은 대만에 있는 각종 불교경전의 최신 해제본을 만들어, 미국불자들이 대만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작업은 △국립대만대학 불학연구센터(Th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이하 CBSNTU · http://ccbs.ntu.edu.tw/)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불학연구센터는 불교철학 · 역사 · 문학 · 예술 등을 연구하고 있며, 연구 자료는 ON-LINE상에서 중국어와 영어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불교회 사이트에서는 이중 불교경전 해제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능도 마련해 놓고 있어 미국불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대만불경 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뉴스레터, 인터넷 도서관, 팔만사천개의 문 △컴퓨터에서 중국어를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는 97년도 7 · 9 · 11월호 98년도 1 · 3월호 등이 각기 제공된다. 이중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에서 개원한 대만계 사찰 청연(Chuang Yen) 사원에서 개최된 '98 종교를 초월한 세계평화 대 기도'(98년3월호)에 대한 소식은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해 부산한 美 종교계를 떠올리게 한다.

또 '인터넷 도서관'에서는 〈다섯 개의 눈(Five Eyes)〉(1979년 刊)을 전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처님 발자국' '불법-씨 뿌리기' 등의 글이 업로딩(올리기)되어 있다. 〈다섯 개의 눈〉은 중국에서 널리 읽혀지는 경전인 〈금강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논서. 이 책에서 '다섯 개의 눈'은 육체의 눈, 천래(天來)의 눈, 지혜의 눈, 불법의 눈, 부처의 눈을 지칭하고 있다. '팔만 사천개의 눈'에서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검색 가능한 정보를 링크(연결) 서비스 하고 있다.

현재 BAUS는 미국 내에서 연중 총회와 국제 대회로 미국불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대만에서 건너온 불교신도 상호간의 우의도 증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증욱 기자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거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쫑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6쪽/값 4000원
여시아문 펴냄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여시아문은 '붙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3

마조의 딱지돈 ④



그림 · 이준석

"본래 면목은 삶의 가운데 있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나태해지기 쉬운 명상 경계

육조 혜능은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당하에 파지(把持)하라"(32~38강)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교(敎)에 대해 선(禪)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밖으로 치닫는 빛을 꺾어 자신의 내부를 비추는(廻光返照) 혁신적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그러나 방법이지 구경(究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같은 방법적 전회를 통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남악을 이은 마조는 본질(自性)의 파지 이후에 펼쳐지는 실존의 운용을 말하기 시작한다.

본래면목의 실제(實際)는 고요한 명상에 침잠하거나 신기한 기벽에 빠져드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삶의 공간 그 한가운데 있다! 마조의 선풍은 바로 그 〈일상성〉으로 집약된다.

그 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자. 우선 25강에서 살핀 남전보원(南泉普願)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마조 문하의 세 기린아 가운데 하나이다. 남전은 제자 조주(趙州)가 선의 비밀을 묻자 서슴없이 평상심(平常心)이라고 일러준다. 조주 역시 이 종풍을 이어 학인들에게 "차나 한잔 하지(喫茶去)" 혹은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씻어야지(10강)"라고 권하곤 했다.

일상의 중시는 재가(在家)의 제자인 방거사(龐居士 ?~808)에게서 전형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선종사상 기이한 인물이다. 본래 선비였는데 세상사에 환멸을 느끼고 석두를 찾아 영원의 가르침을 구했다.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석두는 "쉿"하고 손가락을 입에 댔다. 절대의 얼굴은 언설로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이었겠다. 그 말에 거사의 마음 한구석이 열렸다. (그후 석두는 그를 마조에게 보냈다. 방거사의 예의 그 질문에 마조는 "네가 저 강물을 한 숨에 들이킨다면 말해주마"라고 대답했다. 이에 그의 마음이 환히 밝아졌다.) 하루는 석두가 물었다. "요즘 지내기가 어떤가."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까, 어디 말해보게." 이에 방거사는 이렇게 읊었다.

내 일상은 그저 그런 일뿐
상황에 몸을 맡긴다네
선택도 거부도 않고
법석도 부딪침도 없이.
무슨 다른 영화가 있으리
먼지 끊긴 이 산과 언덕밖에
내 영혼의 수련과 신비한 마술력(神通幷妙用)
그것은 물을 긷고 섶을 져 나르는 것(運水及搬柴)

'긷고 섶을 져 나르는' 그 일상 속에 도(道)가 숨쉬고 있다. 다른 말로, 불성의 현현은 그 작용 속에 있다(作用是性)! 이 테제가 마조 이후의 선의 표어가 되다시피 했다. 일상의 강조는 마조 문하의 또 다른 기린인 백장(百丈懷海 720~834)에게서 실천적으로 드러난다. 백장은 강의 첫머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6강). 좌중에 섞여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어느날 믿기지 않는 고백을 했다. 자신은 옛적 이 절의 주지였는데, 말을 한번 잘못 한 죄로 5백세에 걸쳐 여우탈을 쓰고 있으니, 제발 그 업보를 벗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백장은 "위대한 수행자는 인과를 벗어나는 것(不落因果)이 아니라 인과 속에서 그것을 초월한다(不昧因果)"라고 하여 그를 구원해 주었다. 깨달은 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권능과 신통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과,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얻었을 뿐이다. 장부(丈夫)의 일대사(一大事) 이후에도 여전히 "눈은 가로로 찢어져 있고, 코는 세로로 뻗어 있다(眼橫鼻直)."

백장은 마조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확장된 선의 공동체를 규율하고 조직할 필요를 느꼈다. 그가 마련한 청규(淸規)는 수행자들 각각의 소임과 나날의 일과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것은 탁발이나 걸식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자들을 직접 경작과 노동에 투입한 일이다. 몸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은 명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선의 목표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이후 선의 지침이 되었다. 백장은 아흔 너머의 노구에도 일터로 나섰다. 제자들이 그만 하시라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자, 고심 끝에 연장을 감추어 버렸다. 웬걸, 백장은 자신의 규율에 따라 곡기를 끊었고, 놀란 제자들이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 규율이 없었다면 선은 곧 이은 그 혹독한 불교탄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9세기초에 당(唐)의 무종(武宗)은 불교의 과다한 소유와 방만한 재정을 혁파하겠다는 의도에서 절을 부수고 승려들을 환속시켰다. 그 대규모의 박해가 30년간 계속되면서 불교는 거의 초토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선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 살아남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이 불상이나 경전과 같은 외적 대상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생활의 필요 또한 자신들의 수고와 울력에 의해 자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계 지킴은 내면의 '알아차림'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3



정업 ③

아잔차 스님은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 '열반' '깨달음' '아비달마(論藏)' 등과 같은 어려운 교리를 거론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펴본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과 법과 스스로 지은 업(業)이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그만 거리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없다."

스님은 계지킴의 미덕은 겉으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내면의 알아차림과 자제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덕은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벌레를 죽여 불살생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아마 그 마음에는 "나는 벌레가 징그러워"와 같은 혐오감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불살생은 차별심(差別心)에서 벗어나 유정 무정물이 하나의 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지켜진다. 마음의 행동거지는 냉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혐오감과 공포심에 끌려다니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행동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유정물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살생계를 지킨 것은 아니다.

"땅속의 벌레 미생물까지 인간의 삶과 밀접" 나와 유정 · 무정관계 인정

이 계율은 '기르기(cultivate)'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으며 보다 실재적인 방편이다. '기르기'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말처럼 '나'와 유정 무정물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경외감을 품는 것에서 출발한다. 남극대륙 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크릴 새우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유정물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수생물은 이 새우를 먹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수생물들을 섭취하며 살아간다. 벌도 유용한 유정물이다. 벌은 식물의 수정과 번식을 돕는다. 만약 벌이 없다면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곡식과 과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렁이와 같은 땅 속에 사는 벌레는 토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

3년전 미국에서 '마음의 병'이라는 주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회의에는 종교인, 정신병리학자, 심리학자 40여명이 참여해, 2박3일간 진행됐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학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야외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이로퀴이계(인디언의 한 종족) 정신병리학자가 식사 전 감사기도를 제안했다. 학자들이 모여있는 뜨락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자는 것이었다. 인디언 학자는 "깨끗한 공기와 비를 주신 바람과 구름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발 밑(땅 속)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땅 속의 수많은 벌레와 미생물들이 얼마나 인간의 삶과 밀접합니까"라고 끝을 맺었다.

나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부처님의 '마음챙김(定念)'과 흡사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이지 않는 것과 훔치지 않는 것, 이것은 내면의 경외감에서 가능해진다. 깨달음이 독설적인 장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경을 차단할 셈으로 매 순간 만트라를 외운다면 되려 차(車)에 치일지도 모른다. 오로지 마음을 챙기라. 정신을 팔지 말라.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누군가 말하거든 혼자 말하라. "무엇이 아름다운가"라고. 어떤 것이 맛있다고 하거든 "아니, 아무 맛도 없는데"하라. 세상의 집착이나 상대적인 저울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방편은 그저 모두 것이 지나갈 수 있게 마음을 놓아둘 뿐이다.

어떤 사람들이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게 되는게 아닐까?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서다. 우리가 관용과 경외의 미덕을 키울 때,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억누를 수 있다. 이러한 덕목이 우리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번역=오증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2

불교와 수학

57

창발

김 용 운

수소 · 산소분자 작용 물 발생하듯 전혀 차원다른 계층적 세계 구축 중생들이 불심내면 온누리 자비 가득

최근의 카오스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에 창발(創發 · emergent)이라는 것이 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학술적인 술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선 몇개의 보기로서 접근해 가기로 한다.

가령 H2O라는 분자가 수조억개가 모아지면 물의 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창발적이다. 또한 수증기나, 광선 바람 등이 상호 작용을 하면 창발적으로 폭풍우가 나타난다. 창발적 현상의 특성은 현상이 '1+1=2'라는 단순한 산수적 결과가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개미를 한마리씩 집어서 일정한 자리에 옮겨보면 처음에는 시들시들하면서 의미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개미의 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개미 특유의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개미사회가 창발된 것이다.

사회적 대상이나 자연적 현상에는 마치 고층 건물과도 같이 여러개의 양상이 몇겹으로 겹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전개된다. 위의 보기를 든다면 개미집단이 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새가 나타나고, ……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형성된다.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개의 수많은 요소들이 합해질 때 연기의 얽힘 속에서 단순한 총합 이상의 세계가 구축됨을 뜻한다. 이것을 '계층적세계'라고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창발은 그보다 높은 차원을 유발해 가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여러 경전은 이 계층적 세계관을 많이 등장시킨다. 가령 〈관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연꽃 마음을 내/그 연꽃 잎잎으로/일백 가지 좋은 빛을 내어 보아라/
팔만사천이라 脈이/하늘의 그림같이 거기 있으니/맥에 있는 팔만사천의 빛이/
모두 다 눈을 떠 두루 보게 하여라 / 아무리 작은 꽃잎사귀도 /
가로 세로 펼쳐져 일만리는 가느니……

연꽃에 연꽃잎, 또 잎 하나에 일백가지 좋은 빛이 있고, 그 빛 속에는 팔만사천의 맥이 흐른다. 연꽃 → 꽃잎 → 꽃잎의 빛 → 그 속의 맥 … 이 세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계층이 여러개의 양상으로 겹겹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층의 차원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창발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카오스이론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프리고진(I. Prigogine)은 개미집단의 관찰을 통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의 개미집단에는 평균 이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와 게으른 개미가 있다. 이들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개미를 (가), (나) 두 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부지런한 개미의 집단 (가)는 더욱 부지런해지고, 게으른 개미의 집단 (나)는 더욱 게을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아니었다. (가), (나)의 개미집단은 각기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개미의 비율이 처음의 개미집단과 똑같이 나타났다. 각 집단마다의 생명의지가 창발되고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개미의 적당한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을 보기로 든다면 백수십억개의 신경세포의 조직망에서 '마음'이 창발적으로 형성된다. 중생이 모이면 그 낱낱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신경세포처럼 사회의 마음을 창발한다. 개인의 건전한 신경세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또한 개인과 중생의 얽힘으로 사회의 마음이 창발한다. 이 신비로움이 인류의 미래와 과거에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아무리 작은 것과 큰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각 계층의 요소 모두가 연기의 고리로 묶어 전체적인 생명의지를 발휘한다. 인간은 고립적 존재가 아니고 나의 존재와 현존하는 전인류와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모두와 미래에 존재할 인류와 생명의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보살이 보리의 마음을 발할 때 은누리에 자비가 가득해진다'는 상황은 낱낱의 중생이 불심을 갖게될 때를 의미한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마음이 발현하는 불심으로 창발된 생명의 의지이다. 깨우침은 곧 선을 향한 의지이자 자비이다. 곳곳에 있는 낱낱의 중생은 스스로가 발한 선의지로 자신을 비추는 불심을 받아 들인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 ·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부산 삼광사 매월 1일 법회날

알뜰장터 열린다

"아지매, 반찬 좀 사소."
"이 장아찌 얼마라예?"
"요거 촌에서 농사지어 직접 담은 거라예. 5천원에 한 통 들여 가소."

법회 가는 길에 장이 선다. 그래서 법회도 보고 장도 보는 즐거움이 있다.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천태종 총무원 규정부장) 앞길은 정기법회가 열리는 매월 1일마다 장터가 된다. 절에 이르는 2백여미터의 길에는 아침 일찍부터 장사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80여 난전이 순식간에 들어서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 값을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 해진다. 찹쌀떡, 김치, 장아찌, 식혜 등 먹거리에서 당귀, 영지 같은 약재와 염주, 법복, 개량한복, 신발, 가방, 태극기, 악세사리 등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면 그야말로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풍물의 거리다. 울릉도 호박엿을 파는 입담 좋은 아저씨의 능숙한 가위질과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떡판을 펼쳐 놓은 아주머니의 맛배기 공세기 시장 분위기를 더욱 흥성하게 만들어 낸다.

법회날마다 하루 2만명이 넘는 불자들이 오가는 삼광사 앞길에 장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삼광사 앞길의 장터가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의 삼광사가 개원하기전, 그러니까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법회날 절 앞에서는 장이 서기 시작했다. 염주나 법복같은 불교용품들을 파는 난전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장터가 90년 삼광사가 개원된 후부터 본격적인 풍물거리로 발전된 것이다.

"처음부터 염주장사로 나선것이 아니야. 절에 가는 것이 좋아 절에 다니다보니 절 앞길에서 뭔가를 팔아 용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지. 벌써 15년이나 됐으니 용돈 벌려고 장사한다는 말은 거짓말 같이 들리게 됐어."

큼직한 가방에 각종 염주와 향통 법문테이프를 담아와 돗자리위에 전을 펼치는 김수환(66세) 할아버지는 삼광사 앞길 장터의 1세대인 셈이다. 삼광사 다니는 신도 가운데 할아버지께 염주 산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아따, 기자님이 남의 장사 내력까지 물어서 뭣 할라고…"라며 대답을 피했다. 염주 파는 것이 장터에 나오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이 들끓는 장터, 그것도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오가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길에서 향나무 염주를 놓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말을 조용히 들려 주었다.

'법복보살님'으로 통하는 황귀덕(61세) 할머니도 삼광사 장터의 원조임을 자부한다. "나 절 앞에서 옷 판 세월이 20년이여. 동래 광명사 시절에는 나 말고는 옷파는 이들이 없어 재미도 좀 봤지. 요새는 웬만한 신심 아니면 법복을 안 입는가봐. 힘들어…." IMF의 파도는 할머니도 비켜가지 않는 것인가. 한벌 팔면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라며 푸짐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법회를 마치고 내려오다 반찬거리를 샀다는 김기화(42세)보살은 "절 앞에서 장을 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값도 다른 시장보다 싸고 물건도 좋아요. 법회날은 일주일치 반찬을 여기서 삽니다"라며 장터를 자랑했다. 삼광사 앞 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시중보다 값도 싸고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물건을 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알뜰장터로 제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터는 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문화현장이다. 상인이 있고 사고 파는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음으로 형성된 장터이면서 신도들에게는 알뜰살림의 지혜를 배우는 도량이기도 한 것이다.

삼광사 신도들은 절 앞길의 장터를 사랑한다. 장보기가 편리해서뿐아니라 그곳에서 오가며 만나는 신도들과 나누는 정담까지 사람사는 냄새를 그윽히 풍겨주기 때문이다.

매달 양력 초하루법회에 맞춰 섰다가 파장하는 삼광사 앞길의 장터는 이 시대 불교계의 새로운 풍속도이다. 그것은 절의 문화·생활적인 역할이다. 그것은 절이라는 공간의 역할이다. 절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발원도 하고, 기도하는 절이라는 공간은 생활속에 파고들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은행도 있고 상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는 절. 그래서 절과 생활 영역이 다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진솔한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질펀한 삶의 현장을 떠나 어디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다.

삼광사 앞길의 흥성한 장터는 이런 상상의 꼬리를 남긴채 지는 해를 따라 파장을 서두르고 있다.

글=천미희 사진=고영배 기자

절앞 2백여m에 80여 난전 '성시'
불교·생활용품-먹거리등 없는게 없다
부처님법 배우러 오가는 2만여 불자
법회도 보고 값싸고 좋은물건도 사고
20여년전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장 서



◇매달 1일 삼광사 법회때마다 절 앞 200m의 길은 80여 난전이 펼쳐져 시끌벅적한 장터가 된다.



◇삼광사 앞길에 서는 옷·악재·불교용품·먹거리 등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뷰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풋풋한 정 주고받는 삶의 현장"



"누가 주도해서 장이 선 것은 아닙니다. 동래 광명사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난전이 삼광사로 옮긴후 본격적인 장터를 이룬 것입니다. 상인들끼리 질서도 잘 지키고 나쁜 물건을 속여 팔지도 않지요. 절 앞에서 장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절 앞 장터는 삼광사의 멋이 됐습니다."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은 절 앞의 장터가 이제 삼광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의 문화와 정신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장터가 형성되는 것도 불자들의 생활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우리절 신도들은 장터를 통해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풋풋한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을 절 앞길 장터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신도들의 얼굴을 익혀가며 단골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시장에 비해 쉽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장터는 절과 신도와 상인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독특한 삶의 현장인 셈입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터인만큼 절과 행정당국 그리고 상인들이 합심해 서울의 인사동에 버금가는 풍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터를 가꿔가겠다며 "불심 가득한 이 장터가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운식



주지 효성스님

용두골 산자락에 안개 걷히고
구만산 바라보며 피어난 연화장에
그 위풍 당당히도 우뚝 솟은 자명사
미소한 연화미소 송그머니 나투시고
안온히도 누워 계신 백옥 와불님!

2천5백년전부터 대국 승왕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될 적멸보궁이 강원도 홍천 구만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적멸보궁 자명사(慈明寺)는 4천여평의 대지에 1차로,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설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오는 7월5일 개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개원법회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국내 최대 규모(길이 3m·무게 4t)의 백옥 와불(臥佛) 이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啟성인대사(聖印·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자광사에 봉안되는 것입니다.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에 전국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진신사리 및 백옥 와불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혜법(慧法)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구만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효성 합장



◀무설전에 모신 국내 최대 백옥 와불을 후불탱화는 10대 제자상으로 조성됐다.



▼홍천 구만산에 조성된 적멸보궁 자명사 전경

· 대 법 회 안 내 ·

■종 명 :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 華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종정 冶鶴대종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上常노사
(대만성 자명상공高校 간사장)

■일 시 :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0366)434-1571/435-1571

♣교 통 편 : 경춘선 강촌역서 팔봉산방향으로 15분거리.
(강촌역서 자명사까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 서울지역 출발/용마산 용암사 앞에서 정시당일 오전 7시 출발합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면 걸음까지 옵니다.)

용암사 ☎(02)435-1571

※ 자명사는 개원을 맞이 만등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만등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사문품(沙門品) ④

棄慢無餘憍 기만무여교
蓮花水生淨 연화수생정
學能捨此彼 학능사차피
知是勝於故 지시승어고

잘난체함 버려 교만의 찌꺼기 없으면
연꽃이 흙탕물에서 나도 깨끗한 것 같으리니
배움이 능히 이 경계 저 경계 버리면
이것이 무엇보다 수승한 줄 알리라

割愛無繫慕 할애무연모
不受如蓮花 불수여연화
比丘渡河流 비구도하류
勝欲明於故 승욕명어고

애착을 베어 연모하는 정 없으면
저 연꽃이 그러하듯 더러움 받지 않으리니
비구는 세속의 강물을 건너서
무엇보다 밝아지리라

截流自恃 절류자시
逝心却欲 서심각욕
息心非馴 식심비척
懶怠無戒 만타무계
捨貪思道 사탐사도
乃應息心 내응식심

마음 쉼은 베어내는게 아니다
마음에 속임이 있으면 계가 없는 것이니
탐심을 버리고 도를 생각해
마음 쉰 경지에 응하도록 하라

息心非馴 식심비척
放逸無信 방일무신
能滅衆苦 능멸중고
爲上沙門 위상사문

마음 쉼은 베어내는게 아니다
방일은 믿음 없는 것이니
능히 온갖 괴로움 없앨 수 있어야
훌륭한 사문이라 한다

龍眼

"애착의 정 교만의 찌꺼기 없으면 연꽃이 흙탕물서 깨끗한 것 같으리"

仁不割欲 인불할욕
一意縱走 일의유주

애착의 흐름을 끊었노라 스스로 믿고
욕심 사라지고 물리쳤노라 해도
욕심을 다 베어버리지 못하면
한 생각이 오히려 질주하리라

爲之爲之 위지위지
必強自制 필강자제
捨家而解 사가이해
意猶復染 의유부염

하겠노라 하겠노라
반드시 힘써 스스로를 자제하라
집을 버렸어도 게으르면
생각은 다시금 물들게 되리라

行解竣者 행해완자
勞意弗除 노의불제
非淨梵行 비정범행
焉致大寶 언치대보

수행이 게으르고 완만한 이
생각만 수고롭고 버리지 못하니
깨끗한 행이 아니고서야
어찌 큰 보배를 손에 넣으랴

沙門何行 사문하행
如意不禁 여의불금
步步著粘 보보착점
但隨思走 단수사주

사문이여 어디를 가든
그 뜻을 걷잡지 못하면
걸음 걸음마다 그것이 달라 붙어
다만 그 생각따라 달리게 된다

袈裟彼肩 가사피견
爲惡不損 위악불손
惡惡行者 악악행자
斯墮惡道 사타악도

가사를 어깨에 걸치고도
나쁜 짓을 줄여 나가지 못하면
그는 온갖 악을 행하는 자로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고 말리라

不調難誡 불조난계
如風枯樹 여풍고수
作自爲身 작자위신
曷不精進 갈불정진

길들이지 않으면 경계하기 어렵다
마치 바람이 나무를 시들게 하듯이
무얼 하든 스스로 제몸 위한 것
어찌 정진하지 않으랴

息心非馴 식심비척
懶怠無戒 만타무계
捨貪思道 사탐사도
乃應息心 내응식심

마음 쉼은 베어내는게 아니다
마음에 속임이 있으면 계가 없는 것이니
탐심을 버리고 도를 생각해
마음 쉰 경지에 응하도록 하라

息心非馴 식심비척
放逸無信 방일무신
能滅衆苦 능멸중고
爲上沙門 위상사문

마음 쉼은 베어내는게 아니다
방일은 믿음 없는 것이니
능히 온갖 괴로움 없앨 수 있어야
훌륭한 사문이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수행은 결과 뿐아니라

석천스님 〈법성사 회주〉



약력
- 1914년 강원도 삼척 生
- 1935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김태흡화상을 은사로 득도
- 1948년 충남 홍성 용화사 주지
- 1962년 등촌동 법성사 주지
- 1977년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부의장
- 1986년 흥익인간학회 이사장
- 1987년 해동불교 전문대학 학장(現)
- 現 서울 등촌동 법성사에 주석

2백여년전 벽암대선사가 초암을 짓고 수도정진했던 봉제산 법성사를 중창불사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온지도 40년이 가까와 옵니다.

나의 집안은 한 평생 유학을 숭상하며 사시던 아버님의 영향으로 엄격한 유교식 집안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손이 귀했는지 어머님의 나이가 38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 온 집안이 노심초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절에서 백일 기도를 해보라는 동네 사람들의 권유에 어머니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늦둥이가 바로 나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태어난 나는 성장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내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동기는 유난히 그림을 좋아했던 내가 가끔씩 서양에서 온 그림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당시로선 교회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불교에 귀의하고 출가까지 하게 만든 것도 역시 그림이었지요.

야외로 나가 자연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절경으로 유명한 강원도 천은사를 찾아 갔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음미하며 계곡에서 한참 붓을 놀리고 있는데 한 행자승이 내게로 다가와 내가 그리는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사찰은 있는데 실제의 사찰이 없군요. 진짜 사찰을 그려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뚫어져라 보며 "진짜 사찰을 그리고 싶으시면 절로 올라와 주지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던지며 산을 올라가더군요.

나는 한동안 붓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엔가 머리를 얻어 맞은 듯 멍한 기분이었지요. 순간적으로 그동안 내가 아름답다고 그려왔던 것들이 다 본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겉모습의 화려함에만 이끌려 그린 그림이 다가 아니구나 하고 그동안 그림 잘 그린다고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뉘우침도 함께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길로 곧장 주지 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권유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자승의 가르침이 이 정도인데 큰스님들은 얼마나 더 큰 깨우침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후일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정진과 갈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출가를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1년 뒤 21세때 경허, 만공 선사 등 수많은 선사들이 배출된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태흡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본격적인 수행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은사스님께서 조주(趙州: 778~897)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조주스님에게 어느날 한 수좌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 하고 말이야. 자네는 조주 선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은가?"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법은 차별적인 삼라만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여, 법성, 실상을 가리키는 말이지. 선문에서는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참선하면서 찾아내야 할 과제다. '하나'는 무엇이며, '주인공'은 또 무엇인가, 만법이 돌아간다는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가? 조주선사와 수좌의 문답인 '만법귀일 일귀하처'는 그때부터 선승들이 헤쳐 나가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네." 이 말이 끝나자 스님은 웃으시며 말을 계속하셨지요.

"자 그럼 다시 조주 선사의 얘기로 돌아가 보세. 수좌의 질문에 대한 조주선사의 답이 또한 의문을 더하게 만들지 않나? 그 수좌의 질문에 조주선사는 '내가 청주(靑州: 중국의 지명)에 있을 때 웃한 벌을 지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었다네'라고 대답했네."

나는 종잡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로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화두로 삼고 참구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화두란 강한 의심에서 정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단(疑團)입니다. 의단으로 주어진 화두는 잘못된 인식의 습관으로 생긴 번뇌망집을 깨우치는 작용을 하면서도 진리의 요체를 담고 있으므로 미혹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화두는 미혹한 생각도 마음도 표현도 끊긴 자리에 묘하게 드러나는 진리의 묘유(妙有)를 상징하므로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리 그 자체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각성에서 화두는 풀리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면서나 일을 하면서나 생각을 오직 화두에만 집중시키는 일은 쉽지 않지요. 화두를 붙잡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화두에 한 생각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화두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선의 참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이에도 오관(五官)은 쉬지 않고 바깥 경계를 끌어들여 여지없이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둔 채 그것을 지켜보면 가지 않는 곳이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화두를 떠올리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참선에서 가

불자는 당당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당당함은 내 주체를 잃지 않음이고
겸손은 타인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

성하출판 TEL:273-4451-2 FAX: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의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팀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선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爲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

큰스님 수행한담

과정도 기쁨이어야죠"



◇1991년 수송동에 있는 이병호 국제변호사 사무실에 휘호를 기증했다. 인류의 총화합을 통한 성공을 기원한다는 뜻인 '화대필승.' 왼쪽에서 세번째가 석천스님.

"화두는 미혹한 생각도 마음도 표현도 끊긴 자리에 드러나는 진리의 妙有 의심에서 오는 정신적 변화입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끝 아닌 자유로의 출발
"아상이 괴로움 원인…모든걸 놓으세요"

장 중요한 것은 망상을 하지 않는 것(莫妄想)과 놓아 버리는 것(放下着)이라고 조주선사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 잡아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일이 힘든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정진 수행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항상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거나 세상살이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 과연 어디가 아프고 괴로운 것일까요? 마음, 곧 자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위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수행을 닦아 공덕이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일이 다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수행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한 수행이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은 단지 한 과정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깨달은 이후의 삶이 더 주체적이되 행복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은 수행의 결과, 즉 끝이 아니라 인생을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출발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인

수행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도달한 그 결과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수행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삶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삶을 뜨개질 원리에 비유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옷이나 수예품의 완성품만 가지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겠지만 만드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한 올 한 올 수놓아 가는 작은 과정들이 쌓여 하나의 완성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 바늘이라도 잘못 뀐다면 계속 엇나가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므로 매일 매일의 삶에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 행

지 출가해서도 그림과 서예 등을 포교와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수유리 화계사 옆에 위치한 백승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때지요. 하루는 동국대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너댓명의 대학생들이 찾아와 "스님의 그림과 글씨를 얻으러 왔습니다"하고는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하니 내 작품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외부에 내 작품을 공개한 적이 없어 뜻밖의 제의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재능이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포교요 수행의 공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더군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上求菩提)다'

과정에서든 내가 남보다 잘나고 훌륭하니까 베푼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불가에서 누누히 강조하는 하심(下心)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에 아상을 갖게 되고 그 아상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기는 커녕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마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보답이 돌아오거나 적어도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알아 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相)이 있기에 보상 심리가 일어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

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은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식이든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종속에서 주체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공덕인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깨달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에서 헤매일 때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려 발심했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일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어진 생활에 쉽게 안주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마음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한 번 얻어진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개인관계에서든 보시행을 하는

을 때 원망이 일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베풀고 난 뒤에 보상을 기대하든지 안 하든지 상대방은 나름대로 느끼고 보상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연중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풀 경우 그 대가가 내 기대에 충족되면 만족스러운 반면,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기대하는 마음없이 베풀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상이 오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기에 기쁠 것이고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괴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어떠한 행위도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공덕입니다.

나는 35년간 교도소를 찾아 다니며 재소자 포교에 힘써 왔습니다. 화두를 갖고 참선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재소자들과 대화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교화하러 왔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결코 대중위에 서려고 하지 말 것을 내 자신과 약속합니다.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겸손함을 갖되 당당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너희는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그리고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비굴하거나 교만해서도 안되고 당당하되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당당하라는 것은 내 주체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타인의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내 주체를 지키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때 온 법계는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나와 경전 56

입능가경



원 공
연꽃피는 절 주지

마음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행동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고 한 점 미혹도 없는 경지에 이르기란 수십년을 외길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큰 법을 구하기 위한 발심으로 오직 부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세속의 연을 벗어나 하늘을 지붕삼고 땅을 이불삼는 자유인이 바로 출가사문이고 출가자의 본분사란 바로 수행정진이다.

〈입능가경(入楞伽經)〉을 만난 것도 수행의 한 길, 초기선종사를 공부하면서였다. 길을 가다 그저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접하게 됐지만 그 이후 〈입능가경〉은 내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경전이 돼 버렸다. 누가 읽을만한 경전을 소개해 달라면 나는 주저없이 〈입능가경〉을 권한다. 이 경전은 특히 마음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능가경〉은 〈불입피산(不入彼山)

이 청중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배역까지도 담당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입능가경〉에는 여러 사상이 담겨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5법과 2무아의 사상이 백미다. 5법은 명(名)·상(相)·분별·정지(正智)·여여를 말하는 것으로, 미계(迷界)의 주관·객관과 오계(悟界)의 주관·객관을 들고 미계의 주객을 타파할 때 거기에 오계가 열려 가는 경과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 2무아란 인무아(人無我)·법무아(法無我)로서 5온이 화합해서 된 심신에 상일주재의 실체가 없고 만유제법은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긴 일시적인 가짜 존재이므로 실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입능가경〉은 한마디로 '유심(唯心)'의 경지를 깨우치는 경전이다. 외적인 여러가지 존재에 집착하여 그릇

깨달음 열리는 과정 5단계로 풀이
삼계유심 경지 깨우치는 수행 강조

소설지경〉을 700년 실차란타가 10권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대승입능가경〉이라고도 불린다. 〈불입피산소설지경〉은 4권본 〈능가경〉과 7권본 〈대승입능가경〉까지 합쳐 3종류로 번역됐다. 443년 구나발타라에 의해 번역된 4권본 〈능가경〉은 〈능가아발타라보경〉이라고도 하는데, 〈능가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체불어심품' 등이 〈입능가경〉에는 들어있다. 7권본 〈입능가경〉은 '집일체법품' '무상품' 등 모두 10품으로 나뉘어 있으며 범본(梵本)과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경전이다. 10권본은 경전으로서의 완벽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청불품' '문답품' 등 모두 18품으로 구성돼 있다.

〈입능가경〉에는 〈능가경〉에는 없는 '다라니품'이 들어 있는데 〈능가경〉이 철학적 사색과 종교적 통찰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입능가경〉에는 주술적인 색채가 짙은 '다라니품'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널리 읽히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능가경〉에서는 세존과의 이야기 상대가 언제나 대혜보살일 뿐이지만, 〈입능가경〉에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제자들

된 분별에 따른 허망함을 경계하고 있다. 참다운 자기를 깨닫고 오직 수행에 몰두하기를 가르친다. 그래서 〈입능가경〉은 자연스럽게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을 계승해 설한다. '삼계에 속하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든지 '삼계에 속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는 가르침이 나온다.

요즘은 저마다 잘났다고 난리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만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줄 모르니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찰에 오는 신도들을 보면서, 저자거리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수행을 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실천덕목으로 생각하면서 〈입능가경〉을 들여다보자. 출가자에게도 일반 불자들에게도 이심전심으로 다가오는 참지혜가 경문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끔 산란한 마음이 들 때 〈입능가경〉을 펼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보약보다 낫다는 쑥!

도대체, 쑥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새롭게 밝혀진
쑥의 100가지 효능!

과연 어떤 것일까요?

□ 100가지 병을 고치는 의조 쑥!

쑥 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에 의하면 쑥에는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기질, 칼슘, 칡넝쿨이 풍부한 식물이다. 특히 비타민 A는 눈을 밝게 하고 피부를 탄력있게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해 주는 면역효과가 있다.

쑥 비타민 C도 많아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에도 쑥을 달여먹으면 좋다.

쑥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이 나빠 고생하시는 분께 좋으며 옛날부터 황달에는 쑥을 달여 먹었다.(최석영교수의 임상실험으로 쑥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

쑥 빈비에는 쑥떡을 해 먹으면 아주 좋으며 위장질환에는 쑥을 달여 먹으면 좋다.

쑥 정혈작용이 뛰어나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므로 고혈압, 저혈압 및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

쑥 면역기능 및 항암작용까지 있어 꾸준히 쑥뜸을 뜨고 쑥을 달여 먹으면 간염치료를 하지 않으며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 주므로, 항암능력이 길러진다. 이렇듯 쑥의 업청난 효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현대 한방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전화주시면 댁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 천호 인술한의원 기술제휴 한의학박사 한택현 (前명지한방병원장) -

쑥을 사랑하는 사람들
T) 015-7705-5457/016-341-4584 F) 02-565-3513
담당 정재환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 참선기초수행법,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금강경봉독법, 특별기도법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이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결삼배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않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 서있는 상태부터 숨을 내쉬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는 호흡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스승이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수행하라.

⊙ 염불 바로 하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염불을 통해 허를 완벽하게 이완시키면 중풍, 치매, 고혈압이 예방치유되며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된다.

⊙ 신비의 도인 건강법

피로회복(20분), 소화불량(3분), 불면증(즉시), 화병(1달), 무좀(3회), 변비(순간), 비만, 고혈압(100일)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상태서도 쉽게 치유된다.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롱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건강에의 신비! 옥

장川玉山家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玉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의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鎭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북오옥)

사람과 마을 문화 이어준 고갯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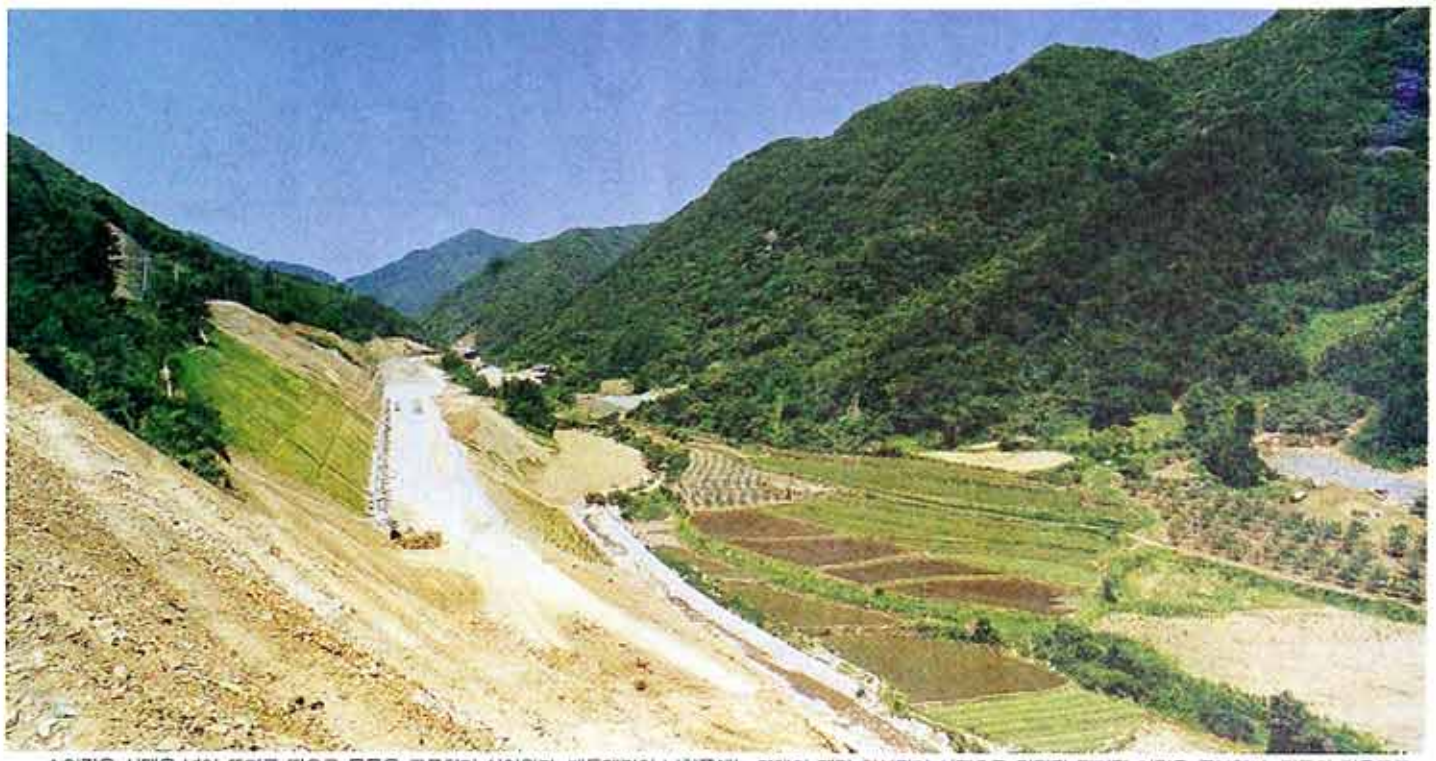
'98 사진영상회 개

계립령 · 조령 · 이화령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4←



높고 험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음은 서로의 왕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맥으로 막혀있다 하더라도 길은 열리고 문화는 서로 왕래하기 마련. 아무리 거대한 산이 땅을 가른다 하더라도 그 산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있는 법이다. 양쪽의 문화가 서로 왕래하기 쉬운 곳을 골라 또는 능선이 낮아져 넘어다니기 편한 곳을 택해 길을 낸다. 이 길이 산맥을 넘을 때 '재'라 한다. 재는 분수령일 때 영(嶺)이라 하며 작은 재를 치(峙)또는 현(峴)이라 한다. 남한쪽의 백두대간에는 모두 72개의 고갯길이 있다. 이중 47개는 포장도로이고 25개는 비포장길이다.

◇인간은 산맥을 넘어 또다른 땅으로 문물을 교류하며 살아왔다. 백두대간의 남한쪽에는 72개의 재가 형성되며 산맥으로 단절된 지리적 여건을 극복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이화령은 문명시대 백두대간의 새로운 모습이다. 지금은 이화령 터널공사가 한창이다.

계립령 1800년 역사…팔만대장경도 지나
조 령 영남의 관문…유생 왜사신등 애용
이화령 국도 3호선 뚫려 새 교통로 부각

속리산을 거쳐 소백산에 이른 대간의 혈맥은 문경권내에 대미산과 포암산을 비롯해 부봉, 조령산, 백화산, 희양산, 대야산 등 수많은 산자락을 빚어 산국을 이룬다. 그 산자락에 자리한 세 개의 고개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며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다. 그 중 하나는 고구려의 불교문화가 신라로 처음 전해지던 길목인 계립령(하늘재)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영남과 그 북쪽을 잇는 영남대로의 길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고간 조령이며, 또다른 하나는 신국도 3호선이 뚫려 새로운 교통로로 부각된 이화령이다.

■미륵과 관음의 땅 잇는 계립령

충북의 충주시 미륵리와 경북의 문경시 관음리를 잇는 계립령은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하기 위해 신라 아달라왕 3년(156)에 개척한 길이다.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한반도의 남북축을 잇는 주요 도로의 기능을 했던 계립령은 조선시대에 새재가 뚫리면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새재에서 불과 4㎞ 떨어진 계립령에는 하루종일 인기척도 없다. 1,8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길이라지만 길가엔 별다른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 사전지식 없이 이 길을 오르면 그저 한심한 시골산길일 뿐이다. 고개정상에조차 역사에 대한 아무런 안내문없이 '하늘재 520m'라는 표시판만이 달랑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허술해도 이 길을 감히없이 지나갈 순 없다. 남진하려던 고구려와 북진하려는 신라가 이 고개에서 첨예한 대결을 보였으며, 고려 태조 왕건도 후백제를 칠 때 이 길을 거쳐갔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감화도 선원사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이 해인사로 옮겨질 때도 이 길을 지났다고 한다.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남한강을 타고 월악산 입구까지 거슬러 올라와 이 고개를 넘고 문경을 지나 유곡(幽谷)에서 낙동강을 타고 해인사로 옮겨졌다고 한다.

경북 문경의 관음리일대에는 마애반가사유상, 석불입상, 석불좌상, 5층석탑 등이 흩어져 있다. 재 너머 미륵리쪽을 향해 서 있는 불상들은 신라인들의 염원이 형상화돼 조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북 충주시의 미륵리는 새로운 땅을 갈구하는 신라인의 희망의 땅, 곧 미륵의 세상인 용화세계인 것이다. 월악산과 주흘산 사이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인 미륵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절터가 남아있다. 사람들은 지명을 따 '미륵리사지' 또는 이곳에서 발견된 벽돌에 새겨진 글자에 따라 '미륵대원(彌勒大院)' 등으로 부른다. 87년 사적 317호로 지정된 미륵리사지는 70년대까지만 해도 관련 사학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선 곳이었다. 76년 수안보온천과 연계한 문화유적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던 중 지대석, 주춧돌, 건물지 등의 유구가 발견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륵리 마을을 상징하는 미륵리사지 미륵불입상(보물 96호).



◇관음리 약사여래입상(문화재자료 136호).

미륵리사지에서는 지붕은 불타 없어진 채 석굴암을 본따 만든 듯한 석굴 안쪽으로 마치 분을 바른 듯 얼굴만은 하얀 미륵부처님(보물 96호)의 신비스런 미소가 반긴다. 절터에서 만난 문화기행안내자 이교재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가 망한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던 길에 누이인 덕주공주는 월악산 덕주사를 창건하여 남향한 암벽에 마애불을 조성했고, 태자는 이곳에 석굴사원을 창건하고 불상은 북쪽의 덕주사 마애불을 바라보게 했다는 전설을 들려준다. 지역주민들은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있지만 불상의 조성양식은 고려초이다. 따라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북진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해 조성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남아있는 석굴에는 본존불로 모셨던 미륵불 외에 이 본존불을 장엄하기 위해 새긴 여래좌상, 이불병좌상, 삼불좌상, 반가상 및 사자상, 도깨비상 등이 석굴벽 등에 남아있다. 그리고 경내에는 5층석탑(보물95호), 3층석탑, 팔각석등, 방형석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돌거북 등이 남아 당시의 웅장함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관음리는 불교문화가 융성하던 신라~고려시대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갔고 길따라 사찰과 숙소 등이 몰려있던 문화의 요지였다. 지금은 문경쪽 절반을 말끔히 포장해 반쪽난 옛길로 전락했고, 불교문화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관음리일대의 불상과 석탑앞에는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어 아직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지역주민들의 불심을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때 머리가 절단된 채 밭 한가운데 쓰러져있던 석불입상을 마을주민들이 일으켜 세워 시멘트로 보수한 이후부터 농사가 잘됐다는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새들도 쉬어넘는 문경새재

계립령이 공로(公路)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열린 길이 바로 문경새재(조령)다. 그 옛날 나는 새도 쉬어 넘었다고 하는 새재는 지금도 걸어서 넘어야 한다. 10㎞가량의 비포장도로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웬만한 관광지라면 갈 때마다 차량공해로 시달리기 일쑤인데 경적소리에 수시로 길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반나절가량 절경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있는 새재의 기원은 이렇다. 왕건이 견훤의 군사를 무찌르기 위해 하늘재를 넘어 문경으로 갔다가 새재 남쪽 진입로에 있는 관갑천에 이르러 길이 막혔다.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계곡 사이로 달아나는 것을 좇다가 길을 냄만한 곳을 발견하고는 바위를 잘라 길을 냈다. 이로써 새재가 뚫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 때는 죽령이 중심로가 되고 계립령이 보조로가 됐으며 새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새재가 영남지방의 관문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다. 중앙집권을 꾀한 조선왕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X자형으로 9개 대로를 국도로 설치했으며 그중 제4로가 새재를 지났다. 그후 조선왕조 5백년동안 이 고개는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사람과 문물, 왜국사신 등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임진왜란때는 왜군들이 이 재를 순식간에 넘어 충주땅에서 신립장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불교유적 풍성한 새교통로 이화령

새재는 몹시 높고 험해 1925년 일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를 내면서 옛길이 돼 버렸고 이화령이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수안보에서 문경을 넘는 3번국도가 관통하는 이화령 주변에도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다. 3번국도가 지나는 원풍리 도로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 · 보물 97호)이 있다. 암벽을 뚫어 감실을 마련해 조각한 이불병좌상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법화경〉 견보탑품에 나오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조형화한 것이다.

백두대간의 산자락이 드리운 문경땅에는 연륜이 오래된 유서깊은 사찰도 많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만 해도 희양산 봉암사, 주흘산 혜국사, 사불산 대승사, 운달산 김룡사 등이 있다. 봉암사는 9세기말 신라의 지증대사가 절터를 둘러보고 '중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둑의 소굴이 될 곳'이라고 예견한 곳이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으로 한때 3천명의 스님들이 도를 닦았으며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청진의 끈을 놓추지 않는 청정수행도량이다. 산문이 굳게 닫혀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도 출입하기가 어렵다. 경내에는 참건주인 지증대사의 적조탑과 비, 정진대사의 원오탑과 비, 3층석탑 등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길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문화와 문화를 이어준다. 길도 인간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짐을 거듭한다. 하늘재에서 새재로, 새재에서 이화령으로 옮겨간 길의 역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새로운 터널길이 이화령아래로 뚫리고 있다.

글=임연태 · 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고려시대에 조성된 원풍리 이불병좌상은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조형화한 보기드문 마애불상이다.

■갈평리 5층석탑 제자리 찾아주자

취재진 관음리서 '지대석' 발견

문경읍 갈평 출장사무소에 있는 갈평리 5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185호). 1936년 일본인들에 의해 서울로 옮겨졌던 것을 지역불자들이 되찾아 현 위치에 안치했다. 1층기단 갑석의 모서리와 상륜부가 일부 파손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고려초기 석탑이다. 여러 자료에는 이 석탑의 지대석 이하가 지하에 매몰돼 있다고 적고 있으나 사실은 원래의 탑이 놓여있던 관음리에 남아있다.

마을주민들의 제보로 찾아간 곳은 관음1리 신경숙씨의 사과밭. 취재진이 신씨의 안내로 지대석이 놓여있다는 곳의 흙을 살짝 벗겨내니 2m 정도의 정방형 지대석이 나타났다. 좀더 깊게 파보니 두께는 25㎝가량 되며 그 아래에 다시 이중의 지대석이 땅을 딛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일대가 신라시대의 관음사가 있던 자리였던 만큼 석탑이 제자리를 찾아야 함은 물론 명칭도 '관음사지 5층석탑'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갈평리 5층석탑.

■7대째 망댕이가마 잇는 김정옥씨



"150년 선조 솜씨 끊을 수 없지요"

관음리 중점에는 눈에 띄는 가마가 하나있다. 망댕이 가마. 1백50년이나 된 가마다.

96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된 김정옥(57세)씨의 가문이 대를 이어 오는 망댕이 가마의 현장이다. 관음리 가마에서는 김정옥씨와 조카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김씨는 문경읍 진안리 새재와 이화령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새로 쌓은 망댕이 가마(영남요 0581-71-0907)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옥씨는 7대조인 김취정으로부터 김광욱-김영수-김낙집-김운희-김교수를 이어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조부(김운희, 일명 김문경)는 하루에 8백40여개의 막사기를 빚어 내는 초인적인 작업량으로 도공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비법으로 망댕이 가마를 박아 구워내는 그의 사기는 일품이었죠. 망댕이 가마는 길이 25m 가량의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는 진흙덩이를 뭉쳐 박은 6칸짜리 가마인데 지금은 관음리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조의 비전을 18세때부터 전수받은 김정옥씨는 흙을 만지는 일외에는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집스런 사기장이다.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성곡미술관에서 마련됐다.

용성스님 어록



보리(菩提)는
물각중생에 대각이요
무명중생에 대광명이요
미혹중생에 대도요
우치중생에 대지혜이니
이 대각심인(大覺心印)을 허공에 찍은즉 흔적이 없고 물위에 찍은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종이에 찍은즉 그대로 나타나도다. 일체중생을 이러한 대각심인으로 교화(敎化)할 지어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마음의 '자동성' 알면 모든문제 풀려"

세상살기가 어렵습니다

문 갈수록 사람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인류 생존이란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너무나 할 같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말을 해도 한 보람이 있고 그것이 법에 응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게 허탕이고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이 공부를 한다고 하고, 문학이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다 물질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느냐? 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99%, 100%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거저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괜스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몸 받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자성이라는 그 한마음이 자기를 이끌면서 온갖 마음 씀씀이를 통해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성부처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또는 수억번이라도 굴리고 굴려서 진짜 인간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 왔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나라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국가에 공헌하게끔 만들죠. 그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자기자성이라고 했지만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인데 그게 우주의 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근본이 자기를 이끌어 인간이 되게 했고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이 되게끔 이끌고 굴려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온 자리도 변변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손가락이 어떻느니 발가락이 어떻느니 그런 논의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자리도 변변히 몰라 가지고서 우주적인 일을 거론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역사라든가 문화를 한번 되새겨 보면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개발도 했고 인간이 좀체 하기 어려운 일도 해내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든 걸 물질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망하기도 했고 폐허가 되기도 했고, 문제가 여간 많았던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자고 인간이 생겨났고 인간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자성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써 우리 인간을 형성시킨 까닭이 그것 뿐이겠습니까?

이걸 어떤 말로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기 보다 자기로 인해 자기가 진화하고 계발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게 개별적인 자성이 아닌 전체, 전체로서의 불성이 그 자동성으로 우리들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자동성의 근본을 알아서 계발하고 진짜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발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거기엔 수만가지가 포함됩니다.

거기엔 진화도 포함되고 창조도 포함되고 일체만법의 근본을 알아서 만법을 작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얼른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사람들이 계발이 된다면 참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쓸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애초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생긴게 여간 많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진화력을 넣어 줌으로써 쓸모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둘째는 지구적인 문제 또는 세계적인 문제들인데 자기 자성을 좀 알게끔 한다든가 모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더불어 결부된다면, 말하자면 내가 그 쪽이 되어 줄 수 있고 물과 물이 합쳐 큰 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혜가 넘어지고 마음은 슬기롭게 돌아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 생각, 한 행이 다 우주법계의 근본과 같이 돌아갈테니까 말입니다.

셋째는 우주적인 문제까지도 다 한동네 일처럼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른 혹성, 별성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가지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겐 그렇게 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유생 무생이 다 같이 있는 동안에 지금 한사람만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참으로 초능력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과 물질을 동등하게 쓰는게 못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기 딱 십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거죠. 물질로는 아무리 해도 3차원의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야 한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만이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듯이, 그 소망이 하늘 끝까지 닿는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인간도 한마음의 자동성으로서 무엇이 되었든지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그 불성의 값어치, 활용의 값어치, 화현의 값어치를 지닌 자식이 되어서 이 우주 전체, 어떤 혹성이든지 간에 다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물질에 억눌려서 살아간다면 나를 인간으로까지 일으켜 세우고 형성시킨 전체 한마음, 포괄적인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그러기에 마음공부는 꼭 해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내 몸이 아프거나 나 살기가 어려워서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 부모님의 마음이 사연사연마다 피눈물이듯이 어떻게 하면 그 딱하고 가슴아픈 사연들을 지우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가지를 얘기했듯이 이 세상이 한마음으로 평등하게 돌아가야 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문제가 해결되겠고 그래야만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진화해서 스스로 근본을 알게끔 되어야 4차원을 바라볼 수 있고, 4차원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5차원 되기가 조금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겠다, 스스로 알게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알게끔 해줘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렇다고 한사람 한사람을 일일히 상대하다간 어느 천년에 하게요?

우리가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굴러오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며 오늘의 나를 형성시켰다는 걸 알고, 그 근본의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 어디에고 손 안닿는 데가 없다는 걸 알면 누구라도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서 현실의 고라는 것이 고가 아니라 배움의 재료요 진화의 과정인 줄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5차원의 맛, 6차원의 맛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마음의 자동성, 한마음의 자동융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 네가 한다

☞ 16면으로 계속

"이 세상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지구 · 국가 · 개인적 문제 해결되고
고차원까지 진화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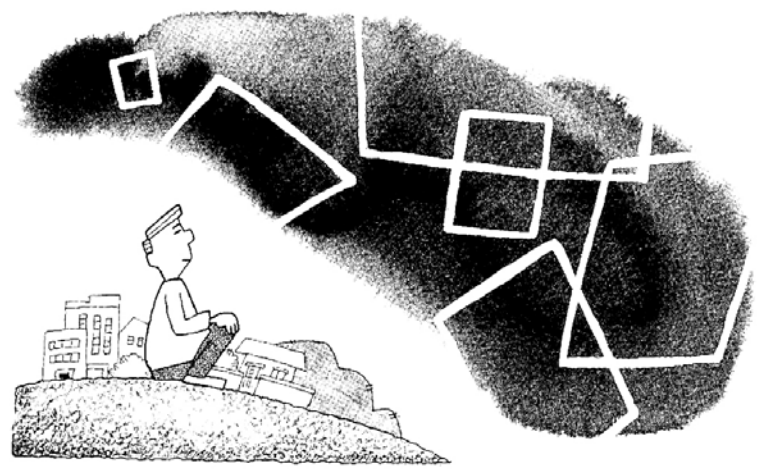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마음 조화 이뤄야 우주적 개발 가능
현실의 苦는 배움의 재료·진화의 과정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1)

지팡이는 안에 있다. 바깥 지팡이 없음을 탓하라.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가지 고에서 벗어난다 해도 또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쉴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집해 들여야 한다.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 자기가 거두어야만 한다.

달리보면 우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수집가이기도 하다. 고로 나온곳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까 업이 되고 응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험난한 산길을 피해 물길을 잡았더니 풍파 또한 예사롭지 않다. 어디 편하고 곧은 길은 없을까.

우리는 평생 그런 화두를 안고 산다.

갈구하고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운명을 한탄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길은 '거기'에 없다. '어기'서 못찾았다면 거기에서도 못찾는다. 여기에서 마음 붙이지 못했다면 거기서도 마음 붙일 곳을 찾아낼 수 없다. 산길에서 못찾은 답이 물길에서 찾아질 리 없다.

길은 안에 있다. 바깥 대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는 길은 내 안에 있다. 구하고 싶거든 안으로 머리를 돌려라. 없애고 싶거든 지금까지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지금부터라도 안으로 돌려라.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길을 찾는 방법은 내속에 있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아헤매도 구해지지 않는다. 피해지지도 않는다. 밖으로 찾아 헤맨다면 저항하면 할 수록 거부하면 할 수록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좇아가고 좋아해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거부하고 애착하는 것, 그것은 나의 관념 · 의식이 만들어 낸 상황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려낸 그림일 뿐이지 진짜 풍경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짓고 만든 상황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거기서 싫다 좋다를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고로 나의 처지가 바뀌기를 바라거든 거기서 뛰쳐나와 나로 돌아가야 한다. 상황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 · 조건 따위와 관련된 분별 · 평가를 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어와야 한다. 내가 좋다고, 혹은 싫다고 판정내린 상황은 길을 찾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시켜 바른 결정을 저해하고 나의 진화 발전을 견제할 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길을 찾고 싶거든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그려놓은 상들-나는 어떠해야 한다, 나는 어떻다를 넘어서 '나'라는 사실 그 자체로 돌아서야 한다. '나'로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나'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은 한결같이 외부세계와 짝지어 놓은 것들일 뿐이다. 그것은 나도 아니요 외부세계도 아니다. 그림이 참모습일 수 없듯이 그것은 나의 진면목도 아니요 외부세계의 실상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덧칠해놓은 그림 속에 길이 있다고 찾아 헤맬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머릿수 세기와 같다. 자기를 빼놓고 셈을 하니 몇 번을 되풀이 세어 보아도 정답이 나오질 않는다.

길을 찾으려거든 '나'부터 세어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부터 되비춰 보아라. 팔자운명이 잘 안풀리는 것은 '나'를 빼놓고 셈을 하기 때문이다. 외부세계만을 셈하고 환경만을 탓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돌뿌리 때문에 넘어졌으니 그 돌뿌리보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제 힘으로 땅을 딛고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하겠는가.

자기 자신은 잘 안다. 원인도 잘 알고 길도 잘 안다. 모든 것을 자기자신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깨어남이다. 깨어나면 답이 보인다. 길이 열린다.

지팡이는 안에 있다. 바깥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다. 고로 마음들 곳 없다고 하지말라.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없노라고 하지말라. 제 지팡이 놓아두고 남의 지팡이 찾지 말라.

협찬 : 신 지 연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空에서 나온것 空에 놓을때 업보 녹아

☞ 15면에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이치를 알게 되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는거죠. 말하자면 한마음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나 그것을 거둬잡고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좋은 기계를 들여 놓았는데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자동기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마음이 우주 구석구석 손 안 닿는데가 없지만 그걸 굴릴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없다면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고정관념으로서의 습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삶의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먹여주고 살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도리의 진미를 안다면 개인적이든 지구적이든 무슨 문제라도 다 풀어갈 수 있는 도리가 있는 줄 알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누구라도 똑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생각 잘 굴리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서로가 합일점을 이뤄간다면 삶이 그대로 보람이고 거발이 될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와 같이 후일에 가면 또 '아, 그때는 그렇게들 살았구나' 하고 지금과 비교해서 새삼스러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유위법만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므에서 유로 나오는 도리가 투철해야 합니다.

석존이래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와서 가르쳐 줬건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참 얼마나 피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더랬습니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도 제 탓이다 하겠지만 이건 몸뚱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백마디 말보다 한번 실천하고 들어가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 밖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해 버리고 만다면 바로 자기가 알고 우주 법계가 아는데 어떻게 말인들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말이 한데에 떨어져도 안되거늘 실천이 없는 거짓이 되어서는 더욱 안되지요.

지구적 · 우주적 삶에 대해

문 스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구적, 우주적으로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응하는 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답 내가 있고 상대가 있듯이, 내 가정이 있고 딴 가정이 있고 나라 나라가 서로 상응하고 교류하면서 살듯이 이 지구도 혼자 동그랗게 돌아가는 독불장군이 아니질 않습니까? 혹성들도 서로간에 교류하고 상응하면서 우주의 숱한 별성들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예전 같으면 오고 가기가 불편하고 아예 두절이 된 때도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조차 몰랐지만 지금은 지구 구석구석을 안방에 앉아서 다 보고 듣고, 그냥 한통네처럼 주고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보이든 안보이든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한마음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 각자 천차만별의 마음 씀씀이를 모르지만 알고 모르고를 떠나 서로 교류하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도리부터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한 생각에서 나온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실 겁니다 그대로 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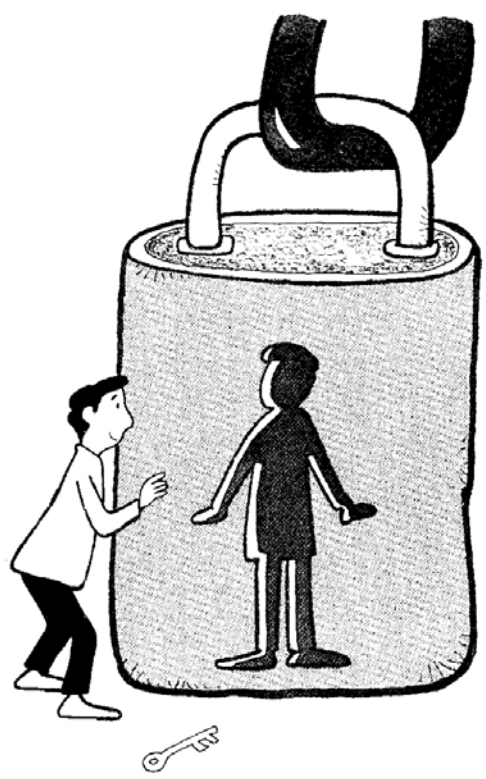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는건 아는대로 놓고 모르는건 '주인공 너만이 알수 있어' 하고 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된 건 바르게 돌려놓고 뒷발자국 생각않고 떼놓듯 놓고 가라는 겁니다

"사대오온이 空하고 자기도 세상도 空합니다"
"무한대의 자가발전 능력 마음대로 쓸수있어"

개인적으로나 나라, 지구적으로나 상응하고 교류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해로운 일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런 해로움이 때로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며 당하고 사는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같이 돌아가고 있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혹은 먼 데 것이니까 오는지 가는지 몰라도 되는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도리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근본 마음자리에서 일체만법이 천차만별로 나투며 돌아가니까 오로지 마음이어야 막을래도 막을 수 있고 하나로 같이 동글리려면 동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이기에 서로 주고 받는 이치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나 나하나, 별 둘 나 둘 했듯이 별성과 내가 생명의 근본에서 둘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 동력으로 돌아가고 동심이자 동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능력은 광대무변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예 그걸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내가, 하찮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바로 동심으로서, 동력으로서 무한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자는 무한대의 발전기에 가설된 자가발전기와 같다. 그러니 불을 켜려면 켜고 그 능력을 좋게 쓰려면 쓰고 그건 각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가설이 되어 있으니 조금도 에누리가 없이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고 마음 한번 잘 쓰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느니라' 고 말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그냥 화가 난다고 딴 생각없이 '어휴, 저 꼴 안봤으면 좋겠다' 싶지어는 나가서 죽어라 하는 막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무한능력을 가진 발전소라는 걸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내 한 생각의 마음자리에서 더불어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게 그대로 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게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까 한번 잘못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 한단 말입니다.

마음 한번 잘못 쓴 것은 줏어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준엄한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도리를 알아야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개발하는 이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줄 아는 것만으론 안되지요. 어디로 오는 지도 알고 마음으로다가 한마음이 되는 도리도 알아야 하지요. 목마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면 샘물이 있다는 걸 아는 데 있지 않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잘 알아서 상대를 항상 내 몸같이 내 마음같이 생각하며 높게 보지도 낮게 보지도 않으면서 겸손하게, 진심으로 불심을 지니고 산다면 어떤 문제라도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놓으면 인과도 없는지요

문 한생각 일으킨게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언젠가 다 자기가 받아야 한다면 스님께서 늘 놓고 맡기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과법을 부인하시는 결과의 말씀은 아닐는지요?

답 전에도 여러번 비교해서 얘기 드린바 있지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영 안지워진다, 그랬는데 그 녹음이 된데다가 다시 녹음을 한다면 앞에 한 녹음은 지워질게 아니냐 하고요. 자기한테서 나온 것이니 자기한테 되 놓으라고 했지요.

본래는 사대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도 다 공했어! 그러니 공한 자기한테서 나온 것 공한데다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했던 것 지워지듯이 지워질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한발짝 떼어놓고 또 한발짝 떼어 놓는 것이나 24시간 생활하면서 금방 뭘 했다가 없애고 했다가 없애는 반복을 하는 것이나 다 녹음했다가 없애고 녹음했다가 없애는 것과 같을 수 있지요. 공한데서 나온 것 공한데다 놓아야 없어집니다. 한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놓으면서 영원한 오늘을 걷고 있듯이 닥치는대로, 아무 조건없이 공에서 나온 것 공에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도 좋겠지요.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운전사입니다. 또 테이프에 녹음하고 지우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공에서 나온 것이니 공에다 놓으면 지워진다 하는 것은 본래 분을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우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것이든 알고 지은 것이든 녹음된 것을 지우려면 다시 새 것을 녹음하라는 것이지요. 공한 도리를 알아서 아예 녹음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면 모를까 이왕 저지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것이라면 앞으로 지지르지 않아야 하고 이왕 녹음된 거라면 이 마음도리를 알아서 되녹음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일체를 맡겨 놓아라 하는 것은 한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 놓듯이 찰나찰나에 몰록 놓고가라는 말입니다. 한 번 녹음된 게 그대로 있다든지 24시간 간다든지 그러는게 아니라 1초도 못되어서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그러니까 몰록 몰록 찰나에 놓고 가면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하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라, 되는 것도 법이고 안되는 것도 법이니 통땅 놓고가라, 그래야 테이프 지워지듯이 지워져 공테이프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슴에 못을 박고 한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자고 그러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일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알았으니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밝써 잘 해나갈 것을 예약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된다? 번연히 잘못된 줄 알면서 말입니까? 도둑질을 열번 했더라도 한번 고해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 모양인데 걸핏하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말입니다. 그거 잘못인줄 번연히 알면서 저질러 놓고 고하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 답이 안되지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되돌려 놓아야 마음에 찌끄러기가 안 남고 앞으로도 잘못되지를 않지요. 그게 고해성사지 자기가 한 것을 왜 남한테 고해서 없앤다고 합니까? 반성을 해도 자기가 하고 회개를 해도 자기가 해야 하지요.

물론 사람사는 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살고 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살지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놓는다 할 때도 사량으로 어떤 것은 놓고 어떤 것은 안 놓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량에서 떠올랐든지 그냥 떠올랐든지 가려서 놓으라고 했던가요? 알고 나온 것은 아는 걸로 놓고 모르고 떠오른 것은 그냥 놓고…, 다 놓으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차를 탈 요량으로 주욱 차례를 지어 줄을 섰는데 탄 사람은 탄 사람대로 차를 타고 갔고 못탄 사람은 거기 그대로 줄을 섰다 이겁니다. 타지 못한 사람은 타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서 있는거죠.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과는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 차원이 다른 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내 사량심으로 어떤 것이 떠올랐든 아는 건 아는대로 놓고 잘 됐다 싶은 것은 감사하며 놓고 모르는 것은 주인공 너만이 알 수 있어 하고 놓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돌려서 놓고 여여하게 한 발 떼어놓고 뒷 발자국 생각않고 한 발 또 떼어 놓듯이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야만 열쇠를, 자물통에 딱 들어 맞는 열쇠를 쥐게 되고 열쇠를 쥐어야 맘대로 열고 닫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협찬 한마음

여시아문의 세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한지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취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팩스 : (02)737-0696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강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경수성 훈련(N.L)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동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 구인구직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 교양과정 : 일용생활불교의식, 상용의식, 통과의례
〈매주 월 · 목 오후 3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매주 월 · 목 저녁 7시〉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매주 화 · 금 저녁 7시〉
● 어산작법 초급과정 : 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원왕생 봉사회원 모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투자하실 분

◆저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OO개발지역 근처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음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희 성

氣明綾峓↔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원체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적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사주 · 명리학 배우실 분

평생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진로선택 등을 완전하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간명에 자신이 없는 분은 수강료 무료로 계속 청강할 수 있음

⊙ 개강일 : 6월 10일부터 4개월
(주2회 수 · 토요일 오후 1:30~4:30)
3시간씩(월 · 수 · 금 화 · 목 · 토 오전반도 있음)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전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게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소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

투자하실 분

◆제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OO개발지역 근처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음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희 성

• 수련원 •

도 우 미

· 영상포교와 교양대학(프로그램) 불교교육에 관심있는 분 모십니다.
· 전통차, 사찰음식 주방장 구합니다

※ 전통찻집과 교양대학 운영하실분을 모십니다.

032)513-5328
017)251-2204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관 월반 회원은 매주 화 · 목 · 토 수련가능
관 스님 상자는 특별 개인지도하여 승단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지각부여(티 무술 유단자도 희망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샌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ㅇ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 ~ 6

• 법회 · 공연 •

국악 · 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교미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학언(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행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탁집 문짝
● 서운(백회사) 법당 수미단 용각 목각함
● 홍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회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송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탁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탁집 경탁 성상
● 서울(학림사) 화판 문서, 그외 다수 시장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성동석재불사공예사

■미륵불 · 지장불 · 석탑 · 석등
■석재 동물상 · 석재 · 조형물조각
■석재불사에 관한 모든 것
※천불 · 삼천불 · 만불 조성전문

T. 0357)31-8736
011)284-5101
012)321-6044
F. 0357)31-5549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귀하

■사찰소재지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70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유정사**
■창건인 이 호 이
■대 표 송 현 출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5.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성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타 •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산 삼

80~100년생 2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연있는 불자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9-531-1566
법성스님
※ 감정결과 진품이 확실함.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사찰을 찾습니다.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상 요양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장스님(보살절)절의 예수재 및 천도재를 정상 운영하여 드리겠습니다.

02)943-9942

◆天 葬 地 秘
(명 당 자 리)

누가 합부로 명당을 말하는가.
풍수의 시작과 마지막은
형국을 보는 것이다.
사람의 부가보는 해탈이요.
땅의 무가보는 천장지비이다.

農山 011-573-2700

◆토굴 사정상 급히 팝니다.

◇ 위치 : 경기 용인
◇ 대지 : 416평
◇ 건평 : 15평
◇ 가액 : 5,300만원

스님께서 유학을 급히 가게되어 양도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357)31-8736
011)284-5101

◆ 사찰양도안내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전철역 부근
◇ 건 물 : 4층건물의 2층
◇ 건 평 : 약 30평
◇ 법 당 : 삼천불 · 지장단 · 신중단 · 영단(최고급 시설)
◇ 요사채 : 주방, 거실, 화장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2)202-1123
011)255-3999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희대 입구 회귀역서 2분거리
◇ 평수 : 4층 · 5층 약 70평
◇ 가격 : 4천만원, 월 85만원
◆ 특징 : 최고급 시설완비
◆ 교통편리한 곳임.

011)286-2680

◇ 부산시 진구

◇ 국유지- 불하가능함. (대지) : 1천평
◇ 대웅전(27평), 산신각, 요사채 2동(60평)
◇ 울창한 숲속(대웅전 뒷편), 오륙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 가격 : 2억 5천(조절가능)

017)585-0067
012)1568-6936
051)647-0067(낮)
(저녁 7시이후-핸드폰으로 연락요망)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내
◇ 법당, 요사채, 산신각(30평)
◇ 부지 : 6만 2천평
◇ 산자수명 지기충만 연수원, 기도처, 고시원 최적지
◇ 창녕군청에서 3분거리
◇ 포장도로 주차장 완비
◇ 토속음식점 2동포함
◇ 매도가 : 2억 8천만원

051)817-1242~4
016)565-3366

경남 통영시 청정1급수지역
"나한기도처"

◇ 대지평수 : 1,200평
◇ 건물 : 46평(요사방 2개, 법당 1개)
◇ 가격 : 2억 2천 (조절가능)

012)1067-0108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 5백만원

0559)32-4807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無),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포교원이나 철학관 운영하실 분

◇ 일반 사무실로도 가능
◇ 논현동 관세청 4거리 대로변 3층
◇ 전면유리로 전망좋고 시설 A급
◇ 권리금 : 無
◇ 18평(1천만, 월 50만원)
◆ 철학강의 원하시면 강사가능.

02)514-1527
011)732-6933
011)326-2330

◇ 음성군 음성읍 토굴 필요하신 분

◇ 방 2개, 법당 1
◇ 가액 : 700만원

02)3492-4678
0446)78-1820

◆ 수행처토굴(암자)구함

현재 수행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금전 거래없는 토굴〈암자〉 구합니다.
불심 돈독한 불자님 연락 바랍니다.

석 도 휴
017)565-5619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삼천포시 중심지
◆부 지 : 1,700평
◆법 당 : 27평
◆요 사 : 15평/주지실 12평
◆주차장 : 무한대 주차가능
◆가 액 : 2억 6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웅장한 송림과 매실 나무숲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닷가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경관과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5분 거리로 편리한 교통환경과 4계절이 1급후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기도 및 포교도량의 산실

※ 본 도량은 정법도량이므로 무속인, 보살, 일반인 및 대리상은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회 **사찰 건축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출장문의 환영합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사찰 양도 안내

◇ 사찰부지 : 750평
◇ 대웅전 : 30평(완전목조로 주산포 단청완료, 법당시설 A급)
◇ 요사채 : 20평(목조), 50평(지하), 방8개, 거실 大2, 산신각 10평(돌벽), 채공실 18평
◇ 특 징 : 문화재급 사찰로 산세 · 물 좋고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서울과 5분 거리(금천구 대한전선 다리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 시 설 : 일체 무료기증
◇ 양도매가 : 17억 5천(절충가능)

02)899-4281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포교당 양도

◇ 위치 : 대구시내 시장입구
◇ 법당만 30평, 방 2
◇ 부엌, 화장실, 옥상
◇ 현재 운영중에 잇음

※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세요

건물주 053)557-1145

◆ 사찰 건축 및 목제 안내

⊙ 내용 :
사찰건축
사찰조경
단청
목조주택(한옥,황토방)
→ 전문

⊙ 사찰목조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 확보
· 대웅전 12평,20평,24평,34평,54평,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불사하실 스님 · 불자님들 연락바랍니다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원주근교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 사찰부지 : 1,800여평
◇ 대웅전 : 24평(완전목조)
◇ 산신각 : 10평(완전목조)
◇ 요 사 : 40평 × 방 4
◇ 그외 종각 및 부속시설
◇ 매 가 : 4억

※ 사찰양도하실 스님 연락 바랍니다.
※ 사찰 5천만에서 ~ 20억까지 다량확보

(주)천 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011)735-4168/012)935-4168

대장경 CD 나온후 동참자 2배 급증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5월 5개 사찰 법회…김수철 수익금 기탁

김수철씨의 팔만대장경음악 발표 이후 CD 구입문의와 함께 경판 후원접수자도 평소의 2배 가량 들어 고려대장경연구소 전산화 작업은 새로이 활기를 띠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5개 사찰에서 캠페인법회를 전개했으며, 사자암 도선사 진관사에서 139가족이 대장경 전산화 후원인으로 동참했다. 김수철씨는 팔만대장경음악 앨범 판매수익금 전액을 대장경연구소의 전산화 기금으로 기탁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5월26일 사자암에서 열린 디지털 대장경 후원법회가 끝난 후 불자들이 후원약정서를 쓰고 있다.

법회 후원인 명단

사자암 ▶고경부 김우옥 고신오미자 고해푸 고현석 고요 이은영 고희정 고기영 고해영(서울 관악구) ▶고옥순 윤기원 윤정희 윤태은 이연경(서울 동작구) ▶고현덕 김상희 안희숙 김병곤 김병훈 김민정(서울 동작구) ▶권옥규 김종기 김남후 이정미 김민지(서울 동작구) ▶김경자 연재은 연미순 연미주(서울 관악구) ▶김기정 김기호 김정현 김미향(서울 관악구) ▶김남정 황화영 황제영 방은영 황소영 황지원(서울 관악구) ▶김민박 백종빈 조영숙 백기연 백혜나 이효종 조경숙 이은정 이은미 조윤혜 김윤심 조혜연 조정연 조종익 조동하 김연지화 조갑훈 홍민숙 조화연 조근규 조승용 김민정(서울 구로구) ▶김도경 김영길 승소순(서울 관악구) ▶김만혜 기도곤 기혼서 강혜경 기호준 기호참 기배서 박선화 기호근 기호영 기희순 기희재(서울 서대문구) ▶김명숙 신동선 신장섭 한미희 신민정 신재원(서울 동작구) ▶김서심 류현희 김묘길상 류상민 류화지 김영현(서울 동작구) ▶김석옥 임석주 임성준 임혜련 일하늘 임혜영 임희경 양부환 양현승(서울 동작구) ▶김상인 김옥선 김상엽 이희진 김상도 김윤희(경기 도 고양시) ▶김숙정 안민기 안승준 안승원(서울 동작구) ▶김순자 이호순 이석재 박신연 이명재 이은미 이은경 이정안(서울 관악구) ▶김정자 이경미 김민지(서울 동작구) ▶김정희 김정길 승소순(서울 관악구) ▶박한석 이주자 박정원 박지현(서울 관악구) ▶박현숙 장봉균 장민수 장민석(인천 서구) ▶백금녀 윤태호 윤순희 윤재원 윤진희(서울 관악구) ▶백남희 박태언 박상학 박신홍 김미숙 박진우 박진원(서울 동작구) ▶서연순 원감성 홍재준 원형문(서울 동작구) ▶서형임 이선화(서울 동작구) ▶석동령 이도자 박주언 박세리 석주흔(경기도 안양시) ▶송주영 최명선 송효섭(서울 관악구) ▶신혜연 박만조 박정오 박정준 유영순 박영미 반준규 박슬기 서울금천구) ▶안옥자 유후근 유태봉 정희숙 유순희(서울 관악구) ▶오미정 손용영 손민우 손홍형(서울 동작구) ▶오연안 류영열 류기용 류기훈(서울 영등포구) ▶오윤순 유하용 유창훈(서울 동작구) ▶우상명 이정규 이범석 이은경(서울 관악구) ▶유병용 이성목 이현우 이지혜(인천 부평구) ▶유연섭 윤석진 강경숙 윤성준 윤성화(서울 구로구) ▶유옥섭 김학형 김주만 김석주 김현주(서울 마포구) ▶윤금자 송종섭 송지영 송은지 송유라 송원준 윤복이(서울 동작구) ▶윤옥자 홍종주 홍정희 홍정자 홍정임 홍순일 홍정화(서울 관악구) ▶윤옥순 윤경안 윤은경 윤경석(서울 동작구) ▶윤희열 환논철 윤수정 윤재웅 윤재점(서울 관악구) ▶이규관 방용자 이종숙 권운화 이길우 이동우 이종인 심문정 이주희 이명숙(서울 관악구) ▶이금지 홍재순 홍종선 홍승현(서울 영등포구) ▶이동건 김진순 이종상 이종호 이변건(서울 동작구) ▶이명선 박제일 박기운 박기섭(서울 양천구) ▶이명희 조혜래 조현만 조현희(서울 동작구) ▶이상길 한홍수 한상욱 이수정 한재숙 한창현(서울 동작구) ▶이성숙 강석배 강명수 강문수(서울 관악구) ▶이영숙 민영기 민정우 민지연(서울 동작구) ▶이용숙 정홍 정진구 정진용 정문경 정동우(서울 동작구) ▶이원자 강현중 강용묵 강연우 강은주 강연정(서울 노원구) ▶이은숙 권문택 권용대 권용성 서기선(서울 동작구) ▶이은주 류광효 류승은 류승민 류제덕(서울 동작구) ▶이종현 안지혜심 이찬휴 이지영 이석희(서울 관악구) ▶이혜숙 신진호 신현수 백순임(서울 구로구) ▶임근수 염영희 임선배 임효정(서울 강서구) ▶임순자 류동익 류상우 류현우 류현숙 류영남(서울 관악구) ▶임힘남 정명숙 임풍수 김옥희 임성운 임성현(서울 783-9014) ▶장영숙 박한진 박지현(서울 동작구) ▶전기화 김정자 전보경 전은경 전애림 전성호 니덕균 전효정 나석연(서울 동작구) ▶전형수 홍성준 전병찬 전병철 전병년(서울 동작구) ▶조숙자 최종수 최두순 최명순 최봐순(서울 관악구) ▶조숙현 김남남 김남옥(서울 송파구) ▶주순지 이호태 이도경 이정민 이현주 이두연 박흔이 공순례(서울 관악구) ▶최명식 정명숙 최혁승 최혁중(서울 관악구) ▶최철순 김성진 김완일 김원태 김원웅 염명숙 이지은 김재인 김재희 김재덕(서울 동작구) ▶한명희 홍성태 홍혜진 홍준개(서울 관악구) ▶허귀남 이성호 이상훈 이은숙 박동숙 이소민 이지연(인천 부평구) ▶황동수 황덕연 오명여 서현순 황영수 환지성 환혜신(서울 동작구) ▶황성섭 김맹석 황두성 황보경 환경화(서울 영등포구) ▶황외선 임의창 임현택 윤명숙 임현상 김문수 임경주 임경미 임경선(서울 동작구)

도선사 ▶김애자 황건식 김명우(경기도 수원) ▶김영환(서울 강서구) ▶김정자 김지형 박현수 김태균 김지현 김지훈(서울 강북구) ▶김철곤 손인태 김준원 김종분(서울 금천구) ▶김태용 정길순 인태규(서울 성북구) ▶김태윤(서울 노원구) ▶박경민 이상재(서울 광진구) ▶박동균 이옥란 박진식 박진서(서울 송파구) ▶박상순 서정란 박은희 박민희 박순동 나인식(경기도 부천) ▶박정옥 최호문 최호승 최만애 최세미나 최세종 양태화 고춘애 오연숙 양은정 양은지 양은대(서울 노원구) ▶유순애 정문성 정춘직(서울 성동구) ▶이봉길 박제원 이반야월 박승화 박은숙 박은희 이재영 박기숙 안수진 안수빈(서울 양천구) 김정은 노옥동 황홍일 김인기(서울 용산구) ▶이옥자 박진해 박현희 박상준 박상환(서울 중랑구) ▶함정자 배인경 배이친 배이철 배한영 백남배 비지영 박희재 배월순 박지수

진관사 ▶고영순 김성배 김광배 김남숙 남승우 남백비 남성은 남비리배(서울 강남구) ▶김성한 김정숙 김태묘 김태연 김나현(서울 은평구) ▶김영일 손행자 김찬형 김광주(서울 은평구) ▶김정희 최성덕 최영선 ▶문희 최한숙 최영우 김상예 강은묘(경기도 고양) ▶김춘식 심정기 김찬영 김희영 김인나(경기도 고양) ▶김학수 이덕재 차수경 김상화 김민지 김병관 박혜선 김상우 김윤정 김정화(서울 마포구) ▶김희란 기정연 이윤정 이호재(서울 은평구) ▶남건우 장정우 남기열 엄일순 남문현 남지현 남기환 박희화 남두현 남시지연(경기도 고양) ▶모범해 주재림 주제구 주재용 명인화 허순덕 현대원 김준남(경기도 안산) ▶박전배 김옥순 김형신 박재범 박영범 박정은 서울 용산구) ▶박병권 박명화 박인희 박현주(서울 종로구) ▶박승덕 조기주 조혜정 조혜숙 조영현(서울 은평구) ▶성백선 김혜용 김경민 김민수 이대성 서종덕 공오순 성백용(서울 은평구) ▶송상희 김동분 송진우 송진명 송병규 인광혜(서울 은평구) ▶송인도 이경순 승광섭 송설경 (영가)송민영 권희원 송인수 송인목 ▶유옥자 백병효 박은연 박정연 이희상(서울 마포구) ▶윤형하 송순길 윤지천 윤지원 윤치호 하수심 (영가)윤연석 윤승만 송오송(서울 서대문구) ▶이병찬 이정애 이동규 이원규 (영가)이병자 이조근 권복 이병현 이명철(서울 은평구) ▶이용감나육희 이수경(서울 용산구) ▶이종희 전순환 이재란 이병숙 이재광(경기도 광명) ▶이철용 강순득 이수범 이은희 이승임(서울 강남구) ▶장관봉 유금주 장연재 장연수(서울 은평구) ▶정영숙 김은식 감슬기 김세원 송정희 (영가)정태홍 김옥주(서울 은평구) ▶정옥순 강향구 김태완(서울 은평구) ▶조세윤 성옥남 조미현 조미소 조기찬 조보균 조정덕 조남기 조태형(서울 은평구) ▶조현용 윤문석 조연경 조유경 조영진(영가)조종길 윤기봉 조병채 김연영(서울 은평구) ▶최광순 김종국 김대은 김선우 분옥채 (경기)김종환 최상재 최순희 이윤희(서울 은평구) ▶최천호 오복숙 최재아 (서울 은평구)

가족 후원인 명단

서울 ▶강상진(의정부구) ▶고정희 이호룡 이성숙 이병봉 여정택(동작구) ▶권선자 권대순 권선옥 권대경 (종로구) ▶김경희 김정화(동작구) ▶김기옥 김학수 김지향 (용산구) ▶김대환 권명희 김지향(강남구) ▶김병자 원진 원근일 박현미 윤혜진 원유진(강동구) ▶김민재 송화구) ▶김상철 신재희 김명수 김보미 정복구) ▶김은희(종랑구) ▶김정희 노옥동(용산구) ▶김종숙 조재희 송주현(종랑구) ▶김현옥 배윤주 신혜경 배효진(성동구) ▶신현옥 서유순 신승철 신영희 이상임 신유나 신지선(성동구) ▶안동수(종로구) ▶안종훈(강남구) ▶양진옥(성북구) ▶우성덕 한순화 우이랑 우형주 손석순(강남구) ▶유순애 정문성 정후직 (영가)정종순 (영가)박화순(성동구) ▶윤경석(관악구) ▶윤희찬(관악구) ▶이달상(관악구) ▶이미정(서초구) ▶이병갈(영등포구) ▶이석우(서초구) ▶이선희 이학분 권기모 이정민(성동구) ▶이원기(양천구) ▶이은주(관악구) ▶이재순 서은석 서지현 서상원 서소희(성동구) ▶이홍자 황해철 황현민(마포구) ▶임국민(강동구) ▶임병선 현명스님 박혜력화 손여여행정연화심 정지행식 임효명심(관악구) ▶장억순 한정림 정정호(노원구) ▶장희정(노원구) ▶전태부 박재욱 전윤현 전종경 전종선(강진구) ▶정기호(마포구) ▶정병배 정우열 정가원 김미라(서초구) ▶정분이(관악구) ▶정용석 안금숙 정현호 정미우(마포구) ▶정정경 정민화(동대문구) ▶조성대(성북구) ▶조영희 여동구 여정훈 여민훈 여용진(관악구) ▶조은정 박석목 박장호 박장영(양천구) ▶진일자 김옥란 정호애 신선녀(서초구) ▶체경대(송파구) ▶최기숙(금천구) ▶최덕규 김남수 최지우 최주연(은평구) ▶최동호 이지상 최동모 이경희 최영미(서초구) ▶홍한용(서대문구)

부산 · 경남 · 울산 ▶강두호(금구) ▶강중혁 강기수 손 기(몽구) ▶강형태 석미경 강성균 강민정 강희진(남구) ▶곽동길 김찬금 최성례 곽상수 곽형화(남구) ▶김경자 심지혜(사하구) ▶김상정 김혜마지(수영구) ▶김석진 김상락지 김승준 김민정 김수정(사하구) ▶김영술(동래구) ▶김원순 윤정길 윤향곤 윤지행 윤동환(동래구) ▶김정란 김경란 업기임 송분경 염성운 염성호 최석별 (사하구) ▶김태일(남구) ▶노봉스(남구) ▶박경숙 최경례 김명순(동래구) ▶박봉특(사하구) ▶박선영 장용연 이행환 이정민 이동원(금정구) ▶박영준 이수병 박효정 박호희(동래구) ▶박유길(수영구) ▶변윤성(중구) ▶배옥순 배옥여 배옥재 배옥희 배성열 배옥진(남구) ▶변충윤 박두이 변종수(서구) ▶손광자 안종수 안은식 안상숙(남구) ▶신경아(동구) ▶심무경 하동수 하신창 하도성 하민정 하동금 하시은(동래구) ▶이경길 김복동지 이정인 김미숙 이명근 김영진 이세은(사하구) ▶이경희 최경수 최선미 최선호(수영구) ▶이성실 곽연희 이동순 이동근(남구) ▶이종순 박순자 이승우 이정석(동래구) ▶진도윤 김종덕정 전주덕 전은영 전차옥 (사하구) ▶정영민 김윤순 서진화 정재우(사하구) ▶정재임 김인덕 정명주 최윤영 정효정 김희숙 정영화 정소인(동구) ▶조숙께 이임우(영도구) ▶조승진(남구) ▶조재현 김덕찬 박태남 김종근 김희원 김민아(진구) ▶최병철 석순연 김옥남 최재우 최제환(남구) ▶하성준(영도구) ▶김순일(김해시) ▶박임환 김종식 곽수성 박수환 박수철(창원) ▶방숙진 함산 ▶우현숙 진해) ▶이태호 김길자 이신민 이상엽(진해) ▶김순자 김광임 서태식 서민희 서민환 ▶노만석 노경수 김양자 노치원(남구) ▶한영태 정영태 한이경 한정연(남구)

대구 · 경북 ▶강순애(남구) ▶김영수 박대덕실 김법일 김도륜(동구) ▶김진연 석용수 석미애 석미향 고석주 고화지(남구) ▶김현조 김소연 김이연 김시정 김재일(중구) ▶박종숙 이상희 이재근 이재만(달서구) ▶신덕숙 남경복 남경화 남경희(달서구) ▶유희자 유법화실 신군호 신군협 신은정(동구) ▶허민희 허환 배정숙 허민수 이재희 이재선 허아정 이현준(대구 북구) ▶구본규 김경희 구현모 구영미(포항) ▶김복순 윤세원 윤진욱 윤민욱 여연대(경주) ▶남상익 권경숙 남경민 남영주(포항) ▶박민호 최미숙 박스천 박수철(포항) ▶박우창 권금강현 박종호 박소연(경산) ▶임유식(울진) ▶정애로 이옥순 정하정 정영명 김정희(구미)

광주 · 전라 · 제주 ▶서미애 배종철 배정남 배진호 배소만(광주 남구) ▶고미석(전산) ▶김병관(김제) ▶임채란 김연희 심 암연호 임시환 박화웅(영광군) ▶조미성(순창군) ▶천선혜(완주군) ▶조광임 장학진 강남임 강영임(제주시)

캠페인 동참 권유의 말

"대장경은 우리민족 지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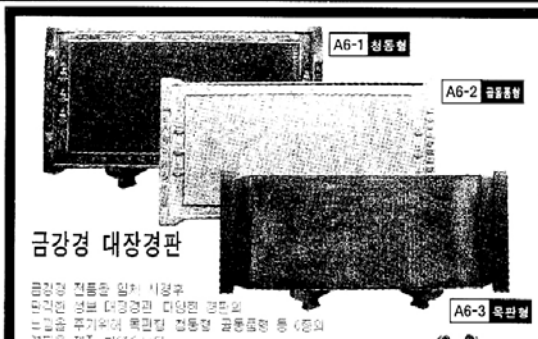
사자암 도각스님



지난 95년 팔만대장경은 우리들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다시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무 경판에서 전자 경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스런 후원으로 팔만대장경이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한자 한자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미래를 밝히는 광명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서로가 어려울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과거 몽고 침략의 전장속에서 내 목숨을 살리기에 앞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대장경을 판각하였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가족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민족은 이제 세계를 향해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널리 함께 하고자 팔만대장경전산화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시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거룩한 불사입니다. 작으나마 저희 사찰 보살님 모두가 이 불사에 동참하게 되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A6-1 청동형
A6-2 골동품형
A6-3 목판형
경판받침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통을 살려 시중후 단기간의 명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브랜드를 추구하여 목판과 전통적 골동품형 등 (주)의 명품을 제조 판매합니다
재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격 : 1개 ₩ 100,000

불교 티셔츠 ■ 원하시는 문구와 그림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5-1
A5-2
A5-3
A5-4
가격 : 아동용 ₩ 5,500 /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A4-1 골동품형
A4-2 개금형
A4-3 브론즈코팅형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100% 청동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A2-1
묘법연화경 책자
손에 이드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을 꼭 위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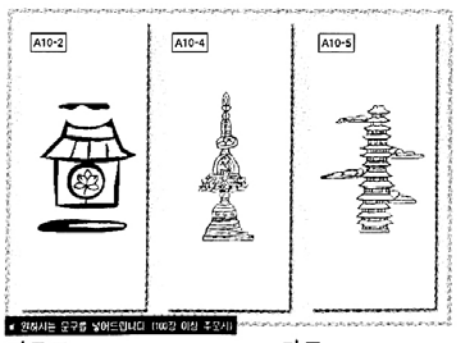
불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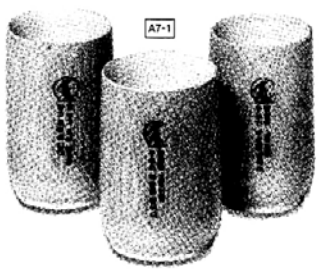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백점이건용)
색상 : 흰색 노랑 빨강
크기 : 160 (가로) 160 (세로) 48 두께 ㎜
특성 : 심플한 드영의 다양한 컬러와 튼 모양의 빈에심간 화풍 및 현지 너루디자인
가격 : ₩ 10,000

A3-1
사각 그림 벽시계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 (가로) 320 (세로) 48 두께 ㎜
특성 : 취진부분 회업업승업개수도 및 감상계 정돈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A3-3
가격:₩13,000
이외의 불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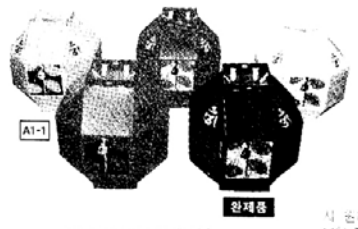
A3-4
가격:₩11,000
A3-5
가격:₩19,000
A3-6


A10-2
A10-4
A10-5
■ 경전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질 : 면
다포
가격 ₩ 800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A7-1
대나무 잔
원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자롭 대나무 원 미디를 가공 테크트 크기지름에는 일정제 정우에 가의 대나무 병이 이루러진 자 있 이 입품 입니다 브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 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1만 이상 인쇄기이 100%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9-1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A9-2
반야심경 종 차걸이
원존 종소리가 튼튼 기도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1-1
완제품
보관형태
팔각오색연등
투명포장 완전조립식 접착제연등 비 문에도 간편 이 하므여 기존 연등과는 달리 공전문구제품입니다 전기 등 달아 드립니다 (별도) 낱개 구입도 가능합니다 1000개 이상 주문시 인쇄서는 실원은 ㎏ 당진원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재질 : pp
의장등록출원 - 98-6490
실용신안출원 - 98-6425

도시락으로 나누는 '동체대비심'

아이들이 굶고 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의 결식학생들도 두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4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점심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중식지원 대상 학생이 초·중·고등학생 모두 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특히 고교생의 경우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도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식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2.4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는등 전국적으로 결식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계 곳곳 '결식아동돕기' 운동 나서

실직자 늘어 굶는 학생 2배
부산 '사랑의 도시락본부' 활동
종립학교 · 사찰등 참여 절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를 결성하는등 교계 곳곳에서 결식아동돕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29일 발족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대표 정각스님, 이하 운동본부)는 부산 지역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실업이나 빈곤으로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IMF 사태 이후 부산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중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이 1만여명을 넘어섰고 실직자가 계속 늘면 더 많은 결식학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이 동참하고 있으며, 부산 교육청과 사회·민간단체들도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벌이며 부산 각 지역의 절·교회·성당 등을 연계해 지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추진 중이다.

도시락 보내기 성금의 한 구좌는 2만4천원, 이는 결식학생 한 명의 1년 급식비용에 해당한다. 결식아동돕기 행사로는 14일 태화백화점에서 바자회, KBS 부산총국에서 ARS 모금 생방송,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동백섬 한바퀴 도는 걷기대회 및 모금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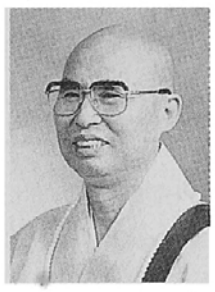
이밖에 서울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4월20일부터 관내 6개학교 44명의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고 있다.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스님)은 결식아동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관은 마산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26명의 결식아동에게 후원자를 1대1로 연결해 줄 방침이다.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지게 될 결식아동 후원은 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경산 백천사회복지관(관장 설송스님)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 만들기를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밑반찬만들기 자원봉사로 15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운동본부와 몇몇 복지관 외에도 교계 곳곳에서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대부중 등 종립학교 몇 곳에서는 브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실시한 자비의 쌀모으기 등으로 결식학생 돕기를 실천하고 있는등 불교계에서도 결식학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사랑의도시락보내기본부 대표 정각스님

"결식아동 기성세대 책임"

"실직자의 증가, 청소년 자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만큼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해요. 종교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 대표 정각스님(미륭사 주지)은 결식학생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는 불교의 동체대비사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예요. IMF 관리체제로 인한 실직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지요."

건강 365일 〈22〉 연밥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연밥은 한방에선 연자육(蓮子肉)으로 부른다. 동의보감에 보면 기력을 기르고 오장을 보하며 설사를 다스리고 신(神)을 더하고 심(心)을 편하게 하며 많이 먹으면 항상 기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연꽃의 열매가 바로 연밥이다. 화사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은 어느 곳에서 자라는가. 위생적으로 보면 더럽기 그지없는 썩은 물에서 자란다. 썩은 연못에서도 줄기찬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다. 이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언제 내 연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반문을 해본다.

기력보강 마음안정 등에 효과
불안 · 울화로 생긴 고혈압 치료

사람이란 욕망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지고 볶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뜻을 펴지 못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을 느낀다.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면 심장이 열을 받는다.

한위학에서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말한다. 심장에 열이 차면 화병, 울화병 등으로 불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초조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숨이 가쁘기도 하다. 맥박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나 심장이 조이는 것 같은 협심증이 올 때 척추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심장의 울화를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심장에 울화가 있으면 척수를 말리게 되며 그로 인하여 척추 관절에 탄력을 잃어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불안과 갈등, 공포심으로 인한 마음의 위축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심장의 수축작용이 안되면서 각종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런 후유증으로 동맥경화, 고혈압이 왔을 경우엔 연뿌리가 특효다.

오고 무리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다.

혈액순환 장애로 고혈압 증상도 발병한다. 심장기능이 떨어지면 목뼈관절 경추에도 영향을 미쳐 경추디스크로 인한 손저림 증상이 온다. 혹 중풍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증상

복용법 1회 8g을 감초를 넣고 달여서 차 마시듯 하루에 두 번 마신다.

단 신

파라미타 정읍지회 발대

파라미타 정읍지회(지회장 조인기)가 13일 오후 2시 호남고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다.

정읍지회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다짐하며 발대식 준비에 임하고 있다.

스카우트 불교연합 창립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5월25일 모임을 갖고 불교지구연합회 창립준비에 착수했다.

불교지구연합회는 지도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 정보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파라미타 이사 증원키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법정이사 증원, 재정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임시 이사회를 11일 오후3시 중앙사무국 회의실에서 가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정이사 추천 및 확정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은석초등학교는 5월18일부터 23일까지 '진리의 빛 머금고 있는 석굴암' 등 1차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전시회를 가졌다.

'체험학습' 공부 절로 돼요

은석초등교 800여명
동식물생태 · 시장조사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는 여러가지 고둥들이 신기하기만 해요."

'갯벌에 사는 고둥'을 주제로 보고서를 낸 권다인양은 자신의 현장체험이 뿌듯하기만 하다.

은석초등학교(교장 이무열)는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4일을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 현장학습을 하고 보고서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달에는 5일을 체험학습의 날로 정해 6일·7일 연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는데 전시회는 15일부터 열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은 8백여명의 전교생이 미리 부모와 의논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체험학습을 실시, 사진·수집물 등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차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가운데는 '배봉산 식물생태에 관한 보고서' '여주 도자기 공장과 도자기 축제에 다녀와서' '청량리 시장과 청량리 백화점의 가격 조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무열교장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얻는 간접 체험의 효과가 크다"며 "보고서들은 모두 학습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종군등 8명 장관상

참나예술대전 수상자 발표

제3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환경·문화·복지·예술대전에서 전체 입상자 350명중 초등부 장관상에 김용인군 외 3명이, 중·고등부 장관상에 성엄지양 외 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4시 봉원사에서 열린다.

각부 장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통일부 장관상=김용인(영도초등6, 문예), 성엄지(선일여중3, 그림), 김철기((주)예맥, 우리옷)

◇보건복지부 장관상=박혜원(장호원초등3, 그림), 유민영(인천부흥중3, 서예), 김인호(혜원불교미술연구소, 불상목조각)

◇문화관광부 장관상=김형탁(홍익초등5, 서예), 서아름(덕원여고3, 문예), 이진형(불교조각연구소, 불상목조각)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최호종군의 작품.

◇환경부 장관상=이소정(장곡초등6, 문예), 최호종(동대부중1, 그림), 이재순(대한석상조각원, 불상석조각)

'문예' 문화부장관상

납작코 부처님

지난 여름방학때 우리 가족은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남산을 오르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에 무료해진 나는 사촌동생 융이를 놀리기 시작했다.

"야! 납작코, 넌 비오는 날만 되면 걱정되겠다."

"왜?"

"빗물이 콧 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야. 하하."

융이는 화가 났는지 말없이 앞서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저 혼자 올라가던 융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외쳤다.

"저 부처님 코도 납작코네."

…

불상에 낙서까지 되어 있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경건한 마음이 드는 불상에 적어놓은 낙서들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짓일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

그 이름모를 석공의 솜씨를 빌어 태어나신 돌부처님은 무릇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없이 미소를 건네주신다. 마애석불은 비바람 속에서 영겁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민족의 등불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애석불의 미소에 감명받고 감탄을 자아내겠지….

그렇듯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봉지가 없어진 걸 봤다. 아마 누군가가 쓰레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가버린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들고 갔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나는 황당해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치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흐뭇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마애석불좌상을 올려다 보았다. '설마 저 높이있는 부처님의 코까지 납작코가 되진 않겠지?'

서아름 〈서울 덕원여고3〉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춘천 연화장의사 0361-241-5848
서울 대한불교 연화회 02-732-9618
청주 연화불교상조회 0431-65-6626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053-654-0055
광주 불교능인회 062-226-5161
부산 관음은장례봉사센타 051-554-0300
나주 불교상조회 0613-32-1224
전주 지장불교상조(주) 0593-33-5115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등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불자 세상보기

"핵무기 인류 위협한다"

파기스탄등 핵실험 …도미노 현상 우려
자국 이기주의 원인…핵무기 폐기 해결책

소위 '정당한 전쟁'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인류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경수로건설 지원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서남아시아에 핵무장 바람이 불고 있어 인류공멸을 재촉하는 핵무기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과 13일 인도가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8일엔 파키스탄이 다섯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 핵실험이 전세계의 핵개발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키스탄의 이웃인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리비아 등 회교국가, 그리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번져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북한에 핵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외신은 이미 북한과 우호관계인 파키스탄의 대북 핵기술이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경수로협정으로 북한에 일단 족쇄는 채웠다고 하지만 전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세계 핵질서의 붕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핵질서는 5대 강대국의 핵독점하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두 기둥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CTBT는 비준대상 44개국중 불과 13개국만이 비준을 마친 상태. 앞으로 비준대상국들이 인도·파키스탄의 예를 들어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 전문가들은 "핵강대국들이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보유 핵무기를 줄이는 진정한 노력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한 핵무기 개발경쟁은 끝날 수 없기에, 핵실험의 전면금지와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의 폐기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지적이다. 핵 강국들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무려 3만5천여개. 인류를 25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핵강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채 핵확산을 막으려는 불평등 구조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일부에서는 인도·파키스탄의 잘못된 종교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굶주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힌두·이슬람교간 성전(聖戰)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광신적인 종교지상주의가 살아있는 한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교국가들이 미국·이스라엘 등 그리스도교국을 상대로 한 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필사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이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희장은 "힌두·이슬람·그리스도교 등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 숱한 박해와 전도의 역사속에서 잘못된 성전을 계속해 왔다"면서 "종교지상주의는 '나는 핵을 가져도 되지만 너는 안된다'는 자국이기주의와 함께 영원한 평화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핵미사일 차림을 한 평화운동단체 회원들이 5월28일 미국 주재 파키스탄대사관 앞에서 이 나라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의 눈 "종교의 평화공존운동 절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 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식쟁인연경〉 부처님은 비폭력과 평화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로히니강의 문제로 석가족과 꼴리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재해서 전쟁을 방지했다. 또한 아자따사뚜왕이 밧지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사상을 계승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강인성회장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줘야 할 힌두·회교국가인 인도·파키스탄이 종교전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를 파멸로 이끌 핵개발 경쟁에 나선 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건"이라며 "종교인들의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김대통령에 대한 '공업용 미싱'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비판의 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또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전에서도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도 했다. 나쁜 말은 사람을 해치며, 그것은 곧 악업을 낳는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하며, 또 구업(口業)의 과보는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口業 나쁜말은 사람을 해치니…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설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객쩍은 말만 주로 하여 오직 중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로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이를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횡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꺾으면서도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무량청정평등각경〉

▨열가지 악업이 있으니, 첫째는 살생하는 일이요, 둘째는 도둑질하는 일이요, 셋째는 사음하는 일이요, 넷째는 거짓말을 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이간하는 말을 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거친 말을 하는 일이요, 일곱째는 객쩍은 말을 하는 일이요, 여덟째는 탐욕을 품는 일이요, 아홉째는 성을 내는 일이요, 열째는 어리석은 일이니라. 〈수십선계경〉

▨중생들은 몸으로 악업을 이루며, 입으로 악업을 이루며, 마음으로 악업을 이루며, 성자들을 비방하여 사견과 사견업의 인연을 이루는 까닭에,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

▨중생이 옛날에 많은 죄를 널리 짓고 신(身)·구(口)·의(意)의 행위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한 까닭에, 마지막에 목숨이 다하면 지옥 같은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며, 지옥의 보가 끝나도 여업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대해(大海) 속에 떨어져 축류의 보를 받게 된다. 〈시설론〉

▨온갖 죄는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입과, 내세를 배척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파리문법구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이로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없이 진실한 말이 세번째이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번째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기사가 일어나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IMF이후 빈부격차 심화

부유층 불로소득 늘고 저소득층 더 빈곤

"재물과 순금 보배와 갖가지 장신구와 많은 종과 하인들과 논밭과 대궐같은 집들, 그 모두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홀로갔거니…."〈잡아함경〉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부유층 소득의 74~76% 선이던 중산층 소득이 올해는 68.0%, 내년에는 67.7%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부유층 소득의 31~32%를 유지해 온 저소득층 소득도 각각 28.5%, 28.4%로 하락해 소득격차가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물가는 높은 수준이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될 것이 확실해 정부의 분배구조 개선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폐기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검토하고, 고소득층의 음성·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추계과세제도의 도입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형평에 맞는 고통분담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대폭력 '위험 수위'

선배·급우에 시달리다 자살
동네후배 생매장…강제 문신도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법구경〉

중학생이 후배를 폭행해 자살하게 하고 동네 선배가 말을 잘 안듣는다며 후배를 땅에 묻어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 10대 폭력이 흉포화하고 있다.

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5월27일 오후 순천시 송광면 임모(14·중2)군이 자신의 방에서 극약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임군이 지난 5월7일 학교 선배인 기모(15·중3)군의 자취방에서 휴대용 카세트를 훔친뒤 탄로나 카세트 값 변제를 요구받고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월29일 오후 울산시 화북동 모중학교 4층 복도 창문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재선(14)군이 짝인 전모(14)군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했다.

한편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1일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를 땅에 묻고 문신까지 새긴 선모(17)군 등 10대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장모(17)군 등 3명을 수배했다.

14년 모은 팁 장학금으로

신라호텔이 지난 14년 동안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주고 간 팁 1억2천여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팁을 받지 않는 신라호텔은 지난 84년 당시 카타르의 칼리파 국왕이 3만5천달러의 팁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고객들의 팁을 양성화 했다. 이에 따라 85년부터 프런트 데스크를 비롯, 8곳의 레스토랑과 음식점 카운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을 설치, 운영했다.

난치병 학우돕기 모금

부산대생들이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경을 헤매는 학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1억여원에 이르는 골수이식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힘이 부쳐 각계의 온정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투병중인 이민경(21·여·생물교육)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대동지인 지난 5월12~15일 교내에서 주점을 열어 4백50만원을 모은 뒤 서울로 이송되기 전에 이씨 부모에게 전달했다. (051)510-1941

단속중인 선관위 직원 구타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2일 향응제공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때린 혐의(선거법 위반등)로 우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43)씨를 수배했다. 우씨 등은 1일 오후 노량진2동 S갈비집에서 이 지역 구위원 후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향응제공 신고를 받고 나와 이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려던 동작갑 선거관리위원회 정종오(39) 관리계장 등 2명을 때려 정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PC통신 음란물 판매자 구속

수원지검은 2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음란사진 등을 판매해 온 혐의(음화판매 등)로 '인터넷 정보통신' 노혜숙(32)씨 등 정보제공업자 7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한국통신 이광형(46·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국장)씨와 데이콤 양승식(39·컨텐츠 사업팀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품 "휴대용 자동 세차기"



언제 어느곳에서나 한통의 물만 있으면 세차 할 수 있는 '셀프 휴대용 자동세차기'가 나왔다.

자동차의 시가잭에 꽂으면 바로 모터가 작동해 물을 뿜어주는 이 제품은 세차용 특수 브러쉬가 장착돼 있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예스산업. 가격은 2만5천원. (02) 636-7138.

가격파괴!
통신강의 테이프 판매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과 재가불자님의 전문적인 불교 공부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테이프를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테이프 목록 ◆◆

번호	강 의 명	법 사	테이프갯수	비 고
1	능엄경	법작성 큰스님	95(120분용)	강의록 93회
2	대승기신론	"	23(120분용)	강의록 17회
3	화엄사상특강 1(개론)	"	33(120분용)	교재1권
4	화엄사상특강 2	"	25(120분용)	교재1권
	- 보현행원품		1(120분용)	
	- 수심결		5(120분용)	
	- 원돈성불론		8(120분용)	
	- 증도가		5(120분용)	
	- 신심명		2(120분용)	
	- 전등록		4(120분용)	
5	원각경	법작성 큰스님	20(12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6	금강경	"	11(120분용)	"
7	육조단경	"	23(120분용)	"
8	영가집	"	17(120분용)	"
9	서장	"	16(120분용)	"
10	화엄경합론 회석	"	42(120분용)	강의록 29회
11	법화경	"	12(120분용)	원전 강의
12	화엄경원전 80권 및 화엄론 40권(각성스님)	" (현 계속 강의중임)	136(12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13	대학직지 중용직지(각성스님)	법작성 큰스님	26(60,90분용)	지욱대사 역해본 감산대사 역해본
14	주역선해	"	345(60,9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15	장자남화경	"	59(120분용)	감산대사 원본
16	불교기초교리	"	7(120분용)	한정섭·암도스님
17	원인론강의특강	"	2(120분용)	각성스님 역해본
18	대학·중용(심백강교수)	심백강 교수	12(120분용)	원전강의
19	불교사상강좌(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0	불교사상강좌(대승불교)	최봉수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1	불교사상강좌	"	36(120분용)	

■ 가 격 : 테이프 1개당 2,000원(우송료 포함. 교재비 별도)
■ 입금처 : 213-026160-04-013(기업은행)탄허불교문화재단
■ 문의처 : 탄허불교문화재단 사무국 02)237-4438 FAX.02)237-443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 각종 번 · 장엄 번 · 전산(금·은전)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02)738-8682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시 론

지자체선거 이후

지방자치선거-이는 지방자치의 개념과 선거의 의미가 합성된 말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지방화시대와 주민행정을 실현시키는 제도요 도구다. 또 선거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의 축제다. 지방자치선거를 응축시켜 말하자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적인 장치 및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내릴 막중한 책임의식 가져야

6월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 의원 선거는 특별한 정책대결이 없이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그야말로 '진흙밭에서 개싸움'한 듯한 선거였다.



황진수
〈한성대교수·행정학〉

이는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한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크게 돌출된 이슈가 없었다는 점, IMF체제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선거를 여유롭게 관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도 다른 때와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후보자 선출과정의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의원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이어야 함에도 중앙당 또는 실력자의 낙점에 의해 공천되는 비민주적 관행이 여야 모두에게 상존하고 있었다.

둘째는 출마자의 자질문제다. 도덕성문제, 재산축적과정, 병역문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문제와 국가적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당선되면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 IMF체제를 벗어나겠다, 김정일과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등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난제를 공언하기도 했다. 원래 정치인이란 강(江)이 없어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허언(虛言)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후보의 자질과 공약의 검석이 덜 된 상태였다.

셋째는 주민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네가티브 전략'을 너무 많이 썼다. 정책대결이 아니라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과대선전, 전력(前歷) 시비에 너무 많은 정력(?)을 낭비했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독립정부 50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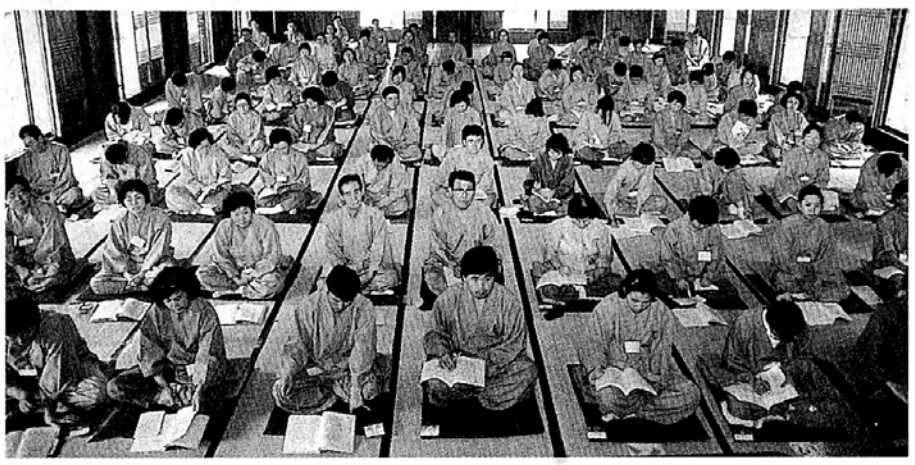
선거는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은 이제 각기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에게 몇가지 충고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성정치인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정치인적 요소보다 행정가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의 패거리 정치, 밀실정치, 공적인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위,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혁신시키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일선행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부, 권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사회이다. 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말하자면 소외계층을 감싸주는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세계화-지방화 상호보완 주민모두를 위한 복지행정

셋째는 주민들에게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1세기의 행정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활성화, 경영학적 마인드를 전제로 한 행정,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행정,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선거 당선자는 스스로 주민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함께 백만인 걷기 운동처럼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의 때를 벗고 불교의 참모습을 체득할 수 있는 산사의 여름수련회. 사진은 송광사 수련회 모습.

열린마당

산사수련회

산사 여름수련회가 27일 해인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서 열린다. 수련회에 참가했던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라고 말한다. 산사의 수련회는 새로운 발심(發心)의 장이다. 단기출가를 통해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얻기 때문이다. 더욱 효율적인 수련회를 바라는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후관리 관심 보였으면

여름수련회는 긴장(좌선과 1080배 등 용맹정진)과 이완(산책과 명상 등)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산문 밖에 다시 나서더라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다. 생활선을 체험토록 해 행주좌와 어묵동정 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출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사보를 보내고 각종 법회에 초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최태영〈인천 만수동·세무공무원〉

빡빡한 일정 부담스러워

짧은 일정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보다 단 몇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수련생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또 여법한 산사의 공양예절과 대중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중스님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양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수련회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황영자〈대구 불로동·주부〉

초심자위한 교리강좌 필요

송광사 수련회는 전통적인 수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수련했던 사람들 중에는 불교교리에 대한 강의가 적었음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발심한 사람들, 그저 세상 시름버리려고 찾아온 사람들, 타종교인들이었다.

사찰주변 산책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수련회 일정 중 하루를 투자해 송광사 경내·외지까지 구석구석 찾아보고 산사와 대자연과 더불어 사는 수행자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황인술〈남원시 동충동·남원불청지구장〉

단체-개인 분리 효율적

가족단위의 수련자들은 가족들만 참가하는 수련회 일정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족단위 참가자나 단체 참가자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묵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 이동을 할 때나 세면장 잠자리 등에서 묵언을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송희옥〈부산 수정5동·공무원〉

수련기간 더 늘렸으면

백양사를 비롯 여러 곳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해인사는 비교적 불교수행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그리 힘들지 않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수련회였던 것 같다. 반면 백양사나 대흥사의 경우는 거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참선의 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돼 그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에 임할 수 있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차례 수련회를 경험하다보니 4박5일이라는 수련회 기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다. 유경험자를 위해서 수련회 기간을 조금 늘려 일률적인 수련회 운영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가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은규〈경기도 화성·자영업〉

더 많은 사찰서 기회 제공

올해도 대흥사 여름수련회에 참가신청을 했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과 달리 사회가 어렵다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신청할 것으로 본다. 산문을 더 넓혀서 어려운 사회현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예를 든다면 실직자를 위한 수련회를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또 수련회 이후에도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까운 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관리가 요망된다.

윤승로〈서울·원효학당 회원〉

■수련회 참가자에게

"단기출가로 절제 배우고 마음 비움의 대자유 얻길"



법인스님
〈대흥사수련원 지도법사〉

산문에 들어서면 모든 것을 놓아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도자입니다. 수행은 자기의 크나큰 혁명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자부해온 지식, 주의주장, 견해, 우월감, 열등감, 자만심, 타인의 평가, 사회적 지위, 모두를 비워내십시오. 크게 비워내지 않으면 무한의 지혜와 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구도의 길에서는 도덕적 겸손을 넘어서 '나'라고 집착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독선과 이기심, 그리고 편견을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나와 이웃 모두가 자유와 평등의 기쁨을 얻습니다.

시간 엄수, 묵언, 소임 충실은 수행청규의 근간입니다. 청정한 규칙은 절제와 자율의 힘을 길러줍니다. 수행일과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정진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뿌듯한 자기 성취감을 느끼고 청정하고 은밀한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몸가짐이 단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주의와 집중을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세속에서 함부로 익혀온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는 일을 통하여 마음을 자유자재하고도 정밀하게 부리는 참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밥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통하여 절제와 소욕지족을 배우고 이 공양이 내게 오기까지의 공덕에 감사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다시 산문을 나서는 그대는 산문 안의 삶과 산문 밖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늘 문제는 그대에게 있고, 늘 해답은 또한 그대에게 있습니다.

◇여름수련회 일정

사찰	차수	기간	정원	대상	신청기간	문의
해인사	1	6.27~7.1	50	20~60세 일반인	선착순	0599)31-1001~3
	2	7.4~8	50	20~60세 일반인		
	3	7.11~15	50	20~60세 일반인		
	4	7.18~22	50	20~60세 일반인		
	5	7.25~28	150	중·고등학생		
	6	7.29~31	200	초등학생		
	7	8.7~11	50	일반인		
동도사	1	7.20~22	100	60세이하 일반인	6.15~7.4	0523)84-8380
	2	7.24~26	100	60세이하 일반인		
	3	7.28~30	300	초등학생		
	4	8.1~3	200	중·고등학생		
	5	8.5~7	100	교육계종사자		
	6	8.9~15	50	단기출가자		
백양사	1	6.22~26	35	실직자	선착순	0685)92-7502
	2	7.13~17	35	실직자		
	3	7.20~24	40	일반인	6.30까지	
	4	8.1~5	40	일반인		
송광사	1	7.5~9	100	60세이하 일반인	6.10까지	0661)755-0407 0661)755-1782
	2	7.12~16	100	60세이하 일반인		
	3	7.19~23	100	60세이하 일반인		
	4	7.26~30	100	60세이하 일반인		
	5	8.2~6	100	60세이하 일반인		
	6	8.9~13	100	60세이하 일반인		
불국사	1	7.10~12	60	일반인	6.30까지	0561)746-9913 0651)746-1472
	2	7.17~19	60	법보신문우수독자		
	3	7.24~26	450	어린이		
	4	7.30~8.2	60	일반인		
	5	8.4~8.7	60	일반인		
쌍계사	1	7.24~27	남녀 각30	일반인	6.27까지	0595)83-1901~2
	2	7.29~8.1		일반인		
	3	8.3~8.5	100	초등학생		
대흥사	1	7.6~10	남녀 각30	19~55세 초보자	6.20까지	0634)34-5502~3
	2	7.13~17		19~55세 초보자		
	3	7.20~26		19~55세 경험자		
직지사	1	7.10~12	80	일반인	6.20까지	0547)436-6606
	2	7.30~8.1	80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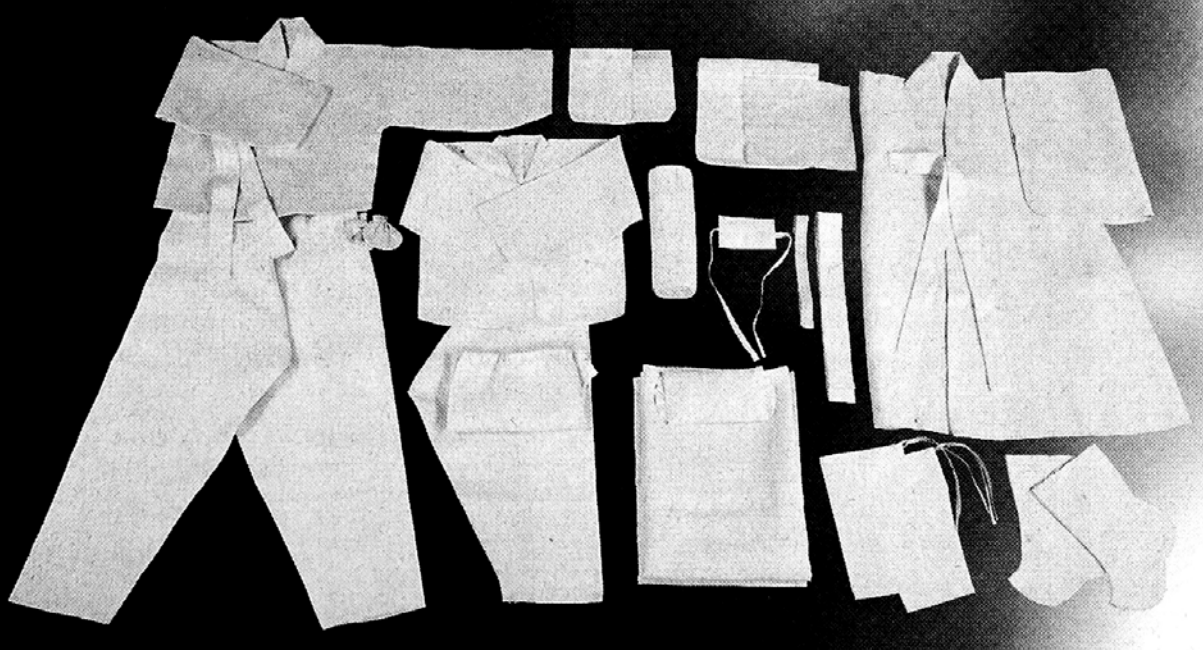
※월정사(0374-32-6664), 봉선사(0346-555-5974), 은해사(0563-35-3318) 수련회 일정 미정.

"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종단소식

조계종

경봉선사 16주기 다례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 극락암은 21일 '경봉대선사 입적 16주기 다례제'를 봉행한다. 또 극락암은 이날 경봉스님이 정진했던 토굴인 삼소굴 중수불사 회향법회도 봉행한다.

용주사 보살계 · 예수재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7월2일 대웅전에서 보살계 및 예수재를 봉행한다.

정무스님(영월암 주지)이 증명법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는 각 말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태고종

인천 일광정사 기공식



일광정사(원장 정태진)는 5월31일 인천시 서구 대곡동 산 121-3번지 일광동산 건설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졌다.〈사진〉

태고총림법 제정 논의

제75회 임시 중앙종회가 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태고총림법 제정안, 종회의장 선출안, 종헌종법 개정안, 1997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순국선열 영가 천도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일 선암사를 비롯한 2천5백여 전국 사암에서 순국선열 영가 천도재가 일제히 봉행됐다.

'국난극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1천일 기도'의 일환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호국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

9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가 7일 경남 양산전문대학교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이날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우승기쟁탈 사찰별 계주, 파도천타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문경 옥천사 기공식

문경지역 포교와 신도들의 수행도량이 될 옥천사(주지 동문) 기공식이 5월 30일 가은읍 작천리 부지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을 비롯 김학문 문경시장,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김대영 시의회 의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는 99년말 완공 예정이다.

진각종

14일 창교절 기념행사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14일 창교절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한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진각종은 이날 각 심인당 별로 자성일 불사와 겸해 기념행사를 가진다.

쌍용화재 진각 대리점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20일 쌍용화재 진각대리점을 개설한다. 진각대리점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취급하며, 보험 가입액의 7.5%를 복지법인 복지사업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02)942-0144

관음종

관음사서 전국주지회의

총무원(총무원장 홍파)은 10일 논산 관음사에서 전국 주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10일 대전 EXPO에서 개최할 '국난극복을 위한 영산대법회'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타종

이웃돕기 거리탁발

총무원(총무원장 권성우)은 종정사서실 주관으로 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동안 청량리역 광장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거리탁발을 실시한다.

권성우 총무원장은 "거리탁발을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캄보디아 불교학교 및 문화원 건립비 환차손 충당과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이웃 아픔나누며 여생회향"

보문선원 무료급식소 운영 장대비화 보살

아들은 스님 어머니는 후원자
'실직자 쉼터'도 지원
월 5천원 정기회원 모집

"속가의 모자지간이 아니라 승려와 재가로써 만나 항상 성광스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정당의 여성위원회 활동도 하고, 불자가수회 신도회 활동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놓아 버리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삶을 회향할 생각입니다"

속가의 아들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출가 수행자가 된 아들의 든든한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장대비화보살(58세).

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보문선원, 맑고향기롭게의 실직자 쉼터 겸 무료급식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재개원 현장에서 대비화보살은 자원봉사자들과 점심준비에 부산했다.

그동안 성북동 길상사에서 운영해 온 쉼터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재기능을 다해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중 길상사 청년회 지도법사이자 보문선원 주지인 성광스님이 실직자를 위한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보문선원에서 함께 열어보자며 제안해 일이 성사됐다. 그리고 7년전부터 이미 보라매공원 노인무료급식소, 오산 공군부대 등지에 이름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던 스님의 속가 어머니 대비화보살이 재정후원과 자원봉사자 조달을 맡았다. 올해 초 개원한 89평 규모의 보문선원은 종로5가에서 '일광주단'이라는 포목점을 운영하는 대비화보살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뜻맞는 불자 3백여명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도 그런 불자들이 5명씩 팀을 짜서 돌아가며 무료급식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비화보살은 "쌀은 스님께서 사찰을 다니면서 모아주기로 했고, 부식비는 맑고향기롭게 후원회원들과 제가 힘닿는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밝혔다. 대비화보살은 점차 무료급식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월 5천원의 정기후원 회원을 모집한다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2)741-4696



◇대비화 보살(원내)이 만든 동대문구 제기 2동의 보문선원. 이곳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쉼터와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이은자 기자

박물관 위탁운영 반대 '확산'

역사 · 민속학회 등 16개단체 철회요구 성명

정부가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문화계와 학계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박물관협회(회장 허동화)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박물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발상은 국가경제 파탄위기를 시장경제논리로만 접근해 민족의 정서와 얼, 혼을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적위주의 외관적 처방보다 박물관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치료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학회 등 역사학관련 10개학술단체도 같은날 역사학대회를 마치면서 "정부는 왜 경제난국을 굉계삼아 애꿎은 문화유산에 화풀이 하는가"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은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청회 등 공개토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민속학회 등 민속학관련 6개 단체들도 1일 성명을 발표, "민속박물관 등의 민간위탁은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먹거리와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박물관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호국영령 천도법회
은평 · 광주사암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암연합회와 전남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10일과 19일 각각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은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는 10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제10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암연합회회원 주지스님을 비롯 각 사찰 신도대표 및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은평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계획이다.

은평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법회시 모범 공무원 자녀를 선정, 5백여만원의 장학금을 구청에 전달해 오고 있다. 또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19일 구례 천은사에서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사암련 산하 40여 사찰이 동참하는 위령재, 조류(굉)방생, 3寺 순례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진각종 구조조정필요" 62%

교직자 '종단발전방향' 설문

기획위 설치 · 복지불사 제안

진각종 교직자들은 종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종단발전기획위원회 설치, 교구청 및 심인당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덕대 군승문제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진각종은 4월 21~22일 춘기스승강공에 참석한 1백77명의 전수정사를 대상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 종단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승들은 종단의 구조조정에 대해 6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중장기 종단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종단발전기획위원회 설치(85%)를 적극 지지했다.

또 교구청 및 심인당 자체예산 편성에 대해 80%의 교직자들은 각 심인당이 자체예산을 확보해 교화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스승복지(35%) 장묘사업(26%) 등의 복지불사와 스승법복 및 법의 디자인 변경(96%)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한 조계종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덕대학교 군승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자 78%가 종단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tn 이사증원 · 6차 주식공모

천태 · 총지종등 범종단 프로그램 협찬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7월부터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하고 범종단적으로 새 이사를 영입키로 했다.

불교TV는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1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2개월동안 주식을 공모하고 범종단적으로 새 이사를 추천 영입할 것을 결정했다. 27명의 이사중 17명(위임3명 포함)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정우스님은 "불교TV는 현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의 판매사업과 경기도 시흥 영각사 납골당 분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태종과 총지종 등 범종단적으로 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후원회 전국조직 확대

종단협 참여 '경영안정 모색'

불교방송 후원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의 재정안정에 기여키 위해 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이 불교방송 후원회원으로 가입키로 했다.

또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등 회장단이 후원회 당연직 임원을 맡고 각종단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불교방송 후원회는 각종단 대표들이 참가하는 확대기구로 재편,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및 각 사찰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불자기업인등 40여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방국이 있는 지역(부산 대구 청주 광주)에도 지회를 결성해 후원회를 전국화 할 방침이다.

6대 종단 성지순례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6대 종단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5월31일 1차로 천도교 성지인 울산 바위골과 경주 용담정을 다녀왔다.

밝은길 아봐타센터

지금 당신의 변화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 원치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봐타코스에서 과감히 지우시고 늘 원만한 삶의 향상과 발전, 밝은 지혜의 길을 획득하십시오.

코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새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유식과 함께 깨어남을 경험하십시오.

수련기간 7~9일간 (수시 접수)/비용 160만원(상담 무료)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합장

전 화: (02)396-2736 · 휴대폰: 016-228-2358

원·혜·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깎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멀고 먼 길을 흐르며 얽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이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훈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리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 · 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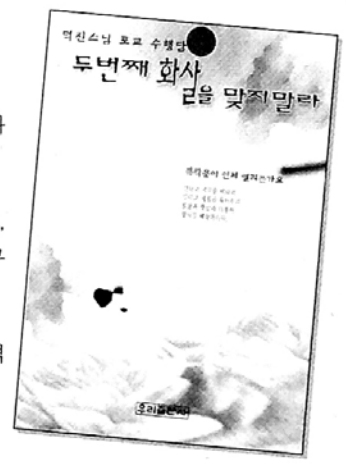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사찰대상 사기 '극성'

서적등 구매강요 늘어…교계 기자 사칭도

지난달 중순 경남 산청 지족사 주지스님에게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신이 모 중앙일간지 전국부 기자라고 소개하며 잡지구독을 요구했다. 주지스님이 구독을 거부하자 그는 "다른 사찰은 협조가 잘 되는데 왜 스님은 비협조적이냐. 만약 구독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주지스님은 전화를 끊었다. 결국 그는 공양주보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독 신청을 받아냈다. 확인결과 이 지역 여러 사찰이 이같은 방법으로 잡지 구독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고 해당 일간지에서는 "그런 기자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일간지가 발행하는 잡지 외판사원으로 추측된다.

최근 사찰을 상대로 서적·상품 구매, 잡지구독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 사찰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들은 물품의 판매를 위해 기자 불교단체 간부 등의 신분을 사칭하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F 체제 이후 각종 범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사찰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산청의 또다른 사찰의 경우 주문도 하지 않은 고가의 책 한질이 배달되기도 했다. '신도가 보시했겠지' 하고 받았으나 며칠후 책값을 내라는 영수증이 배달됐다. 해당회사에 문의를 하니 "책을 구입했으니 배달된 것 아니냐"며 구입을 강요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되가져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대구의 한스님은 "날이 갈수록 외판원들의 전화와 방문이 급증해 종무행정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단체에서 나왔다' '불교계 신문기자다'라며 회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불교서적과 용품 등을 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스님들은 "IMF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진단하고 "각 사찰의 주의를 물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 사암연합회나 경찰관서로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교도가 난입해 망치로 훼손시킨 불상모습(원내).

보덕사 철불 망치로 훼손

경찰, 현행범 체포-훈방-재검거 소동

법당에 난입해 망치로 불상을 손상시키는등 훼불행위를 자행하는 20대의 이교도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훈방조치 했다가 사찰측이 항의하자 다시 검거했다. 3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 보덕사(주지 자인)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25세 가량의 청년이 법당에 침입해 30분동안 훼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방배3동 파출소 관계자는 "범인이 특정종교의 광신도로 보여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풀어줬으나 뒤늦게 불상파손 등의 사실을 알고 다시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덕사에 따르면 범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찰에 찾아와 찬송가를 부르고 스님에게 성경책을 보라고 강요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용의자 김장호씨는 경찰수사에서 "내 이름은 예수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뉴스

한일종교인 국토순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7월31일 경주 분황사에서 하동 쌍계사까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생명과 평화의 제2차 한일 제 종교인 국토순례'를 실시한다.

불교인권위원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스님과 일본 묘법사 스님 60여명이 참여한다.

무료급식소 후원금전달

맑고향기롭게는 5월 한달간 본부 사무실 건물외벽에 달았던 '이웃을 위한 연등'의 수익금 2백30여만원을 대전 자혜원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무료급식소 개설준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금련회 수륙대재 봉행

부산지역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인 금련회(회장 지원)는 5월30일 부산 수영만에서 제18회 호국영령 천도재 및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3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화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법안에서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륙대재 후 해군 3함대 소속 함정으로 수영 앞바다에 나가 거북방생법회도 실시했다.

부산지검 검사등 고소

부산 금선사(주지 유초)는 부산지방검찰청 안혁환검사와 김원일 악혁환검사실 계장에 대해 1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금선사는 2명의 피고인외에 5월16일 금선사에 난입했던 11명의 수사관들도 함께 고소했으며 검찰이 공사장 인부들의 신고만 일방적으로 믿고 사찰에 난입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을 하도록 방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금선사 사태해결을 산하기구인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에 일임했다.

조계종 '포교방법론' 올내 발간

영문판 '한국불교' 도

포교 관련 교육교재가 편찬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포교방법론〉을 올해안에 발간, 보급키로 했다. 또 〈포교방법론〉에 이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계층별 포교자료집 및 설법론, 상담기법 등 각론분야의 자료집도 매년 2~3권씩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연구실은 10일 편찬회의를 열어 집필자를 확정한다. 〈포교방법론〉은 포교에 대한 개념, 한국의 포교현실, 설법 기법, 상담, 계층 및 특수포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 사무국장 법성스님, 김경호 연구과장,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 승가대 홍선스님, 성우스님, 김응철교수, 동국대 화랑스님 등 종단의 포교관련 소임자와 종립대학에서 포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다.

포교연구실 김경호과장은 "전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이에 대한 자료제공이 적었다"며 "연차적으로 포교관련 교재 및 자료를 발간하여 일선포교를 뒷받침 할 수 있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은 또 외국인과 교포 2, 3세들에게 한국불교의 문화와 독특한 전통을 알리기 위해 영문판 〈한국불교〉를 올해 안에 펴내기로 하고, 연등불교국제회관에 집필을 의뢰해 진행중이다.

조계종

노숙자합숙소 2곳 더 추진

서울·부산 보현의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4월22일 개원한 서울 용산구 서계동 '보현의 집'에 이어 서울 종로구 수송동과 부산에 제2·제3의 '보현의 집'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직 노숙자 합숙소는 '서울시립 영등포 근로자합숙소' 등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미 지난 5월말에 사무실을 마련한 서울 수송동 제2 '보현의 집'은 개원 예정일이 8일에서 6월중순으로 늦춰졌다. 이유는 1, 2층 건물(모두 1백여평)의 난방장치 설치와 관련한 건물주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서울시의 건물임대료·기자재비·운영비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급식비 지원 등으로 운영될 수송동 '보현의 집'은 숙박 및 아침식사 제공, 종합상담, 실직가정 결연후원 등의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게 된다.

1일 부산시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부산 보현의 집'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역 건너편인 동구 초량동 1209-16번지 건물 1층에 설립계획인 '부산 보현의 집'은 2백평 규모의 숙박·상담·사무실 등을 갖추고 30~60세의 실직자들에게 1회 20일간 숙식을 제공하게 된다. 총소요 예산(7개월 기준)은 인건비, 임대료, 개보수비, 운영비 등 5억7천4백8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승규정' 제정 추진

조계종포교원 군법사 인사파동 조사 확대

군법사 인사파동과 관련해 조계종포교원이 육군본부에 인사초안을 제출한 김말환법사를 조사한데 이어 인사초안에 문제를 제기한 법사들에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김말환법사가 위관급 법사의 법당배속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선정이었다며 보복성 및 측근인사를 부인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포교원은 군법사 인사파동과 관련해 3일 김말환법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의 비중을 무시하고 위관급 법사를 배치하고 △특수부대의 경우 지원자를 우선 배치한다는 육본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군승단 정기총회에서 장기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법사 배치를 추진한 이유를 따졌다. 이에대해 전산분류에 의한 것이라며 보복성 및 측근인사를 부인했다.

포교원은 인사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승단에 대한 포교원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키로 하고 군승단칙보다 상위규정인 '군승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규정'에는 인사 등 군승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포교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방침이다.

故윤이상가족 귀국 추진위 '결성'

평불협·불교인권위

정부가 국가의 허락없이 북한을 방문한 해외거주 한국인의 귀국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불교계가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 가족들의 귀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불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故 윤이상 선생가족 귀국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설정·법타)'를 출범시켰다.

'故 윤이상선생 가족 추진위'는 독실한 불교도로 알려진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는 동양문화의 정신세계에 뿌리를 둔 창작활동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8월15일을 전후해 '윤이상 선생 음악세계 조명 세미나' '윤이상 가족 귀국 환영법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위에는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설조(불국사 주지) 법타(평불협 회장) 청화(실천승가회 의장) 지선(백양사 주지) 영담(석왕사 주지) 향적(조계종 교육부장) 효림(보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신광식 KBS연구위원 지현정사(진각복지회 국장)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 윤기현 변호사 등 교계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갊진희생 추모하고 빛난공훈 예우하자

종무행정 SW 이뭣꼬 등 4종 판매경쟁

올 상반기 사찰 행정 도우미인 종무프로그램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과거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늘어나고 가격도 높아져 사찰 종무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장사, 이뭣꼬, 보리수, 상황종무관리 등 4종의 프로그램은 신도·인등·불사·연등·회계·생일·일정·명함·설법자료 등 주요 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또 기존 제품들의 업그레드(기능추가) 버전이며 윈도우95를 사용하는 괜티엄급 컴퓨터에 적합하게 개발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구형 컴퓨터를 보유한 사찰에서는 새로은 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크다. 또 윈도우 NT로 서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사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무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각 제품들의 독창적인 기능과 해당 사찰 종무와 보유 컴퓨터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목탁소리

"선거때만 불자"

위 영 란 〈취재1부 부장〉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치권이 온통 선거바람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은 과연 그들에게 국난극복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여론이었다.

실제 지방선거에서 52.6%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굵직한 선거가 모두 끝난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경제위기 극복에 진정으로 뛰어들어야 할 과제만이 남아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교계 차원에서는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른바 선거때면 반짝, "불자입네"하는 '철새 불자'에 대해서이다. 이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갔다가 또다시 불교로, 표를 향해 오락가락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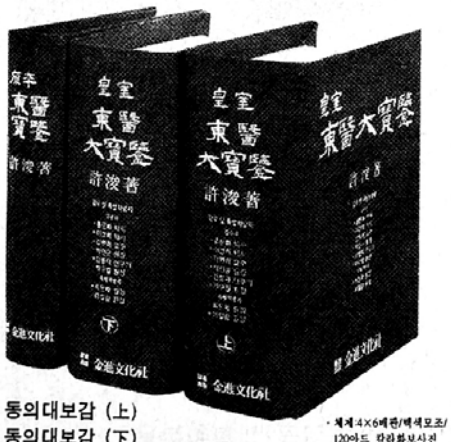
지난 90년 서울에 최초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절을 창건한 L씨는 2년뒤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대선에 패배한 그는 그 원인을 절측과 신도들 나아가 불교계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93년 그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이 개신교계 한 신문에 보도됐다. 이와 함께 그가 창건한 절은 각종 법회가 일시에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난후 그는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5월 중순, 또다시 서울 J사 신도단체 연합회장에 당당히 취임했다.

따라서 종합 정리해 보면, 그는 불자에서 개신교인으로 또다시 불자로 종교가 바뀐셈이다.

이런 일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개종에 대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구나 종교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우려하는 점은 시기적으로 정치적 선거가 계기가 되어 종교가 변하고 종교가 거론되는 사안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종교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에 예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상식이다. 종교는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철새불자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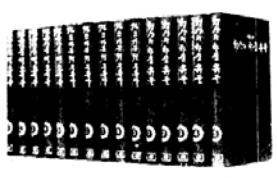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1

· 체제:4×6배판/백색모조/120아드 칼라화보사진 3,000컷/총3,000여쪽/각권 레자가죽케이스/총무게:12.5kg 영구보존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3



2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체제:신국판/백색모조/총6,000여쪽/각권 양장 케이스
박종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120,000

◉ 지고기는 지구름이 전 5권
◉ 이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인줄 몸들 전 5권

◉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중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불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지압·미용 수록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업,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블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돌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풍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륜,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축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 체제:백색모조/4·6배판/총3,900여쪽/내지 칼라사진 및 흑백사진/레자가죽 칼라카바.
· 표지고급케이스 영구보존 기로 225×세로315×두께95
· 총무게:15Kg · 정가:₩580,000

특별할인판매

● 구입방법 ●

· 정 가 : ~~350,000~~
· 특별현금가 : 148,000
· 할부가 : 49,500×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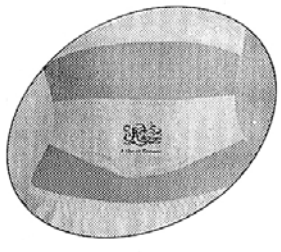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책임감수: 홍문학 이박 김인박 원일 이원 박원 (화사회사 제가일장학장의사장규장 경봉구수돈원일익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담양 석불입상 불두위의 옥개석 독특

■ 석불연구회 답사
■ 연화사 상원스님 제보


◇상원스님.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용리 길가를 지나치다 보면 미륵골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석불입상을 볼 수 있다.

키 3m, 폭 1m의 동글넓적하여 후덕한 상호인 이 석불입상은 불두위에 옥개석이 있고 뒤에 자연석으로 감실이 만들어져 있다. 또 앞에는 자연석으로 단을 해 놨다. 형식은 마애여래입상이다.

수인은 시무외인이고 가사는 통견양식으로 형식적인 옷주름이 표현돼 있다. 그렇지만 가사의 옷소매는 사실적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이 입상에는 손금도 그려져 있을 만큼 선이 섬세하다. 세월의 흐름탓인지 코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일부 부서졌고 왼손과 눈이 시멘트로 엉성하게 보수돼 있다.

키 3m 폭 1m 크기
육계 · 삼도표시 정확
코 · 왼손 · 눈 등 손상

기도객들이 있는지 입상 주위에 촛농가 있고 작은 돌탑들이 빽빽하게 쌓여져 있다. 관리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상은 향토적인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육계와 삼도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불로 추정된다.

이근후회장(한국석불문화연구회)은 "시무외인 수인이나 가사가 통견양식인 것으로 볼 때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형식화된 조각수법을 띠고 있어 고려시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마애석불입상이 원래 미륵골 한가운데 있는 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밭 끝자락으로 옮겨졌다 한다. 기록이나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산 형세로 보아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 미륵골 석불입상.

주민 박종상씨(64세)는 "옛날부터 이곳을 부처골이라고 불렀다"며 "석불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관리가 소홀했는데 기도하러온 사람들이 시멘트로 조잡하게 복원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석불을 제보한 상원스님(담양 연화사주지)은 "사찰로 옮길 것을 고려해 보았으나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담양군청에 석불입상 관리책임 사항로 등록하는 등 직접적인 보존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원우 기자



고려후기 만든 석가여래

해룡사 미륵불

고증: 정영호 박사



해룡사 미륵불(본지 171호 24면 보도 · 사진)은 불상의 기본인 육계와 삼도가 없고 우견편단만 갖추고 있어 비전문가가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유행한 상현좌 양식을 수용했지만 시대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불두가 떨어졌던 흔적이 있고 입과 눈도 후대에 새로 손질하여 특이한 형상으로 변질됐다.

조각양식이나 갓을 쓴 흔적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고려 후기이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않아 석가여래로 봐야 한다.

인위적인 손질로 약간 변형됐지만 해당 군에서 지역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나한도량에서 맺은 인연 ②

"이제 불효하지 말아야지 악인원리 귀인상봉…"


그림 · 이준석

절은 어디까지나 절하는 곳이기에 내 마음을 바로게 닦지 못한다면 마음의 밭은 썩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는 나 하나의 함보다도 배우자를 만나 함께 일구고 싶었다. 출가하지 않고 재가로 살면서 한집에 사는 배우자와 같은 길을 향해 간다면 더없는 도반이고 복된 길이지 싶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을 기다리시는 부모님께도 자연스레 효도하는 길도 될 것이고, 진정 법상치 않은 도반을 아내로 맞고 싶었다. 그래서 함께 불자의 길을 탁마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결혼관이 별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이 오롯한 불자의 길을 가는데 가장 좋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른 분이 고교시절 인연이 깊었던 혜해스님이다. 나는 아는 선배에게 수소문하여 스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다.

97년 5월 무작정 스님이 계시다는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거조암을 찾았다. 10년 세월이 흘러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스님은 첫눈에 "어, 이게 누구신가!"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스님을 뵙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오히려 당신 말씀을 하신다. 3년전 병이 들어 이곳 거조암에 오셨다는 것과 거조암이 오백나한님을 모신 나한도량인데 나한님 5백26분이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계시는 것이 늘 가슴 아프시다는 것이다. 당신의 병인 두통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다며 이번 기회에 발심하여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라 하였다.

나는 스님께 간단히 말씀드렸다.

"불도에 이르는 도반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작 나의 인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직 때가 아니겠지"하시고는, 오백나한님께 기도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기도체험 사례 몇가지를 들려주셨다. 나에게도 오백나한님의 가피가 내려질까, 이왕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내 마음을 한번 깨끗이 닦아보자고 결심했다.

6월부터 매주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이면 직장인 울산에서 영천 거조암으로 내려와 기도하고 일요일 오후에 울산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평일에는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조암에서 오백성중님께 참야기도를 하였다. 우선 내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오백나한님께 진심으로 이생에는 나한님께 원하오니 업장소멸해주시고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중생구도자가 되겠노라고 발원하고,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불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악인원리 귀인상봉(惡人遠離 貴人相逢) 악인원리 귀인상봉…."

인연을 맺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식을 보고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걱정이 많으셨다. 가뜩이나 병약하신 아버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런데 7월 여름 무더위에 한참 철야 정근기도 중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3천배를 넘기는 순간 나반존자께서 가사장삼과 금장가사를 내 몸에 둘러주시고 사라져 버렸다. 더욱 열심히 정근을 마쳤다. 이어진 새벽예불을 하면서도 조금전 기도하면서 알아나 일들에 생각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한님께서 왜 나에게 가사장삼과 금장가사를 둘러 주셨을까 내내 의문이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스님께 말씀을 드렸다. 스님께서는 "나한님이 머리 깎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하시며 출가할 것을 권하신다.

김재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담징이 그린 일본 법륭사 금당벽화 비천도.

日 법륭사 금당벽화 50년만에 공개

49년 화마(火魔)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일본 법륭사 금당벽화 비천도 일부가 50년만에 처음 공개됐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은 신관 완공기념으로 일본 고대문화의 황금기인 8세기 유물만을 집대성한 '천령(天平)'전을 개최, 고구려 스님 담징이 그렸다고 전하는 법륭사 금당벽화와 고구려 비단,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등 한반도 관련 희귀유물들을 일괄 공개했다.

적 · 흥 · 황 삼색이 찬란하며 부드러운 선이 일품인 비천상벽화는 가로 136cm 세로 71cm에 두께는 15cm. 1949년 화재로 석가 아미타 미륵 약사불로 구성된 벽화의 대부분이 다 타버렸지만 비천도 일부만은 남아 덩어리째 떼어 사찰 수장고에 보관돼 왔었다.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